

# 리아호나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연차 대회 of 마지막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위대한 대회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선한 영향을 받았기를, 우리 개개인이  
지난 이틀 간의 경험으로 인해 더 나은 남자와 여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고, 더욱 강한 신앙으로 그분과  
더욱 자주 교통할 것을 간청 드립니다.”





**델 피슨, 잠잠하라 고요하라**

“[구세주]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터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마가복음 4:39)



클렌 에스 훌린즈, 1858년 작, 남으로의 탈출

미국 정부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존스톤의 군대를 파병했을 때, 브리감 영 대관장은 30,000명의 성도들을 이끌고 남쪽 지역인 유타 밸리까지 이동해 갔다. 1858년 7월 1일까지, 미국 정부와 교회는 위기를 해결했고, 성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 리아호나

## 2 제173차 연차 대회 대회 보고

### 토요일 오전 모임

- 4 **교회 현황**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7 **기도의 부드러운 힘**  
러셀 엠 넬슨 장로
- 10 **용서를 통해 원한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 13 **생수가 주는 축복**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 15 **신앙은 시련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19 **보물을 찾아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토요일 오후 모임

- 23 **교회 역원 지지**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24 **교회 감사부 보고서**  
웨즐리 엘 존슨 형제
- 25 **2002년도 통계 보고서**  
에프 마이클 왓슨 형제
- 26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29 **자녀와 제자**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33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크레이그 시 크리스틴슨 장로
- 35 **의지해서 살아야 할 말씀**  
제임스 엠 던 장로
- 37 **회원 선교 사업의 필수적 역할**  
엠 러셀 블라드 장로
- 40 **가족의 중요성**  
엘 톰 페리 장로

### 신권 모임

- 43 **신권 안에서 성장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46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  
대릴 에이치 간 장로
- 48 **사실이 그렇습니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 51 **악마의 목구멍**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54 **네게 임명한 자리를 지지해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58 **총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일요일 오전 모임

- 61 **길 잃고 헤매는 소중한 양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68 **영육의 생명을 염려하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71 **거룩한 장소, 성스러운 곳**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 73 **내가 말했었니 ... ?**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 75 **불확실과 시험의 시기에 지켜 주는 신앙의 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78 **전쟁과 평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일요일 오후 모임

- 82 **인생의 황혼기**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85 **자녀를 위한 기도**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 88 **죄의 악취를 이겨 냄**  
스펜서 브이 존슨 장로
- 90 **유의 사항에 따르십시오**  
디 렉스 게렛 장로
- 92 **영원한 결혼**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 95 **범사에 감사하라**  
대릴 에이치 옥스 장로
- 99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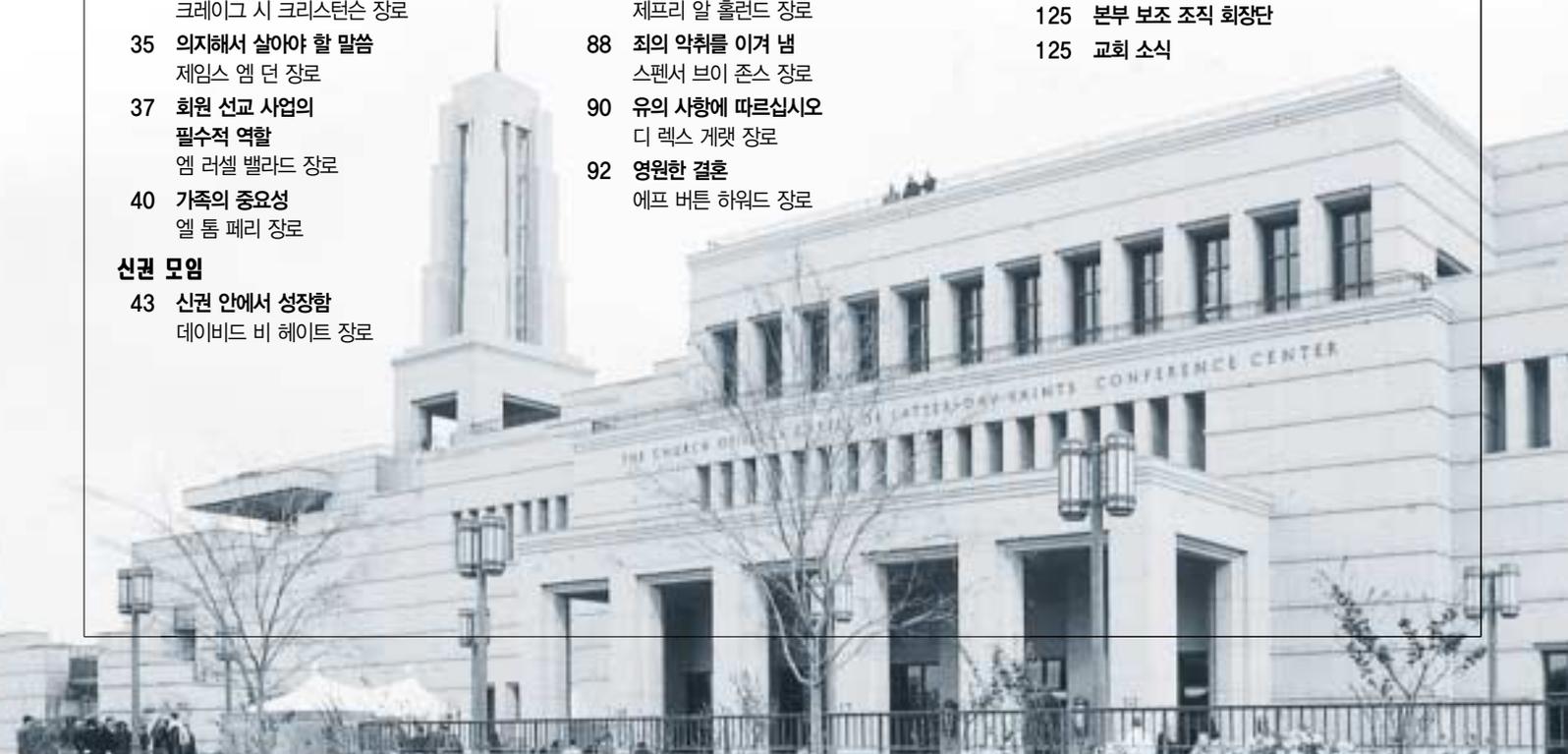
### 청년 총회

- 100 **우리의 성약 안에서 굳건함**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 103 **우리 앞에 밝게 미소 짓는 희망**  
줄리 비 벅 자매
- 105 **힘차게 나아가고 굳건해짐**  
엘레인 에스 델트 자매
- 108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이 지닐 미덕**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인공 위성 방송

- 111 **그분의 사랑의 빛**  
게일 엠 클레그 자매
- 113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
- 115 **여러분이 알고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콜린 케이 멘러브 자매
- 117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6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20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 121 **참고 지도서**
- 125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25 **교회 소식**



## 제173차 연차 대회 보고

### 2003년 4월 5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개회 기도: 제이 켄트 졸리 장로, 폐회 기도: 제럴드 앤 런던, 음악 제공: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크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존 롱허스트, 찬송가 2장 “높은 산 언덕 위”, *어린이 노래책* 138~139쪽 “사랑이 깃든 곳에”, 찬송가 18장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Our Prayer to Thee”(작곡: 조셉 페리, 작사: 러셀 엠 빌슨 장로), 찬송가 32장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114장(영문) “Come unto Him”, 찬송가 265장(영문) “Arise, O God, and Shine”.

### 2003년 4월 5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도널드 엘 스타헬리 장로, 폐회 기도: 듀엔 비 제라드 장로, 음악 제공: 브리감 영 대학교 연합 합창단; 지휘: 로널드 스타 헬리, 로절린드 홀; 오르간 반주: 보니 구드리프, 찬송가 257장(영문, 1948) “If You Could Hie to Kolob”, 찬송가 111장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43장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72장 “낮도 다간 이 저녁에”

### 2003년 4월 5일 선권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린 지 로빈스 장로, 폐회 기도: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음악 제공: 유타 블러프데일, 리버튼, 헤리만 지역 스테이크의 멜기세덱 신권 합창단; 지휘: 토마스 윌드론;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 찬송가 167장 “들오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1장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찬송가 63장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찬송가 60장 “거룩함도 더욱”

### 2003년 4월 6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개회 기도: 윌리엄 알 워커 장로, 폐회 기도: 데일 이 밀러 장로, 음악 제공: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크 제섭;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 찬송가 11장(영문) “What Was Witnessed in the Heavens?”, 찬송가 24장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 *어린이 노래책* 34~35쪽 “He Sent His Son”, 찬송가 35장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15장 “와서 기쁜 노래하라”, 찬송가 4장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114장(영문) “He, Watching Over Israel”. 펠릭스 멘델스존 작, 엘리야 가운데 “He, Watching Over Israel”.

### 2003년 4월 6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개회 기도: 찰스 디디에이 장로, 폐회 기도: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음악 제공: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크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린다 마가렛과 보니 구드리프, 찬송가 36장(영문) “They, the Builders of the Nation”, 찬송가 99장 “주님은 내 목자니”, 찬송가 6장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13장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29장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언자”

### 2003년 3월 29일 토요일 저녁 청년 총회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수잔 터블류 태너, 개회 기도: 수 제이 그로우스벡, 폐회 기도: 사라 우다, 음악 제공: 솔트레이크 홀러데이와 밀 크릭 지역 소재의 스테이크에서 모인 청년 합창단; 지휘: 캐시 졸리; 오르간 반주: 린다 마가렛, 찬송가 55장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어린이 노래책* 34~35쪽 “He Sent His Son”, 찬송가 114장(영문) “Come unto Him”, 찬송가 255장(영문) “Carry On”

### 2003년 2월 8일 토요일 오후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인공 위성 방송

감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회: 콜린 케이 멘러브, 개회 기도: 비키 마쭈모리, 폐회 기도: 앤 호킨즈, 음악 제공: 유타 그레이저 지구 초등학교 합창단; 지휘: 캐드린 스펜서; 오르간 반주: 보니 구드리프, *어린이 노래책* 48쪽 “예수 그리스도 교회”,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친16쪽 “신앙으로 주님 따르라”, 초등학교 노래 메들리(*어린이 노래책* 86쪽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라”, *어린이 노래책* 40쪽 “주 예수를 닮으려고”, 2003년 *리아호나* 10월호, 친12~13쪽 “Holding Hands around the World”), *어린이 노래책* 2쪽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 노래책* 42쪽 “주 사랑 느껴요”.

### 연차 대회 녹화 기록 구입

여러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모임 녹화 기록은 일반적으로 대회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대회 말씀을 찾아보시려면, [www.lds.org](http://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대회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앞: 사진 촬영, 웰든 시 앤더슨  
뒤: 사진 촬영, 탐라 에이치 라티에타

### 대회 사진

이번 호에 나오는 연차 대회 장면들은 크레이그 다이몬드, 제드 에이 클라크, 웰든 시 앤더슨, 존 룩, 로버트 케이시, 데릭 이스라엘슨, 켈리 라슨, 탐라 에이치 라티에타, 매튜 레이더, 크리스티나 스미스가 촬영했다.

#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 제5호

23985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고문:** 제이 켄트 졸리, 더블류 로프 커,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너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코

**관리 편집인:** 리처드 엠 롭니  
**관리 편집인 보조:** 마빈 케이 가드너, 비비안 폴슨, 돈 엘 설  
**편집 스태프:** 콜리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라이언 카, 린다 스틸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사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린우드, 리사 앤 잭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맬린 민슨, 샬리 제이 오데카트, 애덤 시 울슨, 주디스 엠 팔러, 조나단 에이치 스티븐슨,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텔, 캄벌리 웹, 모니카 엑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제이 스크트 크누슨, 스크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페이 피 앤드리스, 시 캄볼 보트, 하워드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브렌트 크리스티슨, 새리 쿡, 케리 린 시 헤린,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버슨, 브래드 커어, 캐리 에이 도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텐슨

통 권: 제 446호, 제 40권, 제 5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3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May 2003 No. 5.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연사들(가나다 순)

게일 엠 클레그, 111  
 고든 비 헝클리, 4, 58, 78, 99, 117  
 닐 에이 맥스웰, 68  
 대릴 에이치 간, 46  
 달린 에이치 옥스, 95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71  
 데이비드 비 헤이트, 43  
 데이비드 이 소렌슨, 10  
 디 렉스 게렛, 90  
 러셀 엠 넬슨, 7  
 로버트 디 헤일즈, 15  
 리처드 지 스코트, 75  
 보이드 케이 패커, 82  
 수잔 더블류 테너, 73, 100  
 스펜서 브이 존스, 88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113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48  
 에프 버튼 하워드, 92  
 엘 톰 페리, 40  
 엘레인 에스 델튼, 105  
 엠 러셀 벨라드, 37  
 제임스 엠 던, 35  
 제임스 이 파우스트, 23, 51, 61, 108  
 제프리 알 홀런드, 85  
 조셉 비 워스런, 26  
 줄리 비 벡, 103  
 캐서린 에이치 휴즈, 13  
 콜린 케이 렌러브, 115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33  
 토마스 에스 몬슨, 19, 54  
 헨리 비 아이어링, 29

## 주제 색인

가정 복음 교육, 54  
 가정, 40, 71, 73  
 가정의 밤, 40  
 가족, 10, 40, 73, 82, 99  
 간중, 29, 43, 85, 113  
 감사, 95  
 개종, 19, 68  
 결혼, 58, 92  
 계명, 48  
 고결, 19, 68  
 교수(가르침), 61, 95  
 교회 잡지, 40  
 구원의 계획, 35, 95  
 그리스도의 빛, 26, 88  
 기도, 7, 29, 33, 37, 75, 90, 99, 113, 117  
 기쁨, 26  
 냉소, 85  
 도덕, 19, 58, 68, 108  
 두려움, 29  
 모범, 43, 82, 85, 108, 115  
 봉사, 4, 43  
 부모 관계, 61, 73, 85  
 부활, 103  
 분노, 10  
 비난, 10  
 빛, 111  
 사랑, 29, 37, 61, 73, 92, 111  
 선교 사업, 29, 37, 46, 54  
 선택의지, 51, 90  
 성격, 75, 108  
 성신, 13, 26, 51, 105  
 성약, 19, 92, 100  
 성전, 71, 92  
 속죄, 88, 103

속고, 33  
 순종, 7, 48, 51, 75, 90, 99  
 신권, 43, 54, 58  
 신앙, 7, 15, 26, 75, 78, 85, 99, 108  
 십일조, 4  
 안식일, 40  
 어린이, 61, 73, 85, 111, 113, 115, 117  
 역경, 15, 19, 75, 95, 100  
 영감, 26  
 영성, 68  
 예수 그리스도, 13, 15, 33, 95  
 예언자, 90  
 외설물, 58  
 용서, 10  
 유희, 51  
 은혜, 108  
 의로움, 35, 68, 115  
 인내, 100, 103, 105  
 장년, 82  
 전쟁, 78  
 조부모, 82  
 죄, 88  
 준비, 46  
 지속적인 활동, 4  
 지혜, 82  
 청소년, 4  
 초등학교, 115, 117  
 충실, 58  
 치유, 13  
 평화, 13, 15, 26, 75, 78, 99  
 표준, 115  
 하나님 아버지, 117  
 합당성, 37, 46, 48  
 활동화, 54  
 회개, 61, 88  
 희망, 19, 100, 103, 105  
 희생, 71

# 교회 현황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따르고 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번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계 전역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언어는 하나이지만 많은 나라의 교회 시설에 모여 있는 수많은 여러분은 56개 언어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뜻과 지시에 따라 우리는 위대한 세계 연차 대회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현재 세상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있습니다.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교회 가족에 속한 회원들은 많은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논쟁을 벌이는 양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도 불구하고 교회 사업은 진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세계 전역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심각한 장애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종자는 계속 교회로 들어오고 있으며, 회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병행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례를 받고 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꼭 안아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께서는 새로운 개종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팔로 감싸 안고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우정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잃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십시오. 침례를 받기에 합당한 모든 남자, 여자 혹은 아이들은 안전하고 친절 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기에 합당하며, 이들은 교회와 교회 안의 많은 활동 안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 참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여지는 여전히 있으며 여러분에게 꾸준히 노력하시도록 당부합니다. 그렇더라도, 모임 참석률이 이렇게 꾸준히 높은 다른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청소년들이 보여 주는 힘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주변에 있는 모든 사악한 유혹 가운데서도 청소년들의 힘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천박하고 추한 외설물, 마약을 취하는 유혹, 성적인 행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치워 버리라는 유혹,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매력적인 유혹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매력적인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상의 신앙과 그들이 사랑하는 복음에 충실합니다. 저는 훌륭한 우리 청소년들의 좋은 점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신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회소와 성전 건축, 광범위



제173차 연차 대회 모임을 위해 컨퍼런스 센터를 가득 메운 사람들

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의 십일조 수입에 의존하는 많은 활동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부채를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우리는 십일조 수입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 성스러운 기금을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지역 신문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템플 스퀘어 남쪽에 인접한 쇼핑 몰을 구매하기로 한

우리의 결정이 그 내용입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쇼핑 몰이 서 있는 대지의 대부분은 교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매각할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 건물을 보수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일이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 교회 회원들에게 확언하건대 이 부동산을 매입하

는 데 십일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일조는 또한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기금은 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나온 것이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과 더불어 투자 예비 기금에서 나오는 수입이 이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계속하면서 앞



대회 시작 전,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왼쪽) 및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과 대화 중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가운데)

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늘어나는 교회 회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매년 약 400개의 새로운 예배당을 짓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며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적으로 성전 건축을 계속하고 있으며 성전 활동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회원들 가운데 가족 예비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60여 년 이상 가르쳐 온 이 프로그램은 말일성도의 안전과 복지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가족은 자신의 필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고, 재정 관리를 검소하게 하고, 비상시를 위해 얼마간의 현금을 저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빠르게 부를 축적하는 계획”과 거의 대개 순진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을 피하도록 경고합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어마어마한 봉사의 양에 계속 놀랄 따름입니다. 자발적인 봉사는 주님이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와 정원회, 그리고 보조 조직의 기능, 그 모든 것은 자원 봉사자들의 인도로 움직여 나갑니다. 광범위한 선교사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봉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 연로한 회원들이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000명 이상의 회원이 이 사업을 위해 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5억 3천 7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영구 교육 기금 창설 두 돌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확고한 기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현재 약 8,000명의 젊은 남녀가 기술과 취업의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 정도의 교육을 받고 나면 그들의 수입은 약 4배 반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얼마든지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황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현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회원들의 신앙뿐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하는 열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는 힘들어지고, 세상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의롭게 생활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따르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번영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하늘에 있는 가장 풍요로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그리고 등에는 의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의 미소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시련의 시기에 위안을 가져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이 위대한 대회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저의 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기도의 부드러운 힘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고, 강화시키며, 우리의 완전한 잠재력을 달성하도록 돕고 싶어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컴퓨터, 전화기, 호출기 등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훌륭한 의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의사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양로원을 방문했을 때, 여성 한 분과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두 아들이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한 아들은 어떻게 된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 애가 어디 있는지 모르ند요.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요. 대체 손자 손녀가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몰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 왜 기도하는가?

그 같은 어머니가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자 갈망한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왜 자녀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지는 쉽게 이해됩니다.<sup>1</sup>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아주 쉽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그분께 기도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전전지를 충전하거나 월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 것으로 하여 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의 재물만을 생각하여 이를 주신 주...께 감사를 돌리지 아니한지라”<sup>2</sup>

예언자들은 오래 전부터 겸손하게 자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sup>3</sup>

##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sup>4</sup>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sup>5</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sup>6</sup>, 성신의 권세를 통해<sup>7</sup>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참 질서”로서<sup>8</sup>, 중언 부언이나<sup>9</sup> “사람에게 보이려고” 낭송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sup>10</sup>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 사항을 이미 아시는 현명하신 하나님 아버

지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sup>11</sup>

물론은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마음을 기울여”<sup>12</sup>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이는 낮으로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밤이면 저들로 인하여 나의 베개가 눈물로 적셔 집이라. 또한 나는 하나님께 신앙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아는도다.”<sup>13</sup>

기도의 부드러운 힘은 종종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금식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sup>14</sup>

심지어 기도는 말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로 하기가 어려운 때에는<sup>15</sup>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무릎을 꿇거나 서서 또는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sup>16</sup> 신체적인 자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sup>17</sup>이라고 말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 “그것이 또한 저의 기도입니다.”<sup>18</sup>라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소리내어 말합니다.

## 언제 기도하는가?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믿으라. ...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sup>19</sup>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다. 네가 밤에 누울 때 주님과 함께 하면 잠자고 있을 동안 주께서 너를 살피 주실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sup>20</sup>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식사 시간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기도합니다. 간단히 요약해,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 기도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부드러운 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부 유타 출



신의 한 축복사와 관련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분을 심장 수술의 초기 개척 시대라 할 수 있는 40여 년 전에 제 진료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신앙심 깊은 이 축복사님은 심장 질환으로 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 분은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치료가 가능한 자신의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종합 진찰 결과 판막 두 개가 손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개의 판막은 수술로 고칠 수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그 분은 이 소식을 듣고는 무척이나 상심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방문을 했지만 같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절망 속에서 그 분은 감정에 복받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넬슨 박사님, 제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박사님

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판막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제게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박사님께는 알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님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사님이 수술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박사님께 알려 주실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수술을 집도해 주시고, 박사님이 필요한 도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sup>21</sup>

저는 그 분의 위대한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분의 청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열렬히 기도한 후, 저는 시도해 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수명적인 날을 준비하며, 저는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구멍 난 삼첨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을 때조차도,<sup>22</sup> 제 보조 의사는 “구멍 난 그 삼첨판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술을 시작했고, 첫번째 판막의 막힌 부분을 벌린 후,<sup>23</sup> 두 번째 판막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판막이 완전히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판막을 검사하는 동안, 제 마음 속에는 **심방륜의 넓이**를 줄여 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보조 의사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심방륜을 원래 크기만큼 줄일 수 있다면, 판막 조직은 충분할 거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큰 바지를 허리에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허리띠를 사용할 수도 없었고, 말 위에 얹은 안장을 조이듯이 가죽띠로 꼭 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때 생생한 영상이 제 마음에 떠올라, 어떻게 꿰매야 여기를 잡고 저기를 줄여서 원하는 대로 해낼 수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꿰매야 할 위치가 점선으로 완전

하게 표시되어 있던 마음 속의 영상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술은 제가 마음 속에 그린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판막을 시험해 보았고, 새는 현상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보조 의사는 “기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입니다.”라고 대꾸했습니다.

환자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으며, 상태도 호전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분뿐 아니라 비슷한 병으로 고통 받고 있던 다른 환자들에게도 외과적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충실한 그 축복사님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이 신앙심 깊은 형제님은 그 후로 오랫동안 사시다가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셨습니다.

### 주님께 구함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 조언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조언을 구하고<sup>24</sup> 그분의 조언에 귀기울여야 합니다.<sup>25</sup>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가 복음의 회복을 가능케 했습니다.<sup>26</sup> 1833년, 주님께 조언을 구한 후에 요셉은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sup>27</sup>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1978년에 받았던 신권에 관한 계시는 진지한 기도 후에 왔습니다.<sup>28</sup>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깊이 숙고한 끝에 소규모 성전 건축에 관한 영감을 받으셨습니다.<sup>29</sup>

### 기도에 대한 응답

모든 기도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안돼라는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많은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하는 모든 요청에 그래라고 답하지는 않습니다.<sup>30</sup>

최근에 손자 손녀들까지 함께 한 가정의 밤에서,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섯 살짜리 손자 한 명이 아버지가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하자 몹시 기분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소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이는 제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해 주시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안 된단다, 애야.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행복이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란다.<sup>31</sup> 가족과 함께 집에 가거라. 그제 너를 행복하게 해 줄 거야.” 비록 실망하긴 했지만, 그 아이는 공손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기도해야 합니다.<sup>32</sup>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고, 강화시키며, 우리의 완전한 잠재력을 달성하도록 돕고 싶어하십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sup>33</sup>

### 기도의 노래

저는 기도에 관한 저의 말씀을 찬송가에 나타난 기도문으로 마쳐야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sup>34</sup> 이 음악은 찬송가에 나오는 것으로,<sup>35</sup> 제가 새롭게 작사한 것입니다. 크레이크 제섭 형제, 맥 윌버그 형제, 그 외 사랑하는 태베나클 합창단의 단원들 덕분에 이 기도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제섭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합창단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많은 절들은 “주를 기억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모사야서 9:3; 13:29; 힐라맨서 12:5 참조)
2. 힐라맨서 13:22.
3. 예를 들면, 예레미야 29:11~13; 요엘 2:32; 빌립보서 4:6; 니파이일서 15:8~11; 엘마서 37:37 참조.
4. 그분은 속죄를 이루시며 그분의 아버지와 셋세마네에서(누가복음 22:39~44 참조),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누가복음 23:33~34, 46 참조) 기도를 통해 의사 소통을 하셨습니다.
5. 마태복음 6:9;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10; 누가복음 11:2; 니파이삼서 13:9 참조.
6. 야곱서 4:4~5; 니파이삼서 20:31; 27:9; 모세서 5:8 참조.

7. 모로나이서 6:9; 10:4~5 참조.
8. 브르스 알 맥퉁키,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380~381쪽.
9. 마태복음 6:7.
10. 마태복음 6:5.
11. 마태복음 6:8 참조.
12. 모로나이서 7:48.
13. 니파이일서 33:3; 또한 야곱서 3:1; 엘마서 31:38; 교리와 성약 37:2 참조.
14. 마태복음 17:21; 마가복음 9:29; 고린도전서 7:5; 모사야서 27:22~23; 엘마서 5:46; 니파이삼서 27:1; 교리와 성약 88:76 참조.
15. 한 찬송가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다. “기도는 영혼의 소망, 말하든 안하든, ...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우리러 보는 눈”(찬송가, 61장)
16.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7. 다른 자료가 더 필요한 경우, 델린 에이저 옥스, “기도의 언어”, 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15~18쪽 참조.
18.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4th ed. (2000년), 57쪽 참조. “아멘(은) ... 기도 또는 동의나 승인을 표하기 위한 성명의 끝에 사용됨.
19. 교리와 성약 90:24.
20. 엘마서 37:37; 또한 모사야서 26:39; 엘마서 26:22 참조. 비교 가능한 바울의 가르침은, 데살로니가전서 5:17 참조.
21. 그렇게 축약해서 인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의 말을 정확하게 대변한 것이다.
22. 이 수술은 1960년 5월 24일에 실시되었다.
23. 그는 이전의 류마티스 열로 생긴 승모판의 협착증을 앓고 있었다.
24.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교리와 성약 42:61).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9편을 참조한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모든 일을 잊게 하리라”(8~9절). 또한 야곱서 4:10 참조.
25. 출애굽기 15:26; 신명기 13:17~18; 사무엘상 15:22; 예레미야 26:4~6; 솔나이서 1:13; 교리와 성약 41:1; 133:16 참조.
26. 요셉스미스 서 2:15~20 참조.
27. 교리와 성약 89:1~21 참조.
28. 교리와 성약 공식 선언문 2 참조.
29. *Church News*, 1998년 8월 1일, 3, 12쪽; 1999년 3월 13일, 9쪽; 2000년 3월 4일, 7쪽; 2000년 6월 24일, 9쪽 참조.
30.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라고 말하는 경험을 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계셨다.
31.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아브라함서 3:25 참조. 사랑하는 부모님이 전해 주는 현명한 조언에 대한 순종, 에베소서 6:1; 골로새서 3:20 참조.
32. 힐라맨서 10:4~5 참조.
33. 교리와 성약 122:7.
34. 교리와 성약 25:12.
35. *Hymns*, 337장; 작곡자는 조셉 패리이다; tune: SWANSEA.

# 용서를 통해 원한은 사랑으로 바뀝니다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용서란 우리의 운명이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미래를 향해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장로님께 주신 영의 은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의 재능으로 인해 교회뿐 아니라 전세계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용서에 대해 말씀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작은 농촌이었는데 물은 그곳의 경제 생활에서 생명의 피처럼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비, 수자원 이용권 및 물에 관한 것을 줄곧 살피고 걱정하며 기도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제 자녀들

은 사람이 비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를 놀려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 고향에서 비는 중대 관심사를 넘어 생존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날씨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한 농부가 관개수로에서 물을 너무 많이 빼돌린다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저희 목초지 부근에 살고 있던 체트와 월트라는 사람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쓰고 있던 관개수로에서 물을 끌어 쓰는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이 넘어갔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불화는 분노와 시비로 비화되었으며 마침내 서로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자기가 받은 물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로로 달려간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자기의 뭇까지 끌어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수문에 당도한 두 사람 사이에는 분노에 찬 고성어 오고 가더니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월트는 몸집이 크고 힘이 세었습니다. 체

트는 체구가 작고 여위었지만 힘은 셧습니다. 몸싸움이 지나쳐 두 사람은 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만 어찌다 월트의 삽이 체트의 한쪽 눈에 맞아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체트는 잊지도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한쪽 눈을 잃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증오심만 커졌습니다. 어느 날 체트는 광으로 가서 선반에 있는 총을 집어 든 다음 말을 타고 수로의 수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로에 독을 쌓아 수로를 월트의 농장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놓은 다음 월트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체트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린 지 얼마 안 되어 월트가 나타나자 총을 쏘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타고 집으로 가서 보안관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총으로 월트를 쏘았노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체트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범정에 배심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제 부친은 두 사람과 가족 간에 오랜 친구라는 이유를 고사했습니다. 재판에서 체트는 살인죄라는 판결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체트의 아내가 부친을 찾아와 수년간 주립 교도소 생활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지사에게 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탄원서에 서명하고 며칠이 지나 월트의 장성한 두 아들이 저의 집에 왔는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부친이 탄원서에 서명하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서명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서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부친은 응하지 않았는데, 건강이 나빠진 체트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격정에서 벗어난 끔찍한 범죄로 그는 여러 해를 감옥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친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트의 장례식과 매장이 제대로 치러졌으면 했습니다.

월트의 아들은 화를 내며 “체트가 출옥하는 날 그와 그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체트는 마침내 석방되어 집으로 가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했습니다. 양쪽 집안



사이에 더 이상 폭력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앞뒷집의 어릴 때 친구인 체트와 윌트가 노여움에 사로잡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었다고 부친은 개탄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물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순간의 격정으로 걸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구세주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sup>1</sup>고 하시면서 우리의 불화를 조기에 해결하여 순간의 격정이 육체적 감정적 잔학 행위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노여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특히 우리의 가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반드시 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불안정한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화를

낸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트집을 잡아야 할까요? 순간의 걱정이 우리를 이기게 내버려두어야 할까요?

언젠가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기분이 상한 것을 독있는 뱀에 물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울뱀에 물릴 때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혹은 보복하려는 생각에서 뱀을 쫓아가 죽이는 일입니다. 아니면 서둘러 체내에서 독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후자의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전자의 방법으로 하면 뱀을 죽이기도 전에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sup>2</sup>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사이에서 상대방의 화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중 문화

에서는 용서와 친절의 미덕을 소홀히 하는 반면 조롱, 분노 및 거친 비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 이러한 관행의 영향을 받아 속물처럼 그러한 처신을 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 자녀들, 또는 그 외의 식구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기심에 찬 비방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작은 시비와 사소한 비난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가족들간의 관계를 해쳐 서로 멀어지고 학대나 이혼 사태까지 맞게 됩니다. 그보다 독사의 독의 경우에서 배운 것처럼 서둘러 시비를 가리지 말고 조롱과 비난을 피하며 분노와 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격정을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윌트와 체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애급의



요셉의 예와 비교해 봅시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을 갖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에 끌려간 요셉은 여러 해 동안 고생한 끝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요셉은 형제들을 저주하고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야망있을 생각을 하며 고통을 달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은 바로의 2인자로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을 맞아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구하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위직에 있는 동생에게 절을 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자리에서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투옥하거나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요셉은 이런 말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

서 ...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sup>3</sup>

용서하려는 요셉의 뜻은 원한을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악을 묵인하는 것과 혼동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 역에서 “의로운 비판을 하라...”<sup>4</sup>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악이든 물리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를 해친 이웃을 용서해야 하지만, 우리는 해를 입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대를 받은 여성은 복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반복적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은 사업가는 부정직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악을

덮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며 우리 주변이나 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잘못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퇴치하되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미움이나 분노에 의해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sup>5</sup>

용서가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서 우리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를 입는다면, 고통은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고통이나 불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선택은 복수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한 차원 높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해를 입으면 용서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용서하면 더 나은 미래를 펼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이 더 이상 우리의 앞길을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의 삶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란 우리의 운명이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미래를 향해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웃을 괴롭히는 양심의 씨앗이 우리의 가정에 뿌리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교만, 분노 및 편협한 생각을 극복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sup>6</sup>는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베풀도록 도와 주셔서 구세주와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과 친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마태복음 5:25.
2. Marion D. Hanks, “Forgiveness: The Ultimate Form of Love,” *Ensign*, 1974년 1월호, 21쪽.
3. 창세기 45:4~5, 7~8.
4.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7:1.
5. 교리와 성약 64:9.
6. 골로새서 3:13.

# 생수가 주는 축복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생수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평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성역 초기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소년 시절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까지 여행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던 그분은 여행에 지쳐서, 휴식을 취하려고 야곱의 옛 우물에 멈추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제자들은 인근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물 한 모금을 요청하셨을 때, 그녀는 유대인이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적으로 여겨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녀가 상대가 누구인지를 이해한다면 주님께 물, 즉 생수를 요구할 것이며 그 생수는 그녀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물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

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3~14)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그 생각을 좋아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무거운 물동이를 우물에서 집까지 나르는 매일 매일의 일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그리고 영이 그녀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을 때, 그녀는 예수님이 더 큰 진리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와서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급히 우물가를 떠나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그 시점에서 그녀나 우리가,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 안에 갖게 되리라는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생수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평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인은 그녀와 가족에게 상처를 입힌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로 힘겨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에게 원한을 갖거나 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도 그러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청한 후, 그녀는 마침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던 중 어느 날, 치유가 왔습니다. 어떤 분명한 느낌이 제 몸 전체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안전과

평화스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상관없이, 가족과 제가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가 제게서 떠났으며,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도 사라졌습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전해 주는 분은 성신입니다. 제 친구는 무엇이 옳은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적절한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느끼고,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낮추었을 때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많은 여성과 그들의 신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치유의 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상의 삶에는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을 야기하는 수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고, 전쟁에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압니다. 자녀들이 직면할 유혹들을 알기에 매우 두려워하는 부모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게는 화학 요법의 영향으로 손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소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버림받고 혼자 자녀를 기르는 독신 부모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우울증으로 인한 신경 쇠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겪은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도록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선과 힘과 확신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으며 신뢰감을 갖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일어섭니다. 우리는 치유됩니다. 살아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웃고, 즐기며,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생수는 또한 양분을 줍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는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에게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마태복음 11:28 참조) 우리가 지칠 때 떠받쳐 주십니다. 샘물은 우리가 그것을 마시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제공하며 넘쳐 흐릅니다. 교만은 단순한 무관심과 마찬가지로 그 물의 효과를 파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이마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샘물이 됩니다. 한 영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양분을 주고 그를 먹이는 것입니다.

작년에 가족의 한 소중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루실은 89세였으며 20년 동안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녀의 죽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알았습니다. 이웃들은 알았습니다. 그녀의 워드 회원들은 알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죽음으로 세상은 더 어두운 곳이 되었습니다. 미망인으로 지내는 동안, 그녀는 사랑하는 손자의 죽음이나 노화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등 어려운 문제들을 견디어 냈습니다. 그러나 루실은 그녀의 영으로, 직접 만든 음식과 누비이불과 모포로, 또한 유머와 선의로,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981년 어느 봄날 그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 성전에 가던 길에 미풍에 부드럽게 날리는 깃발을 보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을 올려다 보며 저곳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했다. 잠을 자느라 이 아름다운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팎다는 느낌을 가졌다.”

우리 대부분이 새벽 3시 30분에 날이 밝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쯤이면 침대 안에서 구르는 것에 완벽한 행복을 느끼면서 루실이 우리를 가엽게 여기는 느낌을 갖도록 내버려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태도입니까? 내부에서 솟아나는 선함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순수한 영혼을 열다섯 살이나, 스물다섯, 아니면 쉰다섯에 가졌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성신의 음성에 귀기울여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잘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고 하루 종일에 걸쳐, 특히 새벽 3시 30분에 시작되는 그런 날, 그 맛을 음미할 수 있을 만큼 생수를 신뢰하기까지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생수가 루실을 지탱해 주었다고 믿으며, 그녀의 삶과 영혼은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분이 되었습니다.

생수는 심지어 우리 안에 샘이 마른 것처럼 보일 때에도 평화와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신 질환으로 고생을 하다 돌연히 죽은 아들을 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족은 참담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다시 행복해질 것이라고는 상

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상호부조회 회장이자 그녀의 방문 교사가 된, 예전에 자신이 가르쳤던 한 월계반 청년의 봉사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엔 자매님이 절 도와 주셨죠. 이젠 제가 도와 드릴게요. 우린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평화, 심지어 기쁨까지 그녀의 삶에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영을 온전히 정제하는 데에는 평생, 혹은 더 오랜 세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 신앙은 시련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보이고 개인적으로 어떤  
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  
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가셨습니다. 때는 밤이였  
으며 구세주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편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주님을 깨웠습니다. “선  
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  
시나이까”<sup>1</sup> 그분의 대답은 그분의 성품만큼이  
나 평온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  
음이 작은 자들이”<sup>2</sup>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

짚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  
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  
니다.]”<sup>3</sup>

지구를 창조하신 그분은 다시 한번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하셨던 것입니다.<sup>4</sup> 제자들이 놀  
라서 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  
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sup>5</sup>

우리는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악의 폭풍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악의 바람은 우리를 향해 몰아치고, 전쟁의 물  
결은 우리의 배를 향해 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었듯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  
며 ...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  
인하고”<sup>6</sup> 있습니다.

협약한 구름이 우리 주위로 몰려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세주의 말씀이 배에 타고  
있는 사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었듯이 그것  
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sup>7</sup> “[여러분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sup>8</sup>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생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청년들을 볼 때 고무됩  
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영적 훈련을 받아  
상호부조회에 들어오자마자 곧 경험 많은 자매  
남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또한 이 젊은 자매  
들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자매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달을 때 저는 기  
쁨이 넘쳐 흐릅니다.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옵  
니다. 그러나 우리의 짐과 행복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런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서로  
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간단하고 고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  
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온  
통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가족들은 고투하고 있습니다. 핑클리 대관장님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  
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3쪽) 그러나 생수는 여전히  
평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을 때, 우리가  
받는 선물 중의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교리와 성약 101:16) 혼돈  
의 와중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초기 성도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 잘되리”(“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라고 속삭이는 영의 소리를 들어  
야 합니다. 걱정해야 할 이유들이 있지만 평안  
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  
을 거절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  
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압니다. 그  
분의 치유력과 양분을 주는 힘과, 평화와 기쁨  
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흐르게 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는 순종했으며,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그는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엘리야에게 시키실 중요한 일이 있었으므로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가라고 하셨습니다.<sup>9</sup> 그리하여 엘리야는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으므로 편안한 우리의 동굴에서 밖으로 나와야 합니

다. 주님의 영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야렛의 동생에게 가족이 안전하게 대양을 건널 수 있도록 돕고, 바람과 물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배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배들의 모양은 다른 배들과 달랐지만 매우 안전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잠길지라도 저들에게 물이 범접치 아니하였으니, ... 아무 괴물도 저들을 깨뜨리지 못하였고 저들을 해칠 고래도 없”었습니다.<sup>10</sup>

그런데 이 배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야렛의 동생은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어둠 가운데 여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가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이에 주가 야렛의 동생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배 안에 빛을 있게 하도록 내게 청함이 어쩡이나?”<sup>11</sup>

이 질문에 대한 야렛의 동생의 대답에서 그는 자신쪽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셸렘 산으로 올라가서 “작은 돌 열여섯 개를 끊어내”었습니다.<sup>12</sup> 그는 주님께 그 돌들에 손을 대어 빛을 발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지도자로서 “[주]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sup>13</sup>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렛의 동생처럼 우리는 가족의 필요 사항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계획을 세운 다음 그 계획을 기도로서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노력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러한 경험 후에, 야렛의 동생은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할 여행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sup>14</sup> 우리 또한 우리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들은 우리의 생활에 질서를 세우도록, 즉 부채를 없애고, 식량과 필요한 물자들을 비축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적절한 교육을 받고 계명에 따라 생활할 것을 거듭해서 권고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적인 가르침에 순종했습니까?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의심과 두려움을 봅니다. 이 소중한 후손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실직, 가난, 전쟁, 부도덕, 그리고 범죄에 관해 듣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걱정합니다.

그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 돌이켜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충실하게 소망을 갖고 듣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가정의 밤과 가족 평의회를 갖고, 교회 부름에 충실하게 봉사하며, 정기적으

로 성전에 가고, 우리가 맺은 성약에 순종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두려움은 줄어들고 주님에 대한 확신은 커 갈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격노가 치명적인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sup>15</sup> 그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에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애를 통해 그는 질병, 사고, 궁핍, 오해, 거짓 고소 및 심한 박해 등과 같은 그를 낙담케 하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러한 장애물로부터 그의 예언자를 보호하고, 무한한 자원을 제공해 주며, 그를 모함하는 자들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좀더 구세주처럼 되기 위해 어떤 경험들을 겪어야 합니다. 필멸이라는 학교에서 종종 고통과 시련이 교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는 교훈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고 축복하며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실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이야,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sup>16</sup>

“저들이 너를 깊은 바다에 던질지라도, 물아치는 파도가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열풍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 오고 풍우화석이 모두 힘을 모아 길을 가로막으...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야,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sup>17</sup>

예언자 요셉의 생애에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들이 이 말일에 복음의 회복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그를 멸망하도록 내버

려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신앙의 시험은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복지에 대해 얼마나 깊이 염려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됩니다.

우리 시대에, 도움을 주는 주님의 팔은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 집니다. 예언자 요셉은 나부에서 초기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고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합니다.”<sup>18</sup> 그의 말은 얼마나 옳습니까! 성전 성약의 축복과 권세로 엔다우먼트를 받는 일은 말일성도들이 신앙으로 시련을 견뎌 내는 일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사라 리치는 개척자 여행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지식이 아니었더라면 ... 우리의 여행은 마치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sup>19</sup>

저는 구세주께서 경험하신 혹독한 시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였다 하더라도, 교활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분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성역을 베푸는 동안 그분이 어느 곳으로 가든 소문의 폭풍과 거짓말과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한 주일을 생각할 때 감명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분의 권능에 도전했으며,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으며, 두 번이나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겻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으며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배반 당하시고, 체포되었으며, 심문을 받으시고, 매맞으시며 침 뱉음을 당하시고 또 맞으셨습니다. 공회 심문을 받은 뒤에 그분은 해롯에게 조롱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으며, 그곳에서는 성난 폭도들 앞에 세워지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 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분의 몸은 평범한 강도들 사이에 세워지셨습니

다. 군병들이 그분의 세상 소유물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았으며, 그분의 갈증을 달래기 위해 신 포도주가 주어졌습니다. 약 여섯 시간 후에<sup>20</sup>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구세주의 생애 마지막 주를 살펴볼 때, 우리가 처음 받는 느낌은 고통과 파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모친과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주위에서 우는 것과 군병들이 두려워하고, 땅이 크게 진동하며, 바위들이 깨어지고,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지며, 세 시간 동안 어둠이 땅을 뒤덮는 것만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와 비슷한 폭풍과 파괴의 장면은 신대륙에서도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끔찍한 대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생애에서 가장 고뇌에 찬 그 마지막 주에, 예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강화시키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아버지에 관해 가르치시고 성전을 정돈하시고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재림의 표적에 관해 가르치시고, 나병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시고, 사도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성에 관해 증거하시고 보혜사, 즉 성신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위대한 중재의 기도에서 그분은 사도와 그들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들로 [그분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sup>21</sup> 하도록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가장 암울했던 시간에도 평안과 기쁨의 빛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죽음을 겪은 후에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sup>22</sup>는 소식이 전해진 그 아침에 느낀 기쁨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얼마 후 그분은 길을 가는 두 여인에게 나타나셨으며, 엠마오로 여



행하던 글로바와 한 제자에게,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의심했던 도마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는 기쁨과 속죄와 부활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sup>23</sup>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시현을 통해 예언자, 계시자, 선견자였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구세주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의로운 자의 영들이 한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였고 ...

“이들은 모두 ...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는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현세를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으며, 그들의 구원의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함께 기뻐하였으며,

“그들은 한데 모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세계에 오시어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그들의 구속을 선언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실한 영들은 곧 “그들의 잠들고 있는 육신의 뼈와 근육과 살이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고, 영과 육이 결코 분리되지 않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무리가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때를 기뻐하고 기다리며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어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었습니다.”<sup>24</sup>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보이고, 개인적으로, 가정과 가족 안에서 우리가 어떤 폭풍을 만나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쁨은 지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죽음, 질병, 정신적 이거나 신체적인 장애, 개인적인 비극, 전쟁 및 다른 분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필멸의 시험의 기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예능이 미리 내다보았듯이, “하늘은 어두워지며 땅은 흑암의 휘장이 덮일 것이요, 하늘은 진동하리니, 땅도

그러하리라. 또 시련이 인간의 자녀 가운데 있을” 때인 구세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주님께서는 “나의 백성은 내가 보존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능은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충만한 기쁨을 받”<sup>25</sup>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이 절기의 오늘 아침,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고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간증드립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계명에 대한 순종은 “안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sup>26</sup> 가져다줄 것이며, 이 혼란한 시기에 어둠과 침울함을 몰아낼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요소들을 잠잠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셨던 분은 폭풍의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고] 고요하[게]”<sup>27</sup> 하실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마가복음 4:37~38.
2. 마태복음 8:26.
3. 마가복음 4:39.
4.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312, 313쪽 참조.
5. 마가복음 4:41.
6. 디모데후서 3:1, 2, 5.
7. 마가복음 13:7.
8. 교리와 성약 38:30.
9. 열왕기상 19:1~15 참조.
10. 이터서 6:7,10.
11. 이터서 2:23.
12. 이터서 3:1.
13. 교리와 성약 58:26.
14. 이터서 6:4 참조.
15. 요한복음 17:15.
16. 교리와 성약 121:7.
17. 교리와 성약 122:7.
18. *History of the Church*, 2:309.
19. “Sarah DeArmon Pea Rich, *Autobiography*, 1885~1893.” 가족 및 교회 역사부 기록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67쪽.
20. *예수 그리스도*, 659~660쪽 참조.
21. 요한복음 17:13.
22. 마태복음 28:6.
23. “신약전서 개관: 구세주께서 보내신 마지막 주”, *리아호나*, 2003년 4월호, 26~29쪽 참조; *Ensign*, 2003년 4월호, 26~29쪽.
24. 교리와 성약 138:12, 14~18.
25. 모세서 7:61, 67.
26. 니파이서 31:20.
27. 마가복음 4:39.

# 보물을 찾아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과거로부터 배우십시오.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지은 보물섬을 즐겨 읽었습니다. 또한 모험 영화도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각각 나누어 갖고 있는 낡은 지도 조각을 찾아서 맞추기만 하면 보물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만 되면 15분짜리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던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그램은 “잭 암스트롱, 이상적인 아메리칸 보이”였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짧은 노래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아침 식사인 휘티스를 시식해 보셨습니까?” 그런 후 신비에 가득 찬 목소리에 담겨 이런 메시지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잭과 베티와 함께 보물이 숨겨져 있는 신비스럽고 전설적인 코끼리 무덤 입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 길 앞에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를 이 프로그램에서 떼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숨겨져 있는 귀한 상아 보물을 찾는 탐색대를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전혀 다른 곳에서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보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sup>1</sup>

약속된 상은 상아나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넓은 땅도 아니었으며 증권이나 주식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부, 즉 이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내세의 영원한 행복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줄 보물 지도의 세 조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로부터 배우십시오.
  2.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3.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 지도의 각 조각을 살펴봅시다.

**첫째, 과거로부터 배우십시오**

우리는 각자 개척자 조상으로부터든 나중에 개종한 사람으로부터든 아니면 우리의 삶을 가다듬도록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든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유산은 희생과 신앙으로 이루어진 기초입니다. 그러한 굳건하고 안전한 기초 위에 쌓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1974년 *뉴이러(New Era)*에는 카렌 노렌이 쓴 1888년에 열다섯 살의 나이로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된 벤자민 랜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타 북부에 있는 한 농장에서 그는 어머니와 일곱 명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어 때로는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때쯤씩 어머니는 그가 농장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까지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어 자물쇠로 채워 버리곤 했기 때문에 벤자민에게는 그것을 연주하고 싶은 것이 큰 유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892년이 저물어 갈 무렵 벤자민은 유타 지역 오케스트라 단원을 뽑기 위한 오디션을 위해 솔트레이크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꿈이 실현되는 일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연습과 기도를 한 후에 그는 1893년 3월에 커다란 기대를 안고 오디션을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로 갔습니다. 지휘자인 딘 씨는 벤자민의 연주를 듣고는 그에게 그의 연주는 덴버 서부 지역에서 자신이 들어 본 연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연주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을에 덴버로 가서 리허설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그렇게만 하면 경비는 물론 집에 보낼 수 있는 얼마간의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이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만 지났을 때 감독이 그를 불러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을 한 2년 정도 연기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벤자민에게 돈벌이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빚진 것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벤자민에게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벤자민은 유타 지역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당하기 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맨 오른쪽)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운데)와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와 인사를 나누는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왼쪽)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또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독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 방법만 있다면 부름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벤자민이 선교사 부름에 대해 말했을 때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그의 부친이 늘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했지만 그러한 기회가 오기 전에 살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교사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벤자민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땅을 팔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하다. 우리 집에는 너를 선교사로 보낼 만큼 충분한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 하나 있다. 아무래도 네가 바이올린을 팔아야겠구나.”

열흘 후인, 1893년 3월 23일에 벤자민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냈다. 하루 종일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했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자 나는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악기를 다시 케이스에 집어 넣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내일 선교사로 떠난다.”

45년 후인, 1938년 6월 23일에 벤자민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생애에서 내린 가장 큰 결정은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sup>2</sup>

과거로부터 배우십시오.

### 둘째,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결코 꿈도 꾸지 못한 세상에서의 이러한 발전, 즉 격변하는 변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sup>3</sup> 두려움은 발전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없이는 진정한 성공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성공에 관한 가장 훌륭한 정의의 하나는 다음과 같

습니다. 성공이란 훌륭한 이상에 대한 점진적인 실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목표를 갖지 않을 때는 인생의 운동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데 시간을 쓰지만 결코 결승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래 전에,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단지 계속 소망하라,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리라”<sup>4</sup>라는 가사가 담긴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소망이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는 힘든 노력이지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행이 이곳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저 평탄한 고속 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에는 기로와 갈림길이 있을 것이며 물론 예상하지 못한 충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 각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 셋째,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시간을 내

일에 대한 걱정으로 보냅니다. 과거의 백일몽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위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대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날이며,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메리디스 윌슨의 더 뮤직 맨(The Music Man)에서 해롤드 힐 교수는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항상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과거가 공허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면 기약할 내일은 없으며, 오늘을 가장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도록 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아내가 죽은 직후에 그녀의 옷장 서랍에서 9년 전에 그들이 미국 동부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구입한 옷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입지 않고 특별한 때를 위해 보관해두었습니다. 물론 그 특별한 때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은 이 일을 친구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특별한 때를 위해 무언가를 보관해 두지 말게. 인생에서 매일매일이 특별한 때일세.”

그 친구는 나중에 그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 크리스털 유리잔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싶으면 그것을 입고 슈퍼마켓에 갑니다. ‘언젠가’ 혹은 ‘어느 날엔가’라는 말을 저는 점점 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시간을 내어 친척과 친한 친구들을 방문합니다. 옛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에 있었던 말다툼에 대한 화해를 청합니다. 저는 가족에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우리 생활에 웃음과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든 미루거나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자신에게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매시, 매분이 특별합니다.”



아더 고든은 이러한 철학에 대한 훌륭한 예를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잡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열세 살, 그리고 동생이 열 살이었을 때, 하루는 아버지께서 서커스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점심 때 전화가 걸려 왔다. 시내에 아버지가 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갈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다셔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했다. ‘서커스는 다음에 또 올 텐데요, 뭐.’”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sup>5</sup>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는 어린 시절 어느 여름 날 유타 주 랜돌프에 있는 집 뒷마당의 커다란 나무 위에 동생 맥스와 함께 오두막을 짓기로 했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창조물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들은 이웃마다 다니면서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 오두막을 짓기에 이상적인 곳으로 생각되는 지점으로 그것들을 날랐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으며 그들은 그 일을 완성할 수 있기를 고대했습니다. 완성된 오두막에 대한 생각은 그들에게 일을 완성시키겠다는 놀라운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름 내내 일을 했으며 드디어 가을이 되어 신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집은 완성되었습니다. 브러프 장로는 드디어 그들이 일한 결과를 즐길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 만족감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나무집에 앉아 잠시 주변을 살펴보고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취한 일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관심을 단 하루도 붙들어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경험한 지속적인 만족과 기쁨은 완성된 작업이 아니라 설계하고, 재료를 수집하고, 집을 짓고 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브러프 장로와 동생 맥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을 즐기고 그 여정에서 기쁨을 찾도록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격언은 우리가 가족과 친구에게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작가 해리엇 비처 스토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에서 흘리는 가장 비통한 눈물은 하지 못한 말과 하지 못한 행동 때문이다.”<sup>6</sup>

어느 시인은 영원히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슬픔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끝도 없이 큰 이 도시에  
길모퉁이를 돌면 나의 옛 친구가 살고 있네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년이 갔네  
그 동안 나는 친구의 얼굴을 못 보았네  
인생은 화살 같고 무서운 경주와 같으니  
내일은 오고 내일은 또 가버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네.



바로 길모퉁이!—그러나 몇 마일이나 떨어져  
는지 ...

“선생님, 전보요,”

“짐 오늘 사망.”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서 얻는 것은 결국 그것뿐  
길모퉁이에 사라진 친구가 있네.<sup>7</sup>

약 1년 전쯤에 저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한 친구를 찾아보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그 친구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봄 비저스와 저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  
갈 무렵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소재한 미  
해군 훈련소의 인사처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결혼

을 하기 전에 한번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한 적  
이 있었으며 제가 1946년에 제대한 이후로 우  
리는 편지로만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제 아내  
프란세스와 저는 매년 봄과 그의 아내인 그레이  
스와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 받았습니다.

드디어 2002년 1월초에 저는 비저스가 살  
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휘터를 방문하여 스테  
이크 대회에 참석할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80세가 된 친구 봄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날  
들을 회상할 수 있도록 아내와 제가 그와 그레이  
스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방문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저는  
55년 전에 해군에 있을 때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근황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서로 전  
했습니다. 봄은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오래 전 우리가 샌디에이고에 주둔했을 때 저와  
함께 성찬식에 참석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봄과 그레이스에게 작별을 고  
할 때, 저는 오랜 세월을 두고 소중하게 여겨  
온 친구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느꼈  
습니다.

언젠가 우리 각자에게는 더 이상 내일이 오  
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미루지  
말시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보물 지도의 세 조각이 이제 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십시  
오. 미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현재에 충실하  
십시오.

말씀을 시작한 곳에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구세주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  
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  
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  
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sup>8</sup>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  
러나오는 개인적인 간증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마태복음 6:19~21.
2. “Benjamin: Son of the Right Hand,” *New Era*, May 1974, 34~37 참조.
3. 교리와 성약 38:30.
4. “Wishing Will Make It So,” lyrics by B. G. DeSylva.
5. *A Touch of Wonder*(1974), 77~78.
6. In Gorton Carruth and Eugene Ehrlich, comp., *The Harper Book of American Quotations*(1988), 173.
7. Charles Hanson Towne, “Around the Corner,” in *Poems That Live Forever*, sel. Hazel Felleman(1965), 128.
8. 마태복음 6:19~21.

# 교회 역원 지지

제임즈 이 파우스트  
대관장단 제2보좌



**형**제 자매 여러분, 힝클리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고든 비트너 힝클리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제임즈 에스드라스 파우스트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웁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 데븐 코니시 장로님이 선교부장으로 부름받게 됨에 따라 그분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님을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회원 및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와 발 알 크리스틴슨 장로를 계속 보좌로 하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스 디 포터 장로를 칠십인 제1정원회의 회원으로, 머빈 비 아놀드, 셸리 디 크리스틴슨, 클레이트 더블류 마스크 이세, 윌리엄 더블류 팜리, 더블류 더글러스 섬웨이 장로를 칠십인 제2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형제님들을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디 프레저 볼릭, 루이스 지 체베리, 로널도 다 코스타, 스탠리지 엘리스, 랜디 디 핑크, 호세 에이 가시아, 로버트 에이치 가프, 홀리오 지 가비올라, 프란시스코 아이 지메네즈, 카를로스 에이 고우도이, 에스 오우라슈 구즈만, 유 첸 호, 비버 티호 칭, 로버트 코치, 지 스티븐 레이니, 배리 리, 미겔 에이 리, 켄 링, 라몬트 더블류 문, 알렉산더 에이 오덤, 아데시나 제이 올루카니, 페르난도 디 오우테이가, 안토니오 알 올라, 아딜슨 디 파올라 패릴라, 루이지 에스 펠로니, 라파엘 이 피노, 켈슨 피찌지라니, 게이로울트 로우트, 에이 킴 스미스, 더블류 블레이크 소니, 로널드 에이 스톤, 수반드리오우, 제프리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교회 역원에 대한 지지를 하는 남성 합창단

시 스윈튼, 도널드 피 테니, 호세 엘 토리스,  
피타 알 바만라브, 페리 엠 웹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만장 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  
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부름 받으신 칠십인 제2정원회의 회  
원들은 단상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웨즐리 엘 존스 형제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 존

경하는 대관장단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감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서는 본부의 다른

부서와 운영 단체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의 관리 책임자가 직접 정기적으로 대관장단에게 보고합니다. 교회 감사부 직원들



은 공인 회계사, 공인 내부 감사관, 공인 정보 처리 감사관, 그리고 자격 있는 그 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관장단의 책임하에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부서와 전세계의 모든 운영 단체들을 감사할 권능을 갖고 있으며, 교회 현금, 지출 및 자원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 인사, 부동산 및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 작업은 전문적인 감사 표준에 따라 집행됩니다. 손해는 감사 선정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2002년의 교회 기금 지출은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승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 평의회는 계시된 대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현금과 지출은 이 평의회에 의해 따라 교회 예산 및 재정부를 통해 관리됩니다. 현금 영수와 예산 지출의 관리 상황은 감사한 후 보고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감사에 근거해 2002년 12월 31일 말 기준으로 하는 한 해의 연간 현금 영수와 지출이 모든 면에서 승인된 예산 지침과 현 교회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밝힙니다.

교회와 독립해서 운영을 하는 교회 관련 업체들의 재정 상태는 2002년에 교회 감사부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업체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를 포함하여 테저렛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 및 그 계열사와 같은 교회 고등 교육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재정 상태는 독립 공인 회계 회사가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감사부는 각 업체의 감사 위원회와 함께 실시한 감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감사부

웨즐리 엘 조운즈

관리 책임자 ■

# 2002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에프 마이클 왓슨 형제  
대관장단 서기

**형** 제 자매 여러분, 대관장단은 2002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성장과 현황에 대한 다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교회 단위 조직의 수

선교부 .....	335
스테이크 .....	2,602
지방부 .....	641
와드 및 지부 .....	26,143

## 교회 회원

교회 회원 총수 .....	11,721,548
증가된 기록상의 자녀 수 .....	81,132
2002년 동안 침례 받은 개종자 .....	283,138

## 선교사

전임 선교사 수 .....	61,638
----------------	--------

## 성전

2002년에 헌납된 성전 수 .....	7
(에리조나 스노우 플레이크, 텍사스 러벅, 멕시코 몬테레이, 브라질 캄피나스, 파라과이 아순시온, 일리노이 나부, 네덜란드 헤이그)	
2002년에 재 헌납된 성전 .....	2
(독일 프라이베르크와, 유타 몬테셀로)	
현재 운영 중인 성전 수 .....	114

##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의 저명 인사들

미니 프리스 버튼, 전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 및 칠십인 정원회 회원인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의 미망인; 멜바 파커 힐, 전 칠십인 정원회 회원 조지 알 힐 3세 장로의 미망인; 보나리 애덤슨 콜드웰, 전 칠십인 정원회 회원 시맥스 콜드웰 장로의 부인; 거트루드 라이버그 가프,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 월터 조슈아 엘드리지 2세, 전 본부 청녀회장; 메이 올라 밀텐백, 전 본부 상호부조회 및 임원회 재무 책임자 ■



#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의 연단하는 영향력에 마음의 문을 연다면, 새롭고 영광에 찬 영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성신의 신성한 은사의 인도를 받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이 훌륭한 은사에 대해 몇 마디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과 에너지의 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열과 빛은 하나님께서 맺가없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을 베푸시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sup>1</sup>

태양의 빛은 우주를 통과하여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 생명을 주는 온기와 빛을 가득 채워줍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 영원히 황량하고 춥고 어두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에 생명과 빛을 주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빛은 우리의 영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합니다. 경전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sup>2</sup> 따라서 온 인류는 그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성한 영향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모든 남녀 노소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이 옳은 것을 택하고, 영원한 진리를 찾으며, 우리가 전세에 있을 때 알고 있었으나 필멸의 상태가 되면서 잊혀진 진리를 다시 배우도록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개체가 아니므로 개체인 성신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력은 우리가 성신을 받기 전에 성신을 받을 준비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정직한 사람을 인도하여 영의 음성을 듣게 함으로써<sup>3</sup> 참된 복음과 참된 교회를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 성신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성신은 영체를 가진 존재이며 개체로서 신회의 구성원이며<sup>4</sup>,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신성 및 회복된 복음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중

인 또는 간증자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하늘과 교통하여 복음의 진리의 빛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성신의 영향력이 복음의 진리를 확인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신과 성신의 은사는 다릅니다. 고넬료는 침례를 받기 전에 복음의 진실함을 확신시켜 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성신을 받았으나 침례를 받기 전에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넬료가 이 복음 의식을 받지 못했다면 복음의 진실을 확신시켜 주는 성신은 그에게서 떠났을 것입니다.”<sup>5</sup>

성신의 은사는 성신을 변함없는 동반자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수에 의한 침례, 뿔기세탁 신권을 부여받은 권능을 가진 종들에 의한 안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의 합당한 회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은사입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성신의 은사를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사라고 하셨습니다.<sup>6</sup> 간증과 영적인 은사는 성신의 은사에서 나옵니다. 이 은사는 마음을 밝혀 주며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며<sup>7</sup>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며 잊어버린 지식을 생각나게 해 줍니다.<sup>8</sup> 성신은 또한 우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보여” 주십니다.<sup>9</sup>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성신이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내적인 평화를 위한 가장 위대한 보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sup>10</sup>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신회의 한 분으로부터 성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sup>11</sup> 이 말씀의 의미, 즉 신회의 한 분으로부터 성역을 받으며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권세를 지닌 분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은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회원 됨을 확인하기 위해 신권 소유자들이 확인 안수를 할 때, “성신을 받으라”는 말

을 듣습니다. 이 말은 성신이 무조건 여러분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전에서 “주님의 영이 늘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sup>12</sup> 확인 인수를 받으면,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나, 이 권리는 오직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과 합당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위협을 경고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도록 권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우리에게 이런 권고를 하였습니다. “살피고 기다리면 조용하고 작은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이 들리면 현명한 남녀는 순종합니다. 성령의 권고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sup>13</sup>

언젠가 저는 커다란 동굴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굴에 있는 동안 안내자는 칠혹 같은 어둠 속의 체험을 위해 잠시 불을 켜줍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불을 켜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성신도 우리 주변의 영적인 어둠을 관통하여 한때 숨겨졌던 영적인 것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sup>14</sup>

저는 주님의 일부 교회 회원들이 성신의 은사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외면하는 생활을 할까 봐 염려됩니다. 회원 중에는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겨 성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영적인 속삭임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란스럽고 분주합니다. 분주하다는 것이 꼭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을 밀어냅니다.

혹자는 죄를 범하고자 하므로 영적으로 사망하여 영을 느낄 수 없으며, 혹자는 영적으로



나태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의 연단하는 영향력에 마음의 문을 연다면, 새롭고 영광에 찬 영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시야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권에 들어 있고 귀중하고 영혼을 키울 수 있으며, 마음을 넓힐 수 있고, 마음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성령의 일들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순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영 대관장에게 시현으로 나타나 성도

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한 성스러운 경험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을 지녀야 한다고 꼭 전하십시오”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주님의 영은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조용하고 작은 음성을 외면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그 음성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줄 것이며, 왕국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확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 두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성령을 받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두십시오.”<sup>15</sup>



형제 자매 여러분, 조용하고 작은 음성을 외면하지겠습니까? 성신을 거스르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우리의 가정에서 몰아내는 영향력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받아들이는 여흥의 유형은 성신의 능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의 여흥 대부분은 성신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폭력, 저속한 언어, 부도덕으로 가득 찬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자문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는 일상 생활에서 성령을 동반하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일상 생활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신이 나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필요한 경우 회개하려는 용기를 갖고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성신의 영향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 가정에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좀더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소음을 줄여 세상의 소음이 조용하고

작은 성신의 음성을 누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성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신을 가정에 불러들일 수 있도록 회복의 찬송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가정의 밤 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의 생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많이나, 두려워 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영의 속삭임을 따르면, 우리는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안전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sup>16</sup>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도들이 성신의 은사와 기타 모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은사는 그들의 영혼에 평화와 기쁨을 속삭이고 그들의 마음에서 원한, 증오, 분쟁 및 모든 악을 걷어 내며 그들의 소망은 오직 선을 행하여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sup>17</sup>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제게 성신의 은사를 알고 이해하게 된 경험을 말했습니다. 그

는 자주 기도하였으며 간절히 복음의 진리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 마음이 편함을 느꼈지만, 자신이 갈망하던 지식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체념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전을 상고하던 중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뭔가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강렬한 사랑과 순수한 기쁨의 감정에 푹 빠졌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큰 기쁨에 빠져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으며, 그 때 느낀 감정의 정도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신이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단지 상상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제가 의아심을 품을수록 더 이상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이제 충분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느낌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의 부친도 어린 소년이었을 때 침례를 받던 날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부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이 안수를 하며 ‘성신을 받으라’고 말씀했을 때, 나는 그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색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순간 행복의 느낌, 즉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런 느낌이었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늘 믿었습니다.<sup>18</sup>

오늘날 물몬경을 공부하거나 선교사와 친구들의 간증을 들을 때 성신의 속삭임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를 통해 물몬경을 번역한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물몬경을 읽고 그 책의 약속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 자녀와 제자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은 그분의 참된 제자들을 신뢰하십니다. 그분은 준비된 사람들을 준비된 종들에게 보내십니다.



**침**례 성약을 맺은 우리 모두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sup>1</sup> 때로는 거부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우리 앞에 다가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회원들은 그런 장애물을 쉽게 치워 버립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을 몇 사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장을 보는 날입니다. 가나, 예과도르, 필리핀의 시골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키운 작물들과 수공품을 읍내에 내다 팝니다. 그들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삶의 애환, 가난 극복에 관한 것이며, 때로는 위험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길거리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일성도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은 세계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있는 대화와 똑같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택의 아드님이신가요?” “자녀가 몇 명이나 되시죠?” 그러나 말일성도에게는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대담에 관심을 보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이야기가 몇 분 이상으로 길어지면, 대화는 양쪽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화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행복을 가져오고 또 무엇이 슬픔을 가져오는지에 관해 그들이 믿는 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생과 다음 생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말일성도는 조용히, 확신하는 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겠지만 때때로 말일성도는 이런 질문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우시죠?” “당신이 알고 있다고 말할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차분히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린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그분을 믿는 신앙이 있고 그분을 사랑했던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베푸신, 물몬경에 묘사되어 있는 사랑스러운 성역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인지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sup>19</sup>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 진리를 더 이상 물리치지 말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마음속에 하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비워 두고,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 신앙을 갖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우리 시대의 예언자, 선견자 및 계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NASA의 전문가들은 매일 태양이 발산하는 총 에너지는 3,383조 킬로와트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그 양은 1,000억톤의 TNT가 매초마다 폭발하여 내는 에너지와 대등하다. NASA 우주 과학실.
  2. 요한복음 1:9; 또한 교리와 성약 84:46, 모로나이서 7:16 참조.
  3. 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4.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7 Vols. 4:555 Parley P. Pratt, *Key to the Science of Theology*, P. 61.
  5. 교리와 성약 121:26 참조.
  6. 교리와 성약 11:13 참조.
  7. 요한복음 14:26 참조.
  8. 니파이서 32:5 참조.
  9. 리아호나, 1996년 1월호, “빛과 진리의 창,” 조셉 비 워스런.
  10. 신권 회복 기념 노변의 모임, 1988년 5월 15일.
  11. 창세기 6:3; 또한 니파이서 26:11; 교리와 성약 1:33; 모세서 8:17 참조.
  12. 창세기 6:3; 니파이서 26:11; 교리와 성약 1:33; 모세서 8:17 참조.
  13. *Live the Good Life*, 59쪽.
  14. 고린도전서 2:14.
  15. Elden J. Watson, comp., *Manuscript History of Brigham Young*, February 23, 1847, 529~530.
  16.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갈라진 불의 혀,” 보이드 케이 패커.
  17. Watson, *Manuscript History of Brigham Young*.
  18. Joseph L. Wirthlin, *Conference Report*, April, 1956, 12.
  19. 모로나이서 10:4.



여러분이 시장이나 거리에서 영적인 내용의 그런 대화를 듣는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느낀 것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 사람들과 내 신앙을 어떻게 더 잘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은 회원 된 우리 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지금 교회 회원들 가운데 선교 사업을 이끌 책임을 지닌 모든 감독과 지부장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수확하게 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와 그분의 교회에 대해 충실하고 또 효과적인 증인이 된 몇몇 사람에 대해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한 겸손한 형제는 작은 지부의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회원들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지부가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대답이 왔습니다. 지부장과 소수의 회원들은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년 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침례의 물가로 들어왔으며 주님의 교회에서 동일한 시민 곧 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거의 매주 여행을 하는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에겐 언제든지, 전세계의 어디에서든 자신이 만난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선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찾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가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러야 하는 수고 비용에는 개의치 않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행복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는 유일한 방법이 없습니다. 공통적인 기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경을 가져다가 무상으로 줍니다. 어떤 사

람은 선교사가 가르칠 사람들을 찾을 날짜를 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 생각하게 하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 각자가 다른 대답을 얻는 듯 보이지만, 그 대답들은 그들과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맞는 대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면에서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들은 영감 받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그들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임을 느낍니다. 그 점 때문에 그들은 쉽게 자주 기도로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은 그분의 개인적인 지시를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부모의 자녀로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그분은 그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둘째로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속죄가 실제적이고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가진 사람에게서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평화로 인해, 그들은 “만민 중에 하나라도 멸망됨은 참아 내지 못할 괴로운 일이고, 사람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이 몹시러를 치게 하는지라, ... 만민에게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였던”<sup>2</sup> 모사아시아의 아들과 같습니다.

쉽게 그리고 자주 회복된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자신에게 의미해 온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그 커다란 축복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은사를 받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은 매일, 매시간의 현실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

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sup>3</sup>

그러한 사랑을 느꼈다 하더라도, 참된 제자는 때때로 걱정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은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세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할 한가지 일이며, 그것을 매 순간 느끼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훨씬 중요한 또 한 가지 일입니다. 구세주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기도하라는 계명 또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을진대 너희는 헛된 것이다. 사랑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좇으라. 모든 것이 실족하되,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를 볼 것일 때, 우리가 저와 같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도록 할지이다.”<sup>4</sup>

주님은 그분의 참된 제자들을 신뢰하십니다. 그분은 준비된 사람들을 준비된 종들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몰몬경 한 권을 갖고 다닙니다. 최근 짧은 여행을 하기 전 날 밤, 그는 몰몬경

한 권을 갖고 가는 대신 “전도용 카드”를 갖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몰몬경을 가지고 가라”는 영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몰몬경 한 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아는 한 여성이 비행기에서 그 친구의 옆 자리에 앉았고, 그는 의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다시 그와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복음 이야기를 꺼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교회에 십일조를 내시지요?” 그렇다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말했습니다. “몰몬경이 대체 무슨 책이요?” 그 친구는 그 책은 경전이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관심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방 속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이 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위한 책 같은요.”

그녀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 책에 관해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 친구는 몰랐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제 친구를 살펴보았으며, 또 어떤 교회가 그 친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지 궁금하게 여겼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몰몬경에 관해 물을 것을 아셨으며 또 그녀가 선교사들로부터 가까이 가르침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당성과 소망은 여러분의 얼굴과 눈에서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와 그분의 사업에 관해 흥분할 것이며 그것은 걸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조금씩 용기를 쌓아 놓았다가 한 순간 누군가에게 훌륭하게 이야기한 뒤 움츠러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행하고 말하는 것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저의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분은 과학자이셨습니다. 그 분은 세계 여러 나라의 청중들에게 강연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이 한 대규모 과학 집회에서 하신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분은 자신의 과학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창조와 창조주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청중 가운데 그 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간증을 하셨군요.” 아버지는 놀라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랬니?”

그 분은 자신이 용감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 분은 단지 자신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말했다 뿐이었습니다. 그 분이 간증을 하셨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조차도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간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분은 어디에 계시더라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담대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이 많으신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바라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구세주를 기억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수고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 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각 회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모든 나라에서 교회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창조 이래 예언자들이 예견한 위대한 시기입니다. 회복된 복음은 모든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 나는 영원한 복음을 지닌 나의 천사를 보내어 하늘을 날아가게 하노니, 저들은 이미 어떤 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였고 또 장차 땅에 살게 될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라. 이 복음은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리라.”<sup>5</sup>

어떤 환란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그분의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낱 인간이 아니시기에, 나라와 사건들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권을 갖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교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제자가 되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일본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 위대한 날이 밝아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할 때, 회원 수가 크게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땅에 교

회에 대한 훌륭한 평판이 많이 늘어나면,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커다란 기적이나 큰 변화는 주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회원들 내부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세상 곳곳에 있는 회원들은 변화된 마음에서 사랑하고, 귀기울여 듣고 말하고 간증할 것입니다. 감독과 지부장은 모범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영혼들의 수확은 클 것이며 또 그것은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sup>6</sup>

그러한 기적의 일부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있음을 느낄 때까지 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정결하게 되었음을 확신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삶에 무엇인가 보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간구하십시오.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경험을 넘어서서 느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조만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

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것이며 또 구세주께서 그분의 충실한 증인들에게 약속하신 깨끗하게 됨과 용서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신 것을 여러분이 다했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받는 자녀임을 알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임을 간증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오셨습니다. 신권의 열쇠가 회복되었으며, 또 마지막으로 위대한 집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88:81, 모사이야서 18:9 참조.
2. 모사이야서 28:3.
3. 요한1서 4:18~19.
4. 모로나이서 7:46~48.
5. 교리와 성약 133:36~37.
6. 교리와 성약 50:41~42 참조.

#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 곁에 더 가까이 가려고 신앙을 행사하고자 온 힘을 다할 때, 우리는 그분의 참존재를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영의 인도로 저의 느낌과 간증을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구세주의 가장 강력한 권고의 말씀과 심오한 약속 가운데 하나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sup>1</sup>라는 단순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는 과정에는 기도와 간구가 포함되지만, 그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국 일주의 휴가 여행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알고 있지만, 목표를 향해 나가면서 매일 많은 경험을 하고 뭔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 기도, 신앙, 소망 및 온 마음의 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빛과 명철을 얻는데 집중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지만 적용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우선 우리는 그분께 소망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sup>2</sup>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 기도를 통해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참마음과 참뜻으로 구할진대, 그분은 성신의 권세로 우리에게 그것이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는 오직 성신의 권세로서만 만물의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sup>3</sup>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열심히 죄신의 은사를 ... 구하며,”<sup>4</sup>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sup>5</sup>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전념을 다하며<sup>6</sup>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을 구하라는 권고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sup>7</sup>

또한 우리는 세상의 부정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주의도 받고 있습니다.<sup>8</sup>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악을 피하십시오. 악은 위험한 질병이며 여러분을 파멸케 하는 독약이므로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sup>9</sup> 아모서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sup>10</sup>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의입니다.<sup>11</sup> 우리는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sup>12</sup>

구세주는 구하고 찾으라는 권고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sup>13</sup>

그분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곁에 더 가까이 가려고 신앙을 행사하고자 온 힘을 다할 때, 우리는 그분의 참존재를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부지런히 찾으면, 비길 데 없는 그분의 사랑, 온전한 삶과 모범, 그리고 위대한 속죄의 희생이 가져다 준 축복에 대해 깊고 변치않는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곁에 가까이 가면, 그분을 찾을 수 있으며,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 인류의 구속주, 아버지의 독생자,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깊이 구하면 구할수록 그분이야말로 구약의 여호와요 신약의 성스러운 메시아라는 것과 구원과 승영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메시지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와서 자신을 따르라고 끊임 없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가르침은 참되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겹세마네와 갈보리에서 있었던 일도 깊이 감사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부당하게 유죄 판결과 형을 받으셨지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자신이 예언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고귀한 은사는 만민에게 불사 불멸을 가져다 주고, 순종하며 충실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가져옵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그분이 미대륙의 고대 백성들을 방문하신 것에 대한 경전의 내용을 더욱 열성을 다해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며 구속주로서 메시야의 사명을 지냈음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인 곧 또 하나의 성약으로 물몬경이 출현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어떤 책을 연구하기보다 물몬경을 탐구하고 그 책에 대해 기도를 할 때, 인간은 그분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sup>14</sup>

그분을 찾고자 할 때,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친히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시어 오래 기다렸던,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열게 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sup>15</sup>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그가 지상에 그분

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다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사는 데 필요한 의식을 베풀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살아 계신 예언자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교회 조직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sup>16</sup>

그분을 부지런히 찾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을 통해 “지혜와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sup>17</sup> 찾게 되며 그분의 계명과 지시대로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이 세상의 빛이요 또한 생명<sup>18</sup>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진실로 그분을 찾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음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마태복음 7:7; 니파이삼서 14:7.
2. 교리와 성약 9:7~8; 모로나이서 10:3 참조.
3. 모로나이서 10:4~5.
4. 교리와 성약 46:8.
5. 교리와 성약 109:7~8.
6. 누가복음 17:33 참조.
7. 신앙개조 13조.
8. 니파이삼서 20:41; 요셉 스미스 영감역 마태복음 6:38 참조.
9.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1997], 709쪽.
10. 아모스 5:14.
11. 마태복음 6:33.
12. 요한복음 17:3.
13. 교리와 성약 88:63.
14. 요셉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발췌 [1976], 194쪽 참조.
15. 에베소서 1:10.
16. 에베소서 2:20.
17. 교리와 성약 89:19.
18. 모사이아서 16:9.

# 의지해서 살아야 할 말씀

제임스 엠 던 장로  
철십인

인생의 참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생과 다음 세상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신랄하고, 비난조이며 냉소적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소음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그 말들을 주의 깊게 듣거나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그 소음 속에서도 이 대화의 말씀들처럼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야 할 귀중한 말들을 듣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1988년 4월 연차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감받은 생각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은 형제입니다.

인생은 임무이며  
직업이 아닙니다.

(“승영으로의 초대”, 리아호나 1988년 7월호, 58쪽)

이것이 의지해서 살아야 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의 영원한 가능성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다가 가야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지상 여행은 그분이 마련하신 신성한 행복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지상의 경험을 얻고, 순종과 속죄의 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됨을 알려 줍니다.

우리는 다양성으로 특정지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문화, 인종, 언어 등이 다릅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인류는 한 가족이며,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지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의, 친절, 관대함, 그리고 용서는 모두 가족 사이에 올바른 행동의 요소들입니다. 완벽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를 심하게 다루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느낄 실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고보서 4:14)입니다. 이 필멸의 생에서 보내는 그 귀중한 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일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훌륭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에 부합하고 계획된 우리의 지상 생활에서 성공하는 데 극히 필수적입니다.

주님이 비록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 졌으니, 적당히 취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취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59:20)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더라도, 아버지의 그러한 기대들은 단순히 생계를 꾸리거나, 이 지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빠져 지낼 방법을 궁리하는 것보다 값진 일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생과 다음 세상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지키고,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교리와 성약 58:27)면 우리는 지상에 사는 목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니파이서서 2: 25 참조)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리와 성약 59:23)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우리 임무는 이 곳에서 갖는 우리 경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멸의 운명을 위해 준비하는 것과는 큰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곳에서의 삶을 주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하



총관리 직원들의 부인들과 함께 컨퍼런스 센터 단상에 앉아 있는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및 칠십인 정원회 회원들, 감리 감독단 및 보조 조직 회장단

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내일이나 결산의 날이 없는 듯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삶을 안락함과 이익, 기쁨의 추구만으로 채웁니다. 그러한 것에 관해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자들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는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좋으리라”(니파이이서 28:7)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또한 많은 자들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은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시리니, 거짓말도 조금 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 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 될 일이 없으니 이웃을 빠뜨릴 함정을 파는 등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는 내일 죽으리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리라.”(니파이이서 28:8)

그런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세계는 선정적

이고 외설적인 유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기를 거절하는 젊은 남자들, 육욕적인 관계를 추구하면서 어리석게 자신의 순결을 내어주는 젊은 여성들, 의도적으로 자녀 갖는 일을 거부하거나, 모험, 여가, 또는 최대의 재정적 수입을 얻으려는 그들의 계획에 “가족”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 자녀”만 낳아서 편하게 기르려는 부모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는 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교리와 성약 84:44)려고 애쓰는 수백만의 충실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따라 계획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언제 진지하고, 언제 즐거워 할지 압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희생의 법에 따라 사는 데서 오는 축복과 의미를 압니다. 이 충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존중합니다. 그들은 작은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사랑하고 돌봅니다. 훌륭한 예의 범절과 높은 도덕성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가정과 이웃과 지역 사회를 모범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며, 이 말씀은 “분명하며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교리와 성약 64:31)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말씀은 대개 단순하며 분명합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를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 줍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안식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다음의 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은 형제입니다.  
인생은 사명이며  
경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회원 선교 사업의 필수적 역할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선교사들을 도와 기꺼이 회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 사회가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 한 순간의 사건이 모든 것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바로 구세주께서 제거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19~20)

같은 메시지를 담은 보다 친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때마다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구세주는 매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 ...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17)

“그분의 양을 먹이라”는 구세주의 열정적인 분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대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오늘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복음을 세상 모든 곳에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한시도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모든 총관리 역원들은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주는 단지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복음을 듣고 그분의 교회 회원이 되는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그 사실을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88:81)

지난 연차 대회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보다 잘 준비하라는 목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합당하고, 자격을 갖추고, 영적으로 열성적인 선교사가 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엠 러셀 벨라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6쪽)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복음 교사로써 새로운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자발적이며 헌신적으로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메시지를 알아야 하며 성령의 인도와 영향력으로 자신의 말로 그것을 힘있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모든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노력은 “빛장을 들어올리는 것”, 곧 “표준을 높이는 것”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들과 감독님들과 스테이크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표준에 따라 기꺼이 살고자 하는 교회의 충실한 청소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그분을 섬기고자 준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임무 수행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려면, 선교의 의무를 실행하는 모든 교회 회원들의 임무 수행에 대한 기대 수준 또한 높아져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이 더욱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찾아 침례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데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돌보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표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더욱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도와 기꺼이 회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상품을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팔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우리의 숫자나 성장으로 감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 양육하고, 그분의 교회로 안전하게 데려오도록 권한을 위임받고 보내심을 받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들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하려는 일은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해 보이지만, 회원 선교 사업은 어렵고 때로 두려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세 가지 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족으로서 기도하고 신앙을 행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께 길을 열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날짜를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변함없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결코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말하며, 여러분이 전할 말을 알려 주는 약속된 영의 권세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초대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그들이 결정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을 아시며, 그들도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는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요한복음 10장 참조)

헝클리 대관장님은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전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와드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할 방안을 주님께 간구할 때, 참으로 훌륭한 날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 봉사” 제1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월)

둘째, 지도자는 모범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영은 우리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합당하다면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돕도록 회원들을 고무시킬 수 있는 용기와 영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충실한 개종자인 조지 맥로클린 형제님은 메인 주 파밍데일에서 회원 20여 명의 조그만 지부를 이끌도록 부름을 받았습다. 그는 우유 배달로 생계를 꾸려 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식과 진지한 기도를 통

해, 그는 자신과 지부 회원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영의 가르침을 받았습니 다. 그는 커다란 신앙과 끊임없는 기도와 강 령한 모범을 통해 회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놀라 운 이야기로, 이 경륜의 시대에 펼쳐진 위대한 선교사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일년 내에, 그 지부에 450명의 개종자 침례가 나왔습니 다. 그 다음해에 추가로 200명의 개종자가 생겨 났습니 다. 맥로클린 지부장님은 이렇게 말했 습니다. “지부장으로서의 제 직무는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어떻게 몰몬이 되는가를 가르치 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에서 말씀과 공과를 어떻게 전하는지 가르쳐야 했습니 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가르쳐야 했습니 다. 저는 새로운 회원 들이 강한 회원들이 되도록 훈련했습니 다.” 매 우 간단합니다.

불과 5년이 지난 후에, 오거스타 메인 스테 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새로 조직된 그 스테 이크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파밍데일 지부의 개 종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시에 어떻게 그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하고 질문 해 본다면, 아마도 교회를 강화해야 하는 절박 한 필요성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절박한 필요성은 오늘날 교 회의 모든 단위 조직에서도 그 때와 마찬가지로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선교 사업이 와드 중심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 다. 스테이크장과 감독은 회원들이 마음이 청 결한 자들을 찾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와드와 스테이크 내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준비 시킬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클리 대관장 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의 모든 감독님들께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회 원들에게 ‘와드 [성장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 하자’ 라는 표어를 주십시오.” (“양을 찾고 먹이 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0쪽)

위싱턴 주의 한 감독님은 기도하는 자세로 그 권고에 따랐습니 다. 이 이야기는 그가 실행

했던 바를 보여 줍니다. 신권 및 보조 조직 지 도자들을 통해, 와드 평의회는 와드 내의 선교 사업을 조정합니다. 선교사들은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자신들의 사업에 대해 의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구도자 방문에 참여하도록 임무 지명을 받습니 다.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활동이 저조한 회원과 일부 만 회원인 가족을 방문합니다. 지난해에 이 와 드는 46명의 새로운 회원들에게 침례를 주고 확인 의식을 했으며, 새로운 회원의 지속적인 활동을 또한 매우 높습니 다. 신권 및 보조 조 직들이 와드 평의회를 통해 감독 지시에 따라 개종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와드에서 교 회에 나오거나 활동화 된 회원들은 많은 친구 를 갖게 됩니다. (“Ward Council Is Secret of Centralia Ward Success,” *Church News*, 1 Feb. 2003, 5 참조)

감독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와드 전체를 참여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회 원들을 많은 개종자와 많은 재활동 회원들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 사업은 와드 평 의회의 의제일 뿐만 아니라 장로 정원회, 상호부 조회, 기타 정원회, 그룹 및 보조 조직 등의 의제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함께 침례 주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해 야 합니다. 따라서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들의 선교 사업은 와드 평의회를 통해 와드 선 교 책임자와 감독에 의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개종자들은 그들의 와드에서 완 전히 활동적인 회원이 될 것입니다.

2003년 4월 *엔사인*(*Ensign*) 지에 동봉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이란 DVD를 사 용하여 복음을 나눌 특별한 기회가 현재 회원 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부활절 기간에 이웃이나 친구들을 초대하여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면 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역, 영광스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또한 선교 사들을 참석하게 하여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셨 는지 가르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셋째, 회원 선교 사업은 전략이나 수단의 개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



곧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과 신뢰를 필요로 하 며, 또한 진실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 라”(마태복음 22:37, 39)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 이웃, 사업 동료,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기타 여러 사람 들과 복음을 나눌 때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인도 하게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와 행복 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런 인간 의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문제들 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 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봉급 인상, 큰 집, 새 차, 오락 기구 등은 지속적인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이해하 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평화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행 복은 구세주를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에서 옵니다. 행복은 복음의 가치 관들에 기초를 둔 강한 가족 및 교회 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떤 회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

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복음을 나누기가 두렵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사랑의 영과 관심으로 복음을 나눌 때 사람들의 기분은 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저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이 지시하는 대로 말한다면 어느 누구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단지 임무를 수행하고 참된 관심과 사랑을 보이지 못할 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참된 교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우리가 일생 동안은 물론 영원토록 소중하게 간직할 만한, 인간의 영혼에 깊고 변함없는 행복을 가져다줄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충만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강력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영에서 영으로, 좋은 이웃이 되어 돌봐 주고 사랑을 보임으로써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활에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축복들을 그들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훈계에 따르도록 합시다. “결국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큰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History of the Church 2: 478*; “증인이 되어”, 제프리 알 홀런드,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7쪽)

우리는 더 나은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전임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우리 개개인이 적극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신앙과 용기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 가족의 중요성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 중심의 가정, 곧 악마의 폭풍으로부터 안전한 항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올해 우리의 굳은 각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훈**란과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가족은 삶의 중심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있는 말씀은 가족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시편 127:3)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sup>1</sup>

대관장단은 최근 모임에서 가족의 쇠퇴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분들이 신권 집행 평의회에 주신 지시는 우리 임무에서 가족에 관해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관장단의 권고에 부응하여 많은 계획과 노력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여 주신 단위의 가족 안에서 보다 큰 조화, 보다 큰 사랑, 그리고 보다 큰 영향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폭풍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피난처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남아 있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영향력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딸 아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제 딸은 세 살 된 어린 아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끔 애쓰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접시에서 좋아하는 음식만 모두 먹었습니다. 녹색 콩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손자애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포크를 들고 필사적으로 아들에게 그 콩을 먹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손자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사이의 좋은 우정을 망치지 않게 해요.”

그것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 광고에서 그



애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터넷 그리고 다른 정보 매체가 우리 가족 단위에 얼마나 큰 광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자신의 가족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때 도움과 지침은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인터넷 사이트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제공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부 지역에서 우리는 텔레비전 상업 방송망과 그들이 제공하는 일부 반가족 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리검 영 대학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복음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모의 교육과 가족 오락을 지향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족과 가족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텔레비전 광고의 질과 빈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텔레비전 방송망보다도 더 넓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다른 도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웹사이트인 [lds.org](http://lds.org)입

니다. 이 사이트는 최근에 가정 및 가족 페이지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전과 교회 지도자들이 주는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가족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 및 가족 페이지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 가족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명확한 가르침.
- 가족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
- 의미있고 즐거운 가정의 밤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가정의 밤 관련 제안.
- 가정의 밤을 보다 성공적으로 갖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강화함, 또한, 가족들이 더욱 친밀감을 느끼기 위한 아이디어와 같은 주제에 대한 특집 기사.

사이트가 새롭게 되면서 가정의 밤 계획을 위한 보충 아이디어들이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리고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위한 활동 제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 회원에게 손길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교회 잡지들입니다. 이 잡지들은 정기적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송되며 또 가족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엔사인(Ensign)*과 국제 잡지인 *리아호나*에서 가정의 밤에 관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메시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전교회에 걸쳐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월요일 밤)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여기서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합니다. 그들은 경전을 공부합니다. 가족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가족 활동 및 그와 유사한 행사를 계획합니다. 전세계의 모든 가족이 그 한 가지 일만 실천해도 세상의 가족들을 단합시키는 일에서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회견, *Boston Globe*, 2000년 8월 14일; “가정의 밤”, *리아호나*, 2003년 3월 호, 3쪽)

가정의 밤을 갖도록 격려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 뒤에는 “내가 알고 있지 못했던 부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엔사인(Ensign)*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의 밤은 참

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일의 예언자들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정규적으로 가정의 밤을 가졌으나, 교회 부름과 다른 책임들 사이에서, 월요일 저녁이 돌아올 때마다 효과적이고 사랑에 찬 가정의 밤을 계획할 만한 시간과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자주 실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함께 나누는 시간 및 음악 시간을 위해 계획되어 있는 이야기, 시각 보조 자료, 그리고 짧지만 효과적인 활동이 과연 어린이들을 효과적으로 사로잡고 있는지를 저는 눈여겨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초등학교 보좌들과 음악 지도자들이 그들의 부름 속에 지니고 있는 잘 준비된 노력을 몰입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큰 사랑을 지니고 아이들과 뒤섞여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어. 자신들의 부름을 통해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어.’

“바로 그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정의 밤은 너의 부름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그것은 네가 지닌 가장 중요한 부름, 즉 어머니라는 부름의 일부이다! 저는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가 회보 편집자나 방문 교사와 같은 내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분명히 가정의 밤 부름도 영화롭게 할 수 있어.’”<sup>2</sup>

가족을 위해 따로 정해져 있는 특별한 저녁을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녀가 우리를 일깨워 준 이 경험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또한 교회 잡지 6월호에 가족을 주제로 하여 기사가 실릴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일년 내내 *리아호나*,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에는 가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자료들이 실릴 것입니다. 가정의 밤을 위한 훌륭한 제언과 매일의 교육 시간을 위한 아이디어가 실릴 것입니다. 기사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공과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생생한 모범을 통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의 중요성이 보여질 것입니

다. 부모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가족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또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잡지에 있는 훌륭한 정신은 따뜻함, 사랑, 복음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치 뉴스* 또한 가족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는 가정에서의 사랑과 존경을 강화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건전한 오락 활동을 계획하는 것에 관한 기사들이 실립니다.

우리는 가족 지향적인 정보 매체로 온 교회를 뒤덮음으로써, 교회 회원들이 보다 강하고 훌륭한 가족을 만드는 데 지원과 격려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족 단위를 만드는 일에서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유용한 아이디어를 골라내어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 자료들이 풍성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그토록 자주 언급되고 있는 가족이라는 주제를 보기만 해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이곳 지상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조직체에 우리의 이목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족이라는 조직의 중요성을 확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떠난 후 곧바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 아담에게 성신이 임하[여] ... 아버지와 아들을 증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 그 날에 아담은 하나님께 복을 돌리며 성신으로 충만하여졌고 세상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였으니, 가로되 주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고 또다시 육체로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니,

“그 아내 이브는 모든 말을 듣기 기뻐하며 ...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던 우리를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했습

니다].”<sup>3</sup>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의 가족은 아직 영원한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가 충실하면, 그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지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가 하늘의 부모가 되기에 합당하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sup>4</sup>

교회는 가족이 함께해야 하는 두 개의 특별한 때를 정했습니다. 첫번째는 안식일의 합당한 준수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정규 모임에 참석하고, 구세주와 예언자들의 생애와 가르침을 공부해야 하는 때입니다. “일요일에 적절한 다른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개인 및 가족 일지 기록, (2) 가족 평의회 갖기, (3) 직계 및 방계 가족을 위해 가족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 (4)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개인 접견, (5) 친척과 선교사에게 편지 쓰기, (6) 계보, (7) 친척 및 아프거나 외로운 사람 방문, (8) 선교 사업, (9) 자녀에게 이야기 읽어 주기, (10) 교회 찬송가 부르기.”<sup>5</sup>

두 번째 시간은 월요일 저녁입니다. 우리는 잘 계획된 정규적인 가정의 밤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다른 어떤 활동도 식구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이 시간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대관장단이 가정의 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1999년 10월 4일자 대관장단 서한은 최근 여러 잡지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수신: 전세계의 교회 회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월요일 밤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정의 밤을 행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이 시간을 가족 유대 강화와 가정에서의 복음 교육을 위해 남겨 두시기를 권고합니다.

“금년 초에 우리는 자녀들이 교회에 가까이 있게 해 주는 복음 원리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

# 신권 안에서 성장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권세와 권능입니다. 그 권능과 위엄은 우리가 이루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컨퍼런스 센터가 만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전세계에 있는 건물들이 신권 소유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권 소유자들이 모인 모임으로서의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모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신권 소유자를 처음 만난 것은 침례 받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이다호 주 오콜리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관개 수로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수로 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꺼운 천으로 된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리 부분이 없고 가슴 부분

이 있는 옷으로서 그것을 입으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주머니에 구멍을 냈습니다. 당시에는 니트나 다른 천으로 만든 수영복이 없었습니다. 저의 부친은 제1와드 집회소에서 보좌들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 분은 의자를 들고 오셨으며 그것을 도랑 한 쪽에 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야, 이리 건너 오너라. 네게 침례를 주마.”

저는 수로로 뛰어들어 수영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갔는데 추워서 떨었습니다. 그 때는 9월이었으며 약간 쌀쌀했습니다. 두꺼운 천으로 된 수영복만 입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분은 구두를 벗거나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평상복 그대로 물로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손을 잡는 법을 보여주신 다음에 제게 침례를 주셨습니다. 제가 물에서 나온 뒤 우리는 수로의 독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으며 아버지와 보좌들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다시 친구들이 있는 반대편 독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권 소유자들과 최초로 가졌던 경험이었습니다.

신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권세와 권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권세와 권능입니다.

치고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모님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과 복음 공부 및 교육, 그리고 건전한 가족 활동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월요일 저녁에는 결혼 [피로연]을 개최하거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피하도록 강조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회원들은 지역 사회 및 학교 지도자들에게 월요일 저녁에 자녀나 부모가 그들의 가정을 떠나야 하는 활동을 계획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교회 건물과 시설물을 닫아야 하고, 와드 또는 스테이크의 [어떠한 활동]도 계획해서는 안 되며, 가정의 밤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피해야 합니다.”<sup>6</sup>

복음 중심의 가정, 곧 악마의 폭풍으로부터 안전한 항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올해 우리의 굳은 각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다음 약속과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

“빛과 진리는 저 악마를 버리느니라.

“저 사악한 자는 와서 불순종과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로 인간의 자녀로부터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sup>7</sup>

올해는 가정에서 복음의 빛과 진리를 누리려는 우리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세상에서 피난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2. Jan Whitley Hansen., “The Calling I Didn’t Know I Had”, *Ensign*, 2003년 3월호, 6쪽.
3. 모세서 5:4~5, 9~12.
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음 원리, 233쪽.
5. “News of the Church,” *Ensign*, 1980년 3월호, 76쪽.
6. 힐클리,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3쪽.
7. 교리와 성약 93:36, 37, 39~40.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는 아론 신권, 즉 소신권을 소유한 분들도 있으며 대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과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제정하실 때 합당하고 영예로운 사람들이 그 신권을 소유하도록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 즉 어느 곳에 있던 온 인류인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에 필요한, 거대한 군대에 어떻게 가담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막강한 그룹입니까!

침례를 받고 몇 년이 지나 일부 교회 의무에 대해 좀더 잘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아론 신권에 성임되었습니다. 제게 침례를 주신 부친은 그 사이에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독님이 제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고 집사직에 성임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론 신권을 부여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졌으며,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과,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인생을 통해 발전하는 가운데 배워야 할 것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론 신권을 받고 나서 저는 약간 다르다는 느낌, 즉 신권을 소유하지 않은 친구들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는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책임, 다시 말해 일요일이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오래된 석탄 난로 주위에 앉아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교회 청소를 하고, 석탄통에 석탄을 채워 넣었으며, 일요일에 모임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신권 소유자가 해야 할 일들, 즉 금식 헌물을 걷거나 감독을 위해 의무를 수행하는 일 등 와드에서 해야 할 현세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독님과 다른 지도자들은 아론 신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권의 직분에서 승진해 감에 따라 집사, 교사, 제사 직분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야 할 일에 대해 흥미있는 이해와 비전이 커 가고 있는 것 같았으며, 비록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소년

에 불과했지만 개인적으로 일종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책임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열한 살이 되었을 때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부친이 대단히 친절한 분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지에서 사람들이 관을 무덤에 내려놓은 뒤 삽으로 흙과 돌을 떠서 관을 덮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부친이 저의 영웅이었다는 생각을 했으며 장차 아버지를 여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분들이 신권을 행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해 무덤 파는 일을 돕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으며, 한 훌륭한 분이 제 어머니 손에 5달러를 억지로 쥐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서 어머니께서 무덤 파는 일을 도운 그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쓸 테가 있을 테니 넣어 두십시오.”

저는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이렇게 함께 모으시고 소신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신 일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의무가 있으며, 겸손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론 신권은 우리에게 봉사와 주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주며 언젠가 우리가 모든 위엄과 영원한 영광을 수반하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준비 시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던 그 시절은 제게 참으로 재미있는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웠으며, 복음에 대해 더 넓은 개념과 느낌들을 갖게 되었으며,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높은 표준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

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지녀야 할 생활의 형태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표준과 이상과 생활 방법을 갖도록 돕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땅히 생활해야 하는 방법대로 생활할 경우, 사람들이 그것을 알 것이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에 감명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담배와 술과 마리화나와 마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표준을 유지하는 일은 여러분이 성전에서 결혼할 자격을 갖게 해 줍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모임은 교회의 제173차 연차 대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73년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한 해에 교회는 100차 연차 대회를 가졌으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아내와 성전 제단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인봉 의식 집행자의 말을 들으면서 의식의 신성함뿐 아니라 제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방법대로 살아야 할 책임과, 아내와 자녀, 그리고 손자녀, 그리고 다시 대를 이어 다른 세대까지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특별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권을 소유하고 결혼 성약을 맺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모범으로 보여야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신권을 소유한 사람으로 모여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책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후에 있게 될,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가 전진할 때 이제까지 우리가 해 온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도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신권을 소유하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 날은 얼



마나 훌륭한 날이 되겠습니까!

오래 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해군에 복무하고 있을 때 저는 진주만에 있는 함대 사령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샌프란시스코 만에 있는 트레저 섬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그곳에서 저는 판 아메리카 여객기라고 불리는 수상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고급 군의관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수주 내에 일어날 타라와 전쟁으로 인해 병원 지원을 준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계급이 낮아 비행기 꼬리 부분에서 침낭 속에 들어가 잠을 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위를 날 때 오른쪽 날개에 붙어 있는 엔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등화 관제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칠곡 같은 어둠 속에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으며, 저는 판 아메리카 비행기 엔진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날고 있는 동안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던 그 날 밤 내내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며,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 제게 주어질 기회와 책임에 합당하게 생활해 왔는지,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마땅히

생활해야 할 방법대로 생활할 책임을 다하여 제게 주어질 부름을 완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을 못 자던 그 날 밤에 저는 자신에 대해, 자신의 태도에 대해 평가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늘 교회 임무를 받기는 했지만 온 마음과 뜻과 생각과 영혼을 다해 그것들을 완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 제가 받은 책임과 축복에 합당한 생활을 했는지, 이러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날 밤을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날 주님이 주신 축복과 제가 관여한 모든 기회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으며, 제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행했으며,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완수하여 언젠가 다른 어떤 일을 하도록 요청받을 때 합당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신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모였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청년 여러분, 마땅히 살아야 할 방법대로 생활하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것에 사로잡

히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권세와 권능입니다. 그 권능과 위엄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며 간증합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 자리에 서서, 침례를 받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생 간증을 전해 왔듯이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전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업을 사랑합니다.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신권 소유자 여러분에게 마땅히 생활해야 할 방법대로 생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위대한 약속과 축복과 여러분에게 기대되는 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

대릴 에이치 간 장로  
칠십인 정원회

아버지와 아들이 선교 사업의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최**근의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어느 귀환 선교사는 선교 사업을 준비함이 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네가 첫번째 농구 경기에 나가서 드리블하는 법과 슛하는 법을 배운다면 기쁠 것이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 예를 “나는 네가 선교사로 나가서 좋은 사람이 되는 법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배운다면 기쁠 것이다.”라고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저에게 매우 큰 깨우침을 주었고, 제 삶을 뒤

돌아보게 했습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 저의 가장 큰 꿈은 농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제게는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몹시도 바라는 그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우리 집 작은 부엌에서 패스와 드리블의 기본 자세를 몇 시간이고 연습하곤 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로 대학 농구 경기 중계를 들었으며 언젠가는 대학에서 농구를 하리라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당시 저는 선교 사업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아무런 부름도 갖고 있지 않았던 아버지는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카우트 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규정에 따라 부름을 수행하였고, 아버지의 부지런함 덕분에 제 친구 몇 명과 저는 이글 스카우트 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스카우트 활동이 선교 사업에 대한 훌륭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타 대학교 농구팀에 들어갔을 때, 제 소년 시절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유타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한 귀환 선교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범으로 인해 저는 농구 팀에

있는 선수들을 포함하여 제가 학교에서 사귀고 있는 친구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제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선교 사업을 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좋은 친구의 친절하고 애정어린 조언으로, 또한 확신하건대 어머니의 기도와 훌륭한 모범의 결과로 제 소망은 바뀌었습니다. 유타 대학교 2학년이 끝난 뒤, 저는 캐나다 웨스턴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 사업을 한 지 삼 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아이다호 출신의 신입 선교사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낸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토론만을 알고 있었던 반면, 제 동반자는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것만큼 열심히 선교 사업을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제 동반자는 그 때까지 늘 이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했으며 곧 유능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선교 사업의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농구 경기를 선교 사업에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구 경기에는 코트 위에서 다른 팀들과 경기하는 시간뿐 아니라 적절한 훈련과 연습의 시간도 포함됩니다. 영혼들을 구하는 가장 훌륭한 일은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2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임 선교 사업의 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롭게 살며 준비하는 시간들을 요구합니다.

2003년 1월 11일에, 세계 신권 지도자 훈련 방송의 일부로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선교 사업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분의 말씀은 복음을 나누는 개인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의 표준을 높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제1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선교 사업에 대한 표준을 높이는 것에는 우

리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청년들의 조기 준비입니다. 청년 청년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수정을 소개하는 서한에서 대관장단은 “청소년들이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은 성전으로 인도해 주고 생애 동안 그들의 가족과 주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준비시켜 줄 기술과 성품을 계발하게 될 것입니다.”(“청소년을 강화함”, 2001년 9월 28일 대관장단 서한)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술과 성품을 계발하라”는 말씀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청소년의 부모와 지도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기술과 성품을 알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오는 개인의 합당성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계명을 어기고 나서, 선교사로 나가기 일년 전에 감독에게 고백하고 합당해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어긴 사람들로 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회개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내게 제물을 바치되,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라. 나 또한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내게 이르는 자를 불과 성령으로 침례할 것이요 …”(니파이 삼서 9:20)

지금은 다시 불을 밝힐 때입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우리는 합당하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세상에 내보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제1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우리는 선교 사업에 관한 대관장단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젊은이들에게서 선교 사업을 할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선교 사업에 관한 지침”,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2002년 12월 11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어떤 절대적인 것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는 선언, 결코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결코 즐겨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제임즈 이 파우스트와 제임즈 피벨, *In the Strength of the Lord: The Life and Teachings of James E. Faust* [1999],

348쪽)

선교 사업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전임 선교사 봉사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명예롭게 면제될 것입니다. 그들은 보람 있는 다른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을 것입니

다(2002년 12월 11일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의 선교 사업에 관한 지침). 우리는 대관장단이 주신 지침에 따를 때, 봉사하기에 합당하고 준비된 전임 선교사의 수가 증가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훌륭한 스포츠 선수들을 존경하며,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따라야 할 훌륭한 모범인 가장 큰 존재이신 우리 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요한복음 14:5)라는 도마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경전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요한복음 14:6)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파이이서에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버지의 계명을 즐겨 지키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느냐?”(니파이이서 31:10)라고 쓰여 있습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구세주의 “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모범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구세주를 따름으로써 올바른 모범을 보여준 소중한 친구들을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청남 여러분이 의로운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고, 벨라드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7쪽)

헝클리 대관장님이 선교 사업에 관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제1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라고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사실이 그렇습니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감리 감독

우리는 삶의 중요한 영적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표준을 달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소중한 여기는 범세계적인 형제애를 느끼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결하고 귀중한 부분들을 배우리라는 기대때문에 특별한 느낌들이 생기는 듯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교회의 청남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연령 대에 있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지난 성탄 절기에, 뉴스 앵커인 윌터 크론카이트 씨가 태버나클 합창단과 템플스퀘어 오케스트라의 크리스마스 연주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19년 동안 CBS 저녁 뉴스의 앵커 직을

맡았습니다. 크론카이트 씨는 “미국에서 가장 신뢰 받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한번은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서”<sup>2</sup> 기억되길 바란다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 앵커로 활약하던 시절, 그는 매일매일의 뉴스를 “사실이 그렇습니다”라는 말로 마칩니다. 오늘 밤, 바로 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스테이크장은 제게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최근에 있었던 일요일 저녁 노년의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표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대답한 후, 최근 모든 수업과 모임에서 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주제가 지겹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그거 좋은데, 예언자의 메시지를 다루고 실행하며 함께 나누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들에 대한 그 젊은이의 느낌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 할 때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 짜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제가 외출할 때마다 “데이비드,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진성으로 들곤 했습니다. 그 말에 제 친구들은 항상 흥미로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또 솔트레이크시티 동쪽 13번 가를 여행할 때면, 아버지께서는 조지 앨버트 스



미스 대관장님 맥을 몇 번씩 가리키시며, 저를 사랑하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그곳에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도 귀찮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분들이 되풀이해서 해 주신 말씀들에 감사드립니다.

“표준을 높인다”는 말은 스포츠 세계에서 더 높은 성적을 달성하는 것을 가리켜 자주 사용됩니다. 킥클리 대관장님이 지난 대회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행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스포츠의 은유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청남, 청녀들이 [벨라드 장로님]이 설명한 도전들을 받아들이고 합당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사절로 봉사하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합당성과 자질의 표준을 높여야만 합니다.”<sup>3</sup>

일년 전,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훌륭한 동계 올림픽 경기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올림픽 경기에 있어, 선수들은 경기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떤 최소한의 조건을 지녀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올림픽의 자격 심사 과정과 유사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영적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표준을 달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은 매일 땀 흘린 훈련 일정에 따라 생활합니다. 그들은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들을 익힙니다. 그런 후에야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특출하거나 신권 성임, 성전 축복, 그리고 선교 사업과 같은 정말로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 역시 매일 정직, 덕, 연구,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경기의 규칙을 알고 이해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엄한 처벌을 받거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성적 향상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은 메달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골프 경기는 선수에게 부과하는 가장 심한 벌칙 중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18개 홀 중 하나라도 부정확한 점수를 기록하면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실수가 선수에게 득이



되었건 해가 되었건 상관없이 자격이 박탈됩니다.

50년이 더 지났지만, 제 귀에는 어떤 심판의 말이 아직도 들리는 듯합니다. 그는 “미안하지만 점수를 잘못 기록했으니 출전 자격을 박탈해야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에게 점수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 결과로, 저는 참가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여러 주 동안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게다가 고의적으로 점수를 잘못 기록한 것도 아닌데. 총점엔 차이가 없었어.” 경기에서 승자가 될 만큼 성적은 좋았지만, 저는 빈 손으로 시상식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규칙은 중요하며 결정적이기까지 합니다. 삶에도 벌칙들이 존재합니다. 규칙을 깨면, 심지어 자격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포함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삶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죄에 관여하거나,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 학대 죄 등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그 행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규칙을 자신을 묶는 사슬이 아니라 안전 철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순종은 힘을 키워 줍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1834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1월보다 더 바쁜 달은 없었지만 내 삶이 활동과 계속되는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나는 이런 규칙을 세웠다. 주님이 명하시면, 행한다.”<sup>4</sup>

어떤 사람들에게 스포츠는 사업입니다. 지고 이김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금전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그들의 업무를 처리하게 합니다. 에이전트와 트레이너, 코치, 매니저들은 선수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소중한 어린 아들에게 운동 선수들이 고용한 에이전트들보다 훨씬 훌륭한 지원 팀을 제공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훌륭한 에이전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 분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훌륭한 조언자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로새서 3:20) 부모님 이외에도, 우리의 영적인 기량을 높이기 위해 제공된 광대한 지지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독님은 개인 트레이너로 봉사하시며, 성스러운 신권 열쇠를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세미나리 교사들, 정월회 고문들, 교사들, 그리고 가정 복음 교사들이 그 지원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경기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구성하신 팀입니다. 여러분이 따르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기량은 꾸준히 향상될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행하십시오. 사실이 그렇습니다.

좋은 선수와 훌륭한 선수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초점”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쳐놓고, 필

수적인 것들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쟁자들은 그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초점은 성공의 중대한 요소입니다.

저는 위대한 골프 선수 아놀드 파머와 그가 처음 쓰던 짧은 캐디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캐디는 파머에게 골프채를 건네 주며 깃발까지의 거리가 약 151미터이고, 왼쪽에는 보이지 않지만 개울이 있으며 오른쪽 땅은 길고 험난한 지형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파머는 친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 짧은이에게 자신이 필요한 정보는 오직 홀까지의 거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무엇이 있는지 걱정하면서 초점을 잃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왼쪽의 물 웅덩이에서 버둥거리며, 또 어떤 사람들은 헤어날 수 없는 오른쪽의 길고 험난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안전과 성공은 신권 승진, 성전 합당성, 선교 사업과 같은 정중앙의 목표들을 향해 전진할 때 발견되는 중요한 기회들에 초점을 유지할 때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저는 주님이 행하라고 명하실 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훌륭한 예언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Walter Cronkite: A Lifetime Reporting the News: Voices from The Smithsonian Associates, Internet, <http://www.smithsonianassociates.org/programs/cronkite/cronkite.html>.
2. Kira Albin, “That’s the Way It Is ... with Walter Cronkite,” Grand Times, Internet, <http://www.grandtimes.com/cronkite.htm>.
3. “신권 형제들에게 리야호나, 2002년 11월 호, 57쪽.
4. *History of the Church*, 2:170.

# 악마의 목구멍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세상을 물리치는 일을 도와 주십시오. 우리는 부는 바람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기 없는 사람이 되고 그저 단순히 “그건 옳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위협에 대해 알려주고 경고하고자 함이며, 또한 저는 여러분에 대한 제 사랑과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에 대해 갖고 있는 커다란 신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훌륭한 나라에 있는 경이로움 가운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것의 하나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우기에 그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의 양은 세계 최대입니다. 매년 수백만 갤런의 물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폭포 가운데서 물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곳을 사람들은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악마의 목구멍으로 흘러내리는 곳 바로 위에 몇 개의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무모한 뱃사공들이 그 바위에 서서 악마의 목구멍을 내려다 보기 위해 승객들을 카누에 태우고 그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폭포 바로 위에 있는 물은 대개 잔잔하고 천천히 흘러내리며 평온합니다. 오직 요란한 물소리만이 멀리 않은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줍니다. 카누는 생각지 않던 갑작스러운 물의 흐름에 휩쓸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악마의 목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카누에서 내려 미끄러운 젖은 바위에 올라서겠다고 할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발을 잘못 딛으면 십사리 물에 휩쓸려 아래로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에도 도전할 만큼 준비되어 자신을 저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흥미를 위한 이러한 탈선의 일부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악마의 목구멍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안전한 유일한 방법은 악마의 목구멍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악마가 있는 쪽으로 단 1센티미터라도 경계선을 넘어 간다면, 여러분은 악마의 수중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악마의 수중에 들어가면 주님의 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생각을 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sup>1</sup>

젊은이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표준을 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지

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면 안 된다고 누가 말했는가?” 한계가 어디인지 여러분 각자가 결정해야 하는 옳고 그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경우 그것을 따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도덕적인 선택의지가 있으며, 성신의 은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무엇이 참되고 거짓된 것인지 분명히 판단하도록 해 줍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 중 어떤 것이 옳으며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 일일이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악뿐 아니라 악의 모양까지도 양심적으로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되며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sup>2</sup>

악마에게서 오는 많은 것들은 매력적이고 유혹적입니다. 그것은 번쩍거리며 우리의 본성 중 관능적인 부분에 호소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리고 또 쉽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은 대개 부드럽고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그 음성이 거절되거나 유쾌하지 않다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매력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들 하는데 뭐,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면 괜찮아, 아무런 해도 없다고 생각되면 괜찮아, 그건 아주 “인기 있는” 이야기. 사탄은 세계 역사상 가장 능숙한 모방자이며 속이는 자요, 교활한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밤에 도적같이 우리 생활에 다가옵니다. 그의 변장술은 너무나 완벽해서 그를 알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세상에는 늘 두 가지 커다란 힘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이 반대하는 두 세력은 선과 악입니다. 이 두 강력한 세력 가운데서 우리는 밀고 당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악한 것은 악마로부터 옵니다.<sup>3</sup> 여러분이 악을 행하면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렇게 해보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젊음이 여러분 중에 악을 행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그런 적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젊음이 여러분이 배워야 할 또 다른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 달성, 그리고 기쁨에는 그것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실패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성취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와 노력, 연구와 봉사가 요구됩니다. 불순종과 준비 부족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교회의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의 하나는 세상과는 다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명령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세상을 물리치는 일을 부디 도와 주실 것을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우리는 그 부는 바람에 맞서야 합니다. 때로는 인기 없는 사람이 되고 그저 단순히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젊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DNA와 지문이 증명하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각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정체성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속박되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감독이나 정교회 회장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님은 청소년 시

절에 무모하게 행동하고 불순종했던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집 차고와 이웃집 차고는 1.5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차고는 매우 오래되고 낡아 있었으며 일부 판자들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차고 위로 올라가 이 차고에서 저 차고로 뛰어다니며 지붕에서 놀았습니다. 아버지가 ‘차고 가까이서 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우리 차고에서 이웃집 차고로 건너 뛰다가 그 지붕을 뚫고 떨어져서 등과 다리를 몹시 다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어리석은 결심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상처 난 곳을 제가 닦을 수 있는 데까지 닦아냈지만 등에 있는 상처에는 손이 닿지 않아 약을 바르거나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아픔을 참으면서 염증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가운데 낫기를 기다렸습니다.”<sup>4</sup>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소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경험을 요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소년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sup>5</sup>

여러분 가운데 일하는 미약, 술, 외설물 그리고 부정한 성관계 등에 탐닉함으로써 재미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유희들은 마치 악마의 목구멍 근처에 있는 바위들 같아서 미끄럽고 위험하며, 그것들은 여러분을 사탄의 영역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려우며, 다만 몇 군데 상처를 남기는 것 이상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남겨줄 것입니다.

젊음이 여러분은 참으로 흥미 있는 시대에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안락하고 편리하게 하는 과학적인 발견과 발명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의학도 계속해서 발전하여 지금은 누릴 수 없는 새로운 치

료법과 약품이 나올 것입니다. 반면, 세상적인 악의 영향도 증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와 유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젊음이 여러분은 세상의 유희와 율가미에 맞서기 위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시대에 보내질 특별한 영들이 따로 남겨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또한 미래에는 사탄의 반대가 더 간교하고 노골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더욱 공공연히 나타날 수도 있는 반면 더 큰 궤변과 간사함으로 치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악을 깨달을 수 있는 더 큰 영성과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더 큰 힘을 지녀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국가가 테러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를 입힙니다. 우리 가운데 전시에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가정과 가족, 건전한 사립과 조직된 교회의 영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데서 오는 생활의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장차 하게 될 사람들에게 이러한 혼란의 구렁이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 드립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악마의 목구멍의 턱 밑까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많은 활동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룹 활동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표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은 한 단위 부대에 소속하게 되는데 그 부대가 갖고 있는 힘의 일부는 부대원의 단결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은 부대원들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언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도덕적인 표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체에든 누군가 한두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최근에 세계 전역에서 군복무를 하



컨퍼런스 센터의 서쪽 광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방문자들의 뒤쪽에 보이는 솔트레이크 성전과 도심지 건물

는 교회 회원들을 위해 군인용 “복음 원리”를 재출판했습니다. 현재는 영어로만 되어 있지만 곧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것입니다. 이 훌륭한 자료에는 군복무 중 교회 활동과 가먼트 착용에 관한 유의 사항과 신권 의식 및 축복, 복음 주제, 그리고 선정된 몇 개의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군에서 복무했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책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었습니다.

체질을 하여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압니다. 그 비유에서 주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을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썩어나갈 때 가라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꾼들은 어떻게 가라지가 생겨났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나가서 가라지를 뽑을 것인지를 주인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금했습니다. 그는 곡식

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 때 밀과 가라지를 따로 묶으라고 권고했습니다.<sup>6</sup>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세주에게 비유의 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यो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यो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sup>7</sup>

이 비유는 제가 반복하고자 하는 엘마의 다음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요, 악한 것은 모두 악마에게서라.”<sup>8</sup>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으며, 지금은 가족과 신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에 확고 부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흔들

려서는 안 됩니다.<sup>9</sup> 우리는 신앙의 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악마의 목구멍에 너무 가까이 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권고와 지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강화되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분이 우리의 예언자, 계시자, 선견자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Preston Nibley 편찬(1948), 43쪽.
2. 니파이서 2:13, 26 참조.
3. 엘마서 5:40 참조.
4. “친구가 친구에게,” *The Friend*, 1995년 2월호, 6쪽.
5. Charles Dudley Warner, *Thesaurus of Quotations*, ed. Edmund Fuller(1941), 115.
6. 마태복음 13:24~30 참조.
7. 마태복음 13:37~40.
8. 엘마서 5:40.
9. 야고보서 1:6.

# 네게 임명한 자리를 지킬지어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가 중도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 구하여, 소중한 어느 한 영혼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룹으로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곳곳의 여러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론 신권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보좌로 봉사하신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께서는 “신권은 통상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간단히 정의됩니다.”라고 선언하시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의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으로 볼 때 저는 신권을 봉사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종종 ‘완전

한 봉사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봉사의 도구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통해 명백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sup>1</sup>

솔트레이크시티에 위치해 있고, 또 제가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파이오니어 스테이크에서, 우리는 교리와 성약 20편, 84편, 107편을 포함하여 경전에 익숙해지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신권 및 교회 행정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107편에 있는 다음 구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sup>2</sup>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는 자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형제가 신권 소유자가 될 때, 그는 주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름을 마치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sup>3</sup>

우리는 또한 이 편들에서 정원회 회장단의 의무와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의 활동 수준은 이 세대가 진리에 대한 믿음과 헌신의 세대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활동

회원이 되어, 교회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하는 다른 관심거리를 찾아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중한 영혼들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련 장로들 가운데,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교회 책임을 이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치유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또 지체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의 회장단들은 감독단과 정원회 고문의 지도 아래 그들에게 다가가서 구출하는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sup>4</sup>

때때로 그 일은 너무 부담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옛적에 보잘 것 없는 군대로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야 했던 기드온의 경험에서 신선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장비와 수에서 월등히 우세했던 상대편의 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약전서 사사기에는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한 이 적군에 관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sup>5</sup>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은 주님으로부터 그 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에는 기드온의 군대가 수적으로 너무 많아 백성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sup>6</sup>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선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습니다”<sup>7</sup>

그런 다음 주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sup>8</sup>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드온에게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이 물을 마시는 방법을 살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물을 활아 먹은 사람들을 한 무리로 따로 세웠으며, 무릎을

끓고 물을 마신 사람들을 다른 무리로 세웠습니다. 주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훔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sup>9</sup>

기드온은 자신의 군대에게 돌아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sup>10</sup>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서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그 때에 그는 사실상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정확하게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sup>11</sup>였습니다.

지도자의 신호에 따라 기드온의 군대는 나팔을 불었으며, 항아리를 깨고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전은 “각기 제자리에 [섰더니]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 결정적인 싸움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sup>12</sup>

가정 복음 교육은 현대판 구출 계획의 일부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 그것을 모든 총관리 직원들에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고취시키며, 권고하고 인도해야 하는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또한 가장 풍성하게 보상 받는 기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 이는 곧 성역이며, 신성한 부름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로서 우리가 맡은 의무는 모든 가정과 마음에 신성한 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sup>13</sup>

멜기세덱 신권의 힘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스테이크장과 감독이 선교부장과 협력하여 전임 선교사들을 활용하는 가운데 저활동 및 일부만 회원인 가족들을 방문할 수도 있습



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정에서 선교 사업의 영을 다시 불붙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훌륭한 구도자를 소개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전세계의 많은 스테이크를 방문했습니다만, 전세계에는 필요에 의해서, 또는 의무감으로 그들의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고, 소매를 걷어 붙이고, 주님의 도움으로 일하러 가서 소중한 형제들을 데려와 멜기세덱 신권을 주고, 또 그들의 아내 및 자녀와 함께 그들이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기 위해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는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들이 있는 스테이크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밀크리크 스테이크를 방문했을 때, 일백 명이 조금 넘는 수련 장로가 전년 한 해 동안 장로로 성임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클레그 스테이크장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해서 그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지만, 그분의 한 보좌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 클레그 스테이크장이 책임을 맡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수련 장로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클레그 스테이크장은 주님의 성전, 그곳에서 강조하는 구원 의식과 성약을 언급했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형제님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소중한 자녀들을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원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긍정적인 대답이 뒤따랐으며, 재활동 과정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성취되었습니다.

1952년, 로즈파크 제3와드에 있는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들의 아버지 또는 남편들이 멜 기세텍 신권 소유자가 아닌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엘 브렌트 고우츠 형제가 감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고우츠 감독은 재활동 회원인 어네스트 스키너 형제를 만나 와드에서 아론 신권의 교사 직분을 지니고 있던 29명의 형제들을 재활동화시켜, 그 형제들과 가족이 성전에 가도록 도와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자

신도 재활동 회원이었던 스키너 형제는 처음에는 꺼려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사 직분을 지닌 재활동 성인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가정에서 신권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가족에 대해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알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곧 몇몇 재활동 형제들을 자신의 임무를 돕도록 참여시켰습니다. 한 명 한 명씩 그들은 다시 완전한 활동 회원이 되었으며, 가족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날 와드 서기가 식료품 가게 계산대에 줄을 서 있다가 우연히 나와서 성전에 가는 목

표를 갖고 있던 일행의 마지막 사람을 만나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된 심정에 관해 언급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곁에 서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와드에서 활동적이 되고 또 성전에 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줄 것인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다면, 성전에서 인봉을 받을 29명 가운데서 마지막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들려 드린 각 이야기에는 그들을 성공으로 인도한 네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1. 재활동 기회는 와드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 감독이 참여하였습니다.
3. 자격을 갖추고 또 영감 받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4. 각 개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sup>14</sup>이라는 베냐민 왕의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그들을 보다 훌륭하고 의로운 생활로 이끌도록 합시다. 활동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신권 소유자들과 그들의 아내 및 자녀들의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시다.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무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찾아 가계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sup>15</sup>*

재활동 사업은 게으른 사람이나 몽상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성장하고, 부모는 늙어가며,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속삭임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그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인내라는 하늘의 미덕이 자주 요구됩니다.

감독이었을 때 저는 어느 날 아내와 자녀들이 어느 정도 활동적이었던 한 형제를 방문하라는 속삭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전에 결코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 날 저는 해롤드 지 갈라처 형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갈라처 형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교회 감독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사나 나누고 가족과 함께 모임에 나오시라고 권하러 들렀습니다.”

“안 갑니다, 저는 너무 바쁩니다.”라는 관심 없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전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고는 문 앞 계단을 내려 왔습니다.

갈라처 형제 가족은 얼마 후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제 비서가 전화로 “전에 장로님의 와드에 살던 갈라처 형제라는 분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사무실에 와 계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에게 웨스트 템플 피프스 사우스의 비싱 플레이스에 가족과 함께 살던 분으로 성함이 해롤드 지 갈라처인지를 여쭙어 보십시오.”

그녀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분이세요.”

저는 비서에게 들여보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가족에 관해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래 전 그 여름 날 의자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장로님을 집으로 들이지도 않은 일을 사과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교회에서 활동적인지 물었습니다. 멧쩍은 미소를 지으며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감독단 제2보좌입니다. 교회로 오라는 장로님의 권유와 저의 부정적인 태도가 저를 몹시 괴롭혀 어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해롤드와 저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주 만났습니다. 갈라처 형제 부부와 그 자녀들은 교회에서 많은 부름을 수행했습니다. 제

일 어린 손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은 현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듣고 있을 많은 선교사들에게 저는 간증의 씨앗이란 흔히 그 즉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제 조건을 전해 드립니다. 때때로 어떤 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묻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래 전에 뉴잉글랜드 선교부에서 봉사하셨던 몬슨 장로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저는 관계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레오나르도 감바렐라라고 소개하고는 몬슨 장로와 보너 장로가 오래 전에 자신의 집에 잠깐 들러 자신과 아내에게 간증을 전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귀 기울여 들었으나 그들의 가르침을 적용하기 위해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그들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하여 약 13년 후에 다시 진리를 찾아 개종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감바렐라 형제는 처음으로 그들을 방문했던 장로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아내에게 남아 있었던 그들의 간증에 깊은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찾아 보고, 그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 즉 그들이 오래 전에 기울인 노력의 결과를 알려 주었을 때, 지금은 결혼하여 가족을 거느린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곧바로 감바렐라 부부를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들은 다자간 전화 통화를 통해 개인적인 축하와 교회에 들어온 것을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에드윈 마크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를 형제로 만드는 운명이 있으니  
아무도 혼자서 떨어져 살 수는 없으리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보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으로 다시 돌아오리라<sup>6</sup>



오늘 저녁 저는, 신권을 지닌 우리 모두가 옛 기드온처럼 우리의 책임을 느껴 모든 사람들을 그의 임명된 자리에 세우고, 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지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을 따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중도에 낙오된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 구하여, 소중한 어느 한 영혼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Conference Report, 1937년 4월, 46쪽.
2. 교리와 성약 107:99.
3. *Stand Ye in Holy Places*(1974), 255쪽.
4. 교리와 성약 18:10, 13.
5. 사사기 7:12.
6. 사사기 7:2.
7. 사사기 7:3.
8. 사사기 7:4.
9. 사사기 7:7.
10. 사사기 7:15.
11. 사사기 7:17, 18.
12. 사사기 7: 18, 21, 또한 사사기 6장과 7장 참조.
13. *Priesthood Home Teaching Handbook*, rev. ed.(1967), ii~iii.
14. 모사이아서 2:17.
15. Naomi W. Randall, “I Am a Child of God,” *Hymns*, no. 301.
16. “A Creed,” in James Dalton, ed., *Masterpieces of Religious Verse*(1948), 464.

# 충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최선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신권과 연관된 성약에 참되고 충실하십시오.



**이** 모임과 비교할 수 있는 모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언어로 말하건, 우리는 모두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신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신권 곧 아론 신권을 받은 소년이면, 대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성인이면 우리는 모두 훌륭하고 숭고한 신회의 정수를 부여 받았 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과 같은 모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애로, 특정한 권능으로 힘을 부여받은 수많은 남성들이 함께 모여 전능자의 이름으로 말하며 행동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그분이 지닌 유일 무이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저는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지, 그것을 진실로 감사하게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 권세와 권능의 무한성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

과 사, 가족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영원한 사업이 지닌 위대하며 초월적인 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성스러운 신권 정원회의 회원으로, 그리고 우리가 물려서서도 아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책임을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사 드립니다.

이 인사말에 맞게 어떤 한 단어가 지닌 여러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충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충실을 자신에 대한 진실함, 우리가 선택한 동반자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 교회와 여러 교회 활동에 대한 절대적인 성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자신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예롭게도 그분의 신성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 세상에는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성한 신권과 전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을 하도록 권하는 지속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저 교활한 아침의 아들인 거짓의 아버지가 약하고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의 길로 어떻게 유혹하고 권유하고 또 모으는지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최근에 한 영화가 올해의 최고 영화상을 받았 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 영화에는 성적 인 내용이 가득 차 있고 불경스런 내용이 전반

에 걸쳐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설물이 우리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설물 제작자들은 우둔한 탐닉자들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 불리는 계시의 서두에서 주님은 “말일에 모의를 꾀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음모로 인하여 계시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교리와 성약 89:4)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가 입을 통해 섭취하는 음식에 관해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우리가 외설물을 탐닉할 때 우리의 정신이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 음성이 미치는 곳에 계시는 모든 성인 남성과 청소년들은 무엇이 품위를 떨어뜨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탐닉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로잡는지를 말해 주는 도로 지도가 여러분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름다움, 평화,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과 우리 주위에 만연한 최면성 질은 음흉한 행위를 극복할 때 나오는 훌륭한 느낌과 대비시켜 보십시오.

이것은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특정 목표물입니다. 사탄이 지금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면, 일생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신성한 목적을 위한 놀라운 힘과 본능이 심어져 왔 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이 왜곡될 때, 건설자가 되기보다는 파괴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닌 힘에 깊이 감사드리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주님의 왕국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합당하게 되고, 최선의 자신에 충실하십시오. 절제의 힘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멀리하십시오.

성인 남성 여러분께 과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릴 저속의 조류로부터 달아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더 나은 자신과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최선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신권과 연관된 성약에 참되고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은 선정적인 것에 빠져서도 안 되고,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도 안 되며,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와서 받은 신성의 손길을 부인하지 않고 타인을 불의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고 최선의 자신에 충실할 수 있기를 제 모든 힘을 다해 간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충실히 하십시오. 저는 훌륭한 결혼 생활과 그렇지 못한 결혼 생활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매주 성전 인봉 취소 요청을 처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혼이 매우 흔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조차 남녀들이 법을 어긴 채 동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률이 매우 낮다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이혼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주님의 집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서약합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그리고 주님과 약속하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습니다. 그들 간의 관계는 영원한 성약으로 인봉됩니다. 모든 결혼 생활이 완벽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모든 결혼이 서로에 대한 충실의 성약이 지켜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반려자의 안락과 안녕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기심이야말로 논쟁, 별거, 이혼, 그리고 상한 마음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더 나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배우자를 선택한 사람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녀와 같은 사람은 없다고 느낀 사람도,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바란 사람도 바로 여러분이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많은 경우, 성전 결혼의 이미지가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육욕적인 욕망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점 찾기가 칭찬의



컨퍼런스 센터 창문 밖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폭포를 바라보고 있는 두 명의 방문자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결점을 찾으려 한다면, 결국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점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자라나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핑클리 자매와 저는 곧 결혼 66주년을 맞게 됩니다. 핑클리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동안 저를 내조하며 인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핑클리 자매에 대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녀가 편안해 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위해 최상의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훌륭한 동반자요, 멋진 아내이자, 놀라운 어머니요 할머니이고, 증조모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기록적인 장수를 누리고 있

는 남자가 기자로부터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혼했을 당시, 만약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면, 한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자는 결정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기자 양반, 내가 장수를 누린 비결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신선한 공기를 너무 많이 마셨다는 사실 이요.”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동반자에게 충실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충실함으로 축복받는 결혼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찾으십시오. 동반자가 흥미를 갖고 성장하며, 재능을 발전시키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며,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교회에 대한 충실함에 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무관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나에게 이런 저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에 대해 지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따라 살며, 그러한 삶에 따르는 축복을 누리도록 길을 알려 주며 권유할 뿐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 지시하는 대신, 회원들을 선언한 사람들에게 권고하며, 설득하며, 독려하며, 충실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학생이었을 당시 저는 아버지께, 총관리 직원들은 특정한 사안을 주장하실 때 그 분들이 지닌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우 현명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 분은 “교회의 대관장은 우리를 가르치시며, 나는 그 분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고 있으며, 그 분의 권고에 따르기로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45년간 이 교회의 본부 평의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십이사도 보조로,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대관장단 보좌로, 그리고 지금은 8년간 대관장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간증은, 그 동안 교회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논의된 수천 번의 모임에 참석했지만, 그 어떤 모임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거나, 참석자의 편에서 어느 누구라도 해를 입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행위나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요한계시록 3:15~16)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가 현 직책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주님의 이 교회에 속한 회원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그 어떠한 정책이

나 프로그램, 또는 교리를 절대로 찬성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그분이 세우셨고 교리를 밝혀 주셨으며, 실행 방법도 알려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사업의 통치 체계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업이며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필경 나를 거역하는 자”(니파이이서 10: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33년, 미국에서는 주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폐기하려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투표에 붙여졌을 때, 유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영국 런던에서 선교 사업 중이었고, 신문의 머리기사에서 “유타가 금주법을 죽이다”라는 문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대관장이셨던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회원들에게 금주법을 무효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유타에 살고 있던 많은 교회 회원들이 그 분의 권고를 무시했을 때 그 분은 무척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금주법에 대해 좋고 나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타협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충성심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교회가 취한 주요한 결정에 직면하여 그와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많은 말일성도들의 놀라운 신앙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충실한 성도들 가운데는 훌륭한 업적과 성취, 많은 교육, 영향력, 그리고 대단히 높은 지력과 능력을 지닌 남녀들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음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가 참된지 아닌지라는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커다란 힘과 충성, 그리고 커다란 신앙과 충실함을 지닌 형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

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남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은 우리의 구속주라는 지식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세주는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가롯 유다는 은 삼십을 받고 자신의 충실함을 판 위대한 변절자로 역사속에 묻혔습니다.(마태복음 26:15 참조)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면 불경스럽고 모독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히브리서 6:6 참조)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학교 운동장과 거리에서 보여지는 불경스런 언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십시오. 결코 그것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과 세상의 구속주의 이름을 성스럽게 간직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충실함을 보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언제, 어떠한 처지에서든 여러분의 진실한 생활을 통해 자신의 충실함과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누가 주의 편이나  
지금 보일 때라  
두렵 없이 묻노니  
누가 주의 편이나  
(Hymns, No. 260.)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언제든지 진실하고 충실하며, 성실하고 절대적인 충실함을 지닌 성인 남성과 청소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 드립니다. 아멘. ■

# 길 잃고 헤매는 소중한 양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의롭고 부지런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지녔으나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는 선한 목자가 그 자녀들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친구 여러분, 오늘 아침 저의 메시지는 사랑과 헌신이 깃든 의로움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자녀들이 거역하거나 악과 파멸의 길을 따라간 연고로 상심한 부모들에게 주는 희망과 위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고뇌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저는 “라마에서 ...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상기하

게 됩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은 고마운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 울음 소리 ... 를 멈추어라 네 일에 샅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sup>1</sup>

이 교회에서 부모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 교리와 성약 68편에 있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가르침에 담겨 있다는 간증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sup>2</sup>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치”<sup>3</sup>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로서 저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저는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이 권고에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입니까? 그들은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sup>4</sup>을 모범과 훈계로써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사

랑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노력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 점은 일부 자녀들이 불순종하거나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맞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영과 개성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옵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마도 어떠한 부모나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다루기 힘들 것인데 ... 마찬가지로 어떠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sup>5</sup> 성공적인 부모는 그들의 가족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희생을 하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 온 사람들입니다.

자녀에 대해 부모가 지닌 사랑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관계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능가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연속적이고 비통과 실망을 넘어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순종하고 책임감 있는 자녀는 끊임없는 자부심과 만족을 부모에게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충실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가 가르쳐 온 자녀들이 거역을 하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거역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슬픔은 거의 위로가 불가능합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친형제 가운데 한 명을 죽이고 또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이끌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관해 듣자마자 다윗 왕은 울며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sup>6</sup>

부모의 이런 사랑은 또한 탕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역한 아들이 방탕한 생활로 유산을 허비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화를 내는, 순종한 다른 아들에게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sup>7</sup>라고 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의 위로에 찬



다음 말씀을 믿고 또 받아들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충실한 부모들의 영원한 인봉과 진리의 대업에서 행하는 용감한 봉사에 대해 그들에게 주신 신성한 약속으로 인해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보다 더 위안을 주는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양들의 일부가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으나 목자의 눈은 그들 위에 머물며, 그들은 조만간 자신에게 뻗쳐 우리로 다시 모으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든지 다음 세상에서든지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에 보응하는 빛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겪을 것이며 어쩌면 가시밭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들을 마침내 돌아온 탕자처럼 사랑하고 용서

할 아버지의 품과 집으로 이끌기만 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심성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으로 그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계속 희망을 가지고 계속 신뢰하십시오.”<sup>8</sup>

이 말씀에 있는 원리로서 종종 간과되는 것 한 가지는 자녀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자신의 죄로 고통을 겪으며” 또 “공의에 그들의 부채를 지불” 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sup>9</sup> 만일 빛나간 자녀들이 이생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인봉의 끈이 그들이 회개를 이를 만큼 강하게 남는 일이 여전히 가능하겠습니까? 교리와 성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죽은 자의 영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의식에 따름으로써 구속받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범법에 대한 형벌을 받고 깨끗해진 후에 그들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가 됨이니라.”<sup>10</sup>

우리는 탕자가 자신의 유산을 허비하여 탕진했을 때,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으로서 환영을 받았지만, 그의 유산은 다 없어졌습니다.<sup>11</sup> 자비가 공의를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것이며, 충실한 부모의 인봉의 권세는 오직 회개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조건으로 하여 빛나간 자녀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회개한 빛나간 자녀들은 구원과 그에 부수되는 모든 축복들을 누릴 것이지만, 승영은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얻어야 합니다. 누가 승영에 이를 것인가에 관한 질문은 자비로우신 주님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거역과 악한 행동이 너무도 커서 “회개할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지은”<sup>12</sup>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심판 또한 주님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나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sup>13</sup>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부모의 인봉의 끈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인내력을 갖는지 우리는 아마도 이생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작용하는 보다 유용한 근원이 아마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sup>14</sup> 사랑하는 조상들의 영향력이 장막의 저편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가족의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회개는 영혼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일 뿐이며, 부모의 끊이지 않는 보살핌은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용서가 가장 분명한 형태로 지상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그 사명을 통해 세우고자 했던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sup>15</sup>

우리는 부모로부터 부모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제 부친에 대한 저의 사랑은 그 분이 친절하고, 인내하며, 이해하실 때 더



대회 모임 중 회중 찬송을 부르기 위해 서 있는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가운데) 회원들과 그 외의 총관리 역원들(상단 오른쪽)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 대관장단

2003년 5월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2보좌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엘톤 펄터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처 옥스



조셉 비 워스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스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 철심인 회장단



웬시 탕기



데이비드 크리스토퍼슨



데이비드 이 그릴스



데니스 비 노인슈인더



찰스 디디에이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마크 에이 배이트먼

철십인 제이 정원회



안형 안태이



카텍코스 에이저 아미도



남 흥 앤드슨



월리엄 알 브래드포드



몬테 제이 브러프



셴던 애브 차윈드



헝 휘트니 콜러이븐



제리 제이 코윙먼



스콧서 제이 콘더



진 알 록



켄 틴 엘 록



월리엄 오울 알 포스타



로버트 제이 엘린바호



존 비 디슨



크리스토클 펠트 아세



월터 애프 로우래스



존 예이저 그로버그



브루스 시 워맨



도널드 엘 홀스트롬



에프 엘빈 허만드



허클트 지 알렘



에프 버틀 하워드



제리 이 쟈슨



말린 케이 쉘슨



케니스 존슨



더블록 톨프 카



요시웅파 기우찌



코리 엘 코포드



존 엠 매드슨



리처드 제이 에이미즈



린 에이 미헬슨



글렌 엘 페이스



브루스 디 포터



김 비 포켓



로버트 에이 레스만드



린 지 로빈슨



세실 오 시무렘은 아세



스티븐 이 스노우



프랜시스조 제이 비나스



켄스 비 위크먼



더블록 크래이그 조우크



리처드 시 에일리 제1보좌



에이저 데이비드 배든 감리 감독



카스 비 맥밀런 제2보좌

철십인 제이 정원회



마빈 비 아놀드



이 레이 바이트먼



더글러스 엘 폴리스터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제리 디 크리스티슨



폴 알 크리스티슨



다윈 비 크리스티슨



크리스 크로켓



에이미 다이애나



제임스 엠 단



대릴 에이저 간



듀엔 비 제러드



디 랭스 지렛



에이저 로드리지 갈레스피



로버트 티 헬렌슨



크리스 케이 헬버그



제이 켄트 홀리



스텐스 브리 존스



제랄드 앤 린드



로버트 더블록 마스코 아세



대릴 이 맥러



메릴 시 옥스



로버트 시 옥스



로버트 에프 오톤



스티븐 비 오브슨



윌리엄 더블록 필리



웨인 애스 피터슨



에이저 로라이어먼 라차즈



네드 비 루에시



알 콘래드 홀츠



더블록 더블록스 생웨이



데니스 이 시먼즈



도널드 엘 스티벨러



로버트 알 스투어



데이비드 알 스톤



에이저 브루스 스튜키



다리 도블러



윌리엄 알 윙거



고든 티 외조



스티븐 에이 웨스턴



로버트 제이 웨트



리처드 에이저 로컬



로버트 예스 우드



에이저 로스 위드먼



상호부조회 건물 근처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솔트레이크 성전의 전면 전경

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가족의 차를 망가뜨렸을 때, 그 분은 온화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그대로 밝히지 않거나 계속 규칙을 어길 때 특히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굴 때는 강한 훈계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반세기가 지났으나 저는 아직도 그 분에게 가서 현명하고 사랑에 찬 권고를 구할 수 있었던 때가 몹시도 그리웁니다. 종종 그 분의 권고를 의심했던 때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저에 대한 그 분의 사랑은 결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 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사랑에 찬 확고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가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도 자녀 훈육의 일부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 정직한 일의 미덕입니다. 수고 없는 지식은 무익합니다. 수고가 있는 지식은 하나의 지혜입니다.”<sup>16</sup>

도처에서 사탄의 짓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를 키우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 봉사와 활동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잠시나마 잘못 행동하고 또 길에서 벗어난다면, 일부 자녀들이 그 본을 받아서 그릇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이제 이 일에는 언급해야 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설사 부모가 해야 하는 것 만큼 잘하지 못 했더라도 자녀에게 도움을 주려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에게 비판적인 자녀들도 다음과 같이 말한 모로나이의 현명한 권고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하여 나를 비난하지 말며 나의 부친이나 그 전에 기록하신 이를 각각 저들의 부족함으로 비난하지 말라. 다만 너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어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가



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sup>17</sup>

1823년, 모로나이가 젊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방문했을 때, 엘리야의 사명에 관한 다음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sup>18</sup> 저는 모든 자녀가 결국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알고 있었던 어느 훌륭한 부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거역하여 가족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년에 그는 부모와 화해를 했으며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보살피고 돌보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 장막 저편에 계신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꿈 속에서 우리를 찾을 때 그것은 정말로 감미로운 경험입니다.

일부 자녀들이 거역하고 부모의 가르침과 사랑을 저버리고 멀어졌다고 해서 성실하고 충실한 부모를 비판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친절한 일입니다. 위안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자녀와 손자녀를 둔 부부들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불손증하는 자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합당하고 의로운 부모들에게 이해심을 보여야 합니다. 저의 한

친구는 “만약에 자녀들과 어떤 문제도 없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의 장모님은 다른 자녀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을 보시면, “난 내 자녀들이 그런 일을 안 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때 아이들이 밖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부모가 불손증하고 빛나간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동정심을 갖고 “먼저 돌려 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sup>19</sup>

익명의 한 교회 회원은 남동생으로 인해 부모가 계속적으로 느낀 마음의 고통에 관해 적어 보냈습니다. 그는 마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고 훈계하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부정직하고 반항적이었습니다. 탕자와는 달리 이 방황하는 아들은 자발적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그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의 부모는 빌의 치료 프로그램을 뒷받침했으며 결국 그는 마약에서 벗어났습니다. 후에 빌의 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빌이 그 자신과 가족에게 저지른 일들을 나무라시고 혐오하셨지만, 빌에 대한 사랑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빌이 힘든 시절을 참아 내고 보다 튼튼한 토대 위에 서는 데 필요한 어떤 일이든 뒷받침할 정도로 가족에 대한 결심이 단단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떨어져 나간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더욱 섬세하게, 더욱 광범위하게 실천하셨습니다.”<sup>20</sup>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방법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존경한다면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의롭고, 부지런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지녔으나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는 선한 목자가 그 자녀들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슬픔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일에 샅을 받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위안으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sup>21</sup>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고 간구 드립니다. 아멘. ■

주

1. 예레미야 31:15~16.
2. 교리와 성약 68:25.
3. 교리와 성약 68:28.
4. 교리와 성약 68:28.
5.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96쪽.
6. 사무엘하 18:33.
7. 누가복음 15:32.
8. 올슨 에프 휘트니, *Conference Report*, 1929년 4월, 110쪽.
9. 열마서 34:32.
10. 교리와 성약 138:58~59.
11. 누가복음 15:11~32 참조.
12. Alonzo A. Hinckley, *Conference Report*, 1919년 10월, 161쪽.
13. 교리와 성약 64:10.
14. 존 케이 카머 장로, “우리 자녀들이 실족할 때”, *리아호나*, 1999년 3월호, 29~30쪽 참조.
15.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년), 32쪽.
16.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1997년), 704쪽.
17. 물몬서 9:31.
18. 요셉 스미스서 2:39.
19. 해럴드 비 리, *Decisions for Successful Living*(1973년), 58쪽.
20. “With Love—from the Prodigal’s Sister”, *Ensign*, 1991년 6월호, 19쪽.
21. 예레미야 31:16.

# 영육의 생명을 염려하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참으로 개종한 제자들은 비록 불안정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떤 날, 어떤 시기, 어떤 악과 멸망의 상황에서도 “영육의 생명”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 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 곧 혼란과 변화가 소용돌이치는 세상 의 사건들 속에 인간의 진정하고 지속적인 고투가 있습니다.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세상의 염려 속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 영육의 생명을 염려하라.”(교리와 성약 101:37)는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일에 열렬하게 관여하고 있더라도, 이 내적인 투쟁은 평온한 시기든 소란한 시기든 언제나 계속됩니다.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에 관계없이 대대로 이것은 인간이 지상 생활에서 행해야 하는 불변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고린도후서 4:16)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진이 나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영혼을 지키”게 됩니다.(잠언 19:16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염려하고” “지키는” 일은 탕자의 경우에서처럼 평온한 때에도 일어납니다. 그는 “매일” 돼지를 치다가 어느 특별한 날 “자신을 돌이키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누가복음 15:17) “먼 나라”(누가복음 15:13)에서 그 특별한 날 어떤 일이 일어났든, 탕자는 “[그의] 행위를 생각하고”(시편 119:59)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누가복음 15:17~18) 반성에 이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영원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향하는 돼지치기 탕자를 알아보는 통행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에서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상호 작용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를 둘러싼 외관상 지역적인 소요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헤롯과 “원수”(누가복음 23:12)였으므로 그와 헤롯 사이의 새로운 화합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의심할 여지없이 정치적인 뉴스였습니다. 서로 상극이었지만 그는 예수 대신 바라바를 사면하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군중의 뜻에 따랐습니다. 손은 씻었지만 더러운 손으로 빌라도는 분명 가이사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고통스럽지만 수심,



수백 억의 사람들을 부활하게 해 주고 해방시켜 줄 범우주적인 속죄를 위해 겻세마네와 같 보리로 갔습니다.

오늘날 이 곳 저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마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선물인 부활이 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위대한 부활의 영화로운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깊은 바닷속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속죄의 경우에도 중요성에 있어서 전세계적이고 영원한 것들이 작은 동산과 외딴 언덕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종종 조용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 스미스 일세의 가족이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뉴잉글랜드에서 뉴욕 주 북부로 갔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있는 한”(니파이이서 25:22)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구모라 언덕에 묻혀 있는 성스러운 판을 향해 인도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쟁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조용히 “영육의 생명”을 돌보는 일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 내지만, 외적인 동요는 내적인 결의가 너무나 쉽게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적대감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약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고, 남편과 아내가 별거를 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간음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에는 다음과 같은 각주가 있습니다. “전시를 제외하고는 간음하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14 참조)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전쟁이 발발해 있던 당시에 군에 있는 회원들에게 전쟁의 “추악함” 속에서도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키라”고 권고하셨습니다.(Conference Report, April 1969년 4월, 153쪽)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더라도, 그러한 혼란

이 도덕질과 거짓 증거로 즉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거기에도 역시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출애굽기 20:15, 16 참조), 사업상 동반자를 대적하거나 주주를 대적하는 일을 정당화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도덕적 불확실성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우리를 빛나게 하는 세상의 소요가 우리의 죄를 덮거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군대의 승리가 개인적인 자제심의 싸움에 대한 승리로 대체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격노한 인간의 증오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분의 완전하고 구속적인 사랑을 약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어둠의 안개가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엘리사와 함께 산에 있던 젊은이처럼 됩시다. 처음에 주변에 있는 적의 병거에 위협을 느낀 젊은이의 눈은 기적적으로 열린 후,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으며,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열왕기하 6:16, 17)고 한 말을 확인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적대자들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부족하고 혼란한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이 어떤 일을 선택할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에 관한 사실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에 관한 세속적이고 단편적인 그 날의 뉴스와 속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 앞에 공존하는 “영원한 지금”에 살아 계십니다.(교리와 성약 130:7 참조) 그분의 신성한 계획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분은 마음에 품으신 것을 확실히 행하기 때문입니다.(아브라함서 3:17 참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십니다.(아브라함서 2:8 참조) 하나님은 “그분의 사업”을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우리가 종종 선택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인간의 가장 훌륭한 계획이 잘못될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이루십니다.(니파이서 27:20 참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십니다.

“...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임이니 ...”(교리와 성약 78:18)

“...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리니 ...”(교리와 성약 49:27)

형제 자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번민할 때에 그분의 살아계신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인도를 포함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실!”(교리와 성약 3:8) 것입니다.

반면 “영육의 생명”에서 선택의 순간들은 친절과 분노, 자비와 불법, 관용과 인색함 사이의 개인의 일상적인 결정에서 자기 부정이나 방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쟁은 두 번째 계명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그 계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표시를 달지 않으며 특정한 피부색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배고픔을 느낄 수 있지만,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엘리사를 대접했던 미망인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열왕기상 17:8~16) 진정으로 궁핍하고 빈곤한 가운데 나누는 그와 같은 일은 늘 감동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훌륭한 감독이었던 엠 서얼 마쉬는 대공황기 동안 어린 나이에 광산에서 일 자리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키가 컸던 그는 계속 줄라서 결국 취직을 했으나, 다른 몇몇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후한 마음을 갖고 있던 어린 서얼은 힘들게 번 돈을 여러 번이나 이 친구들이 취직을 할 때까지 나누어 썼습니다. 그가 훗날 매우 훌륭한 목자가 된 것은 당연합니다.

“영육의 생명”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볼 때, 완전한 개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앗이 먼저 예수님이 정의하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즉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누가복음 8:15) 일이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 “기쁨”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열매를

맺고” “견디”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을 마침내 배웁니다.(마태복음 13:20, 23; 요셉 스미스 역 13:21; 마태복음 5:6 참조) 그것은 “큰 변화”입니다.(모사이야서 5:2 참조) 개종은 근본적으로 “육으로 난 인간”이 “그리스도의 사람”(모사이야서 3:19; 힐라맨서 3:29; 또한 고린도후서 5:17 참조)이 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수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고 계속하여 선행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모사이야서 5:2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확실하게 개종한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군계”(누가복음 22:32 참조)하고, “...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베드로전서 3:15)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격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은 인류에게 중요하면서도 조용한 또 다른 봉사를 행합니다. 그들은 온 인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집단의 일부가 됩니다.

참으로 개종한 제자들은 비록 불완전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떤 날, 어떤 시기, 어떤 악과 멸망의 상황에서도 “영육의 생명”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아버지 사업”을 계속하게 할 것입니다.(누가복음 2:49; 또한 모세서 1:39 참조)

이러한 완전한 개종은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므로, 힘든 사건들과 소요는 실제로 우리가 여행을 재개하거나 가속하게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불안하고 초조한 염려 가운데서 우리는 가르침 받은 대로 “영육의 생명”을 염려합니다. 예수님의 영화로운 속죄 덕분에 불법의 영육의 생명은 그 어떤 별의 수명보다도 길고, 따라서 그 생명은 힘들지만 짧은 이 지상생활보다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거룩한 장소, 성스러운 곳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칠십인 회장단

우리의 영성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고 인식하며 경외하는 능력으로 규정됩니다.



구 세주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한복음 18:33, 36)고 답하셨습니다. 이 몇 마디 말 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과 이 세상을 독립적인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구세주의 가르침과 교리, 그리고 개인적인 모범은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교리와 성약 4:5; 88:68 참조) 눈과 마음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표준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는 거룩하고 성

러운 것을 추구하고 인식하며 경외하는 능력으로 규정됩니다.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오직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과 남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잡한 이 속세에도, 영적인 피난처, 거둬냄, 희망, 그리고 화평을 주는 장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영을 찾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세 번이나 “거룩한 곳에 서[라]”(교리와 성약 45:32, 87:8, 101:22)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이 권고하신 내용은 세상의 현재 상황을 보면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질병, 박해, 그리고 전쟁이 모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일상적인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라, 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나의 영원한 복음에 따라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예배하는 자는 모두 함께 모여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1:22)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드리는데 항상 필수적이었습니다. 말일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거룩한 장소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 가정, 성찬식, 그리고 성전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것들과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으로서 경외하

도록 가르치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이 장소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과 경건은 이러한 장소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일어났었고 또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존중심이 그곳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훌륭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한 장소들과 성스러운 곳은 또한 그것들이 요구하는 희생에 의해 구별됩니다. 엠 리셀 벨라드 장로님은 “희생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성스럽게 되는 것’ 또는 ‘신성하게[성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희생의 법,” 리야호나, 2002년 3월호, 13쪽)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스러운”과 “희생”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사람은 성스러운 것을 위해 먼저 무엇인가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희생이 없는 성스러움은 없습니다. 성스러운 것들은 희생으로 성결하게 됩니다.

뉴욕 주 북쪽에 있는 스미스 농가 근처의 숲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의 말일성도들에게 그 장소는 우리가 그 곳에 부여한 신앙과 경의, 그리고 그 곳이 의미하는 희생의 깊이 때문에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몇 달 전 어느 아름다운 늦가을 날에 저와 아내는 그 숲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곳은 정말 아름다웠고, 우리는 그곳에서 한적하게 평화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곳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곳 근처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방문과 그 일 때문에 요셉 스미스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삶에서 치른 개인적인 희생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경의가 이 아름다운 장소를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와 수립에 관련된 세계 곳곳의 장소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심원하고 경



긴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장소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고무되고, 우리가 직면하게 될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에 충실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성스러운 것으로 가득 찬 거룩한 장소입니다. 항상 조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이러한 가정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희생이 요구됩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네 가족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교리와 성약 93:48)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각기 가족 안에서 많은 중

류의 활동과 오락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건전하거나 좋은 것은 아니며, 더욱이 그 중 많은 활동은 분명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언자의 가족처럼 우리 가족들도 회개하고 우리의 가정에 성스러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떤 것들은 버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것은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하는 희생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성찬식은 참으로 모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갖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매주 갖는 이 성찬식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자비로운 희생의 행동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숙고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그분을 기억하고 기쁘게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결심합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이 의식에는, 애용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드리는 우리 자신의 희생과 주의 깊은 개인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

니다. 좀더 거룩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단 몇 분 동안이라도 기꺼이 세상적인 것을 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쉽게 압도당하고 맙니다. 오래 전 아직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저는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가 참석한 성찬식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제가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우리가 과연 같은 모임에 참석했었나 하고 의아해하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저와 그들이 경험한 것의 차이는 바로 성숙도와 개인적인 준비에 있었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거듭남은 우리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소망과 준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거룩함”이라고 새겨진 성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성전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증거로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의 축복은 큰 희생과 얽혀 있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곳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을 통해 우리는 구세주의 속죄의 희생에서 오는 축복들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성전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희생 또한 요구됩니다. 우리는 조상들을 찾고 성전에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희생합니다. 또한 가장 거룩한 이 장소의 성스러운 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가장 높은 표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거룩한 장소와 성스러운 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피난처, 거듭남, 희망, 그리고 화평을 찾습니다. 이것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개인적인 희생을 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영적인 화평을 주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에 섭시다.

저의 주님이시자 평강과 희망의 왕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내가 말했었니 ...?

수잔 더블류 태너  
본부 청녀회 회장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하게 될 가장 중대하고 보람 있는 일은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사랑 안에서 강한 가족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거의 삼 년 전에, 제 딸들 중 하나가 결혼을 하고는 곧바로 먼 도시에 있는 의대에 다니기 위해 남편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애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꾸려 나가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안전한 동지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저 애가 알아야 할 것을 다 가르쳤는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저 애는 알고 있을까? 저 애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딸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애의 열 일곱 번째 생일에 제가 선물한 작은 일기책을 기억했습니다. 그 일기책의 제목은 “내가 말했었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저는 딸과 밤 늦게까지 대화할 때 자주 들려주었던 조언들을 기록했습니다. 딸애와 사위가 새로운 삶을 향해 함께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작은 일기책에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행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딸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항목을 덧붙였습니다. 그 변화란 바로 자신의 가족과 가정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하고 가르치기 위해, 그 세 가지 항목을 제 딸과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딸에게 말하듯 말하겠습니다.] 먼저, 애야, 어떻게 가정을 평화의 안식처이자 힘의 요새로 만들 수 있는지 내가 말했었니? 너는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 질서의 집”(교리와 성약 109:8)을 짓기 위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가 목격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이 방식에 따를 때,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이 세상에서 커다란 평화가 우리 가정 안에 머물 수 있을거야.

애야, 네 조부모님의 가정의 모범을 보렴. 양쪽 조부모님 모두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교리와 성약 93:40) 길렀다. 네 아빠의 가정은 학문의 집이었다. 네 아빠는 교회에서 배운 복음 원리 중에 집에서 배우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말했다. 교회는 그의 가정을 보조하는 조직이었지. 우리 집은 질서의 집이었다.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침과 저녁을 함께 먹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지. 식사 시간은 먹는 것 이상의 시간이었어. 그것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에도 양분을 주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지.

작은 일들,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 “미안

해”라고 말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함께 책을 읽는 것 등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 뒷마당의 담을 만들면서 울고 웃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니?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 노래 불렀던 일을 기억하니? 가족 중 한 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중대한 시험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금식했던 일을 기억하니? 가족 선언문에서는 “성공적인 ...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그리고 건전한 ...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반복해 말하고 있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너는 어린 시절에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 습관을 익혔지. 그런 습관들뿐 아니라 요리와 예산 짜기, 정리하기에 관해 배운 기술들도 잘 이용하거라. 너는 의로운 소망과 집안을 꾸미는 능력으로 집을 평화의 안식처이자 힘의 요새로 만들 수 있을거야.

다음으로, 애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시편 127:3)이라는 것을 내가 말했었니? 가족 선언문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다.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자녀를 갖는 축복을 주시길 바란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놓쳐 버리고, 자녀를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지치고, 감정을 소모하며, 정신적으로 큰 노력을 요하는 것은 사실이야. 아무도 너가 어머니로서 한 일에 대해 상이나 훈장을 주지 않지. 이따금 너는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한 일인가? 이것은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모든 말일성도 예언자들이 어머니의 성스러운 역할에 대해 증언해 왔지.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전해 주마.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일성도 여성들인 여러분[이] 주님께서 모성과 어머니의 존재를 성스럽고 가장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Ensign, November,



1978, 105쪽) 영이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내게 증거해 준단다.

너도 내가 그렇듯이, 부모 역할이 어렵기만한 것이 아니라 삶의 커다란 기쁨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기쁨은 가정의 밤에서 다섯 살짜리 아이가 정확하게 자세히 경전 이야기를 할 때나 자녀가 매일 밤 몰몬경을 충실하게 읽을 때 온단다. 나는 치어리더인 딸이 또래 친구들에게 자기들이 배우는 동작이 부적절하다고 말할 때,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딸이 편지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전해 올 때 기쁨을 느낀단다. 시각 장애 여인에게 책을 읽어 주는 딸을 볼 때,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아들을 볼 때 기쁨을 느낀단다. 이러한 때에 나는 사랑 받은 제자 요한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요한3서 1:4)라고 말할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단다.

얘야, 내가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엄마

가 되는 일을 사랑한다고 말했었니?

마지막으로, 얘야, 굳건한 가정을 이룩하는데 기초가 되는 미덕이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말했었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따라야 할 방식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인내를 보이시고 선택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헝클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어려운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후하게 주어지는 사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칭찬은 빨리 하고 꾸중은 더디 하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Bring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Ensign*, 1993년 11월호, 60쪽) 때때로 “가르친다”는 뜻의 훈육이 비난과 혼동되고 있습니다. 어린 이뿐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도 비난 받을 때보다 사랑과 격려를 받을 때 품행이 더 향상될

니다.

제 남동생이 침대에 머리를 히피 스타일로 길게 길렀을 때, 부모님은 머리 스타일보다 그의 열심히 일하는 습관과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친절한 성격에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이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옳은 일을 하게 하는 이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긍정적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내어 줌으로써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입니다. 오래 전에, 저는 “자녀의 일을 나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능 할 때 밤에 15분”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놀아 주기” 등, “일정표”에 쓰이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Mary Eberstadt, *Wall Street Journal*, 1995년 5월 2일자) 자

# 불확실과 시험의 시기에 지켜 주는 신앙의 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신을 통한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를 믿는 신앙은 나날이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너들에게 양질의 시간뿐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내주겠다고 결심한 어머니들과 대조해 보십시오. 그런 어머니들은 애정어린 관계에는 끊임 없이 대화하고, 놀아 주며, 함께 웃고, 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저 역시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일상과 평범한 경험들을 함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엄마는 자녀의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자녀는 엄마가 공과를 준비한다는 것을 압니다. 엄마는 자녀의 스포츠 경기에 참석한다고 약속하고, 또 저녁 준비를 도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서로의 삶에 주요한 참여자들입니다.

사랑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견뎌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 [그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린도전서 13:4, 7, 8)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이 된 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한 여인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는 마침내 “스스로 돌이켜”(누가복음 15:17), 좋은 직업을 가졌으며, 그 기술로 어머니의 집을 고쳐 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비뚤게 나가는 자녀들로 인해 힘들어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다시 우리로” 이끌어 줄 “충실한 부모들의 영원한 인봉”(Orson F. Whitney, Conference Report, April 1929, 110쪽)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는 과도기에 있는 제 딸과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하게 될 가장 중대하고 보람있는 일은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사랑 안에서 강한 가족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 단위는 사회에 축복이 되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불** 확실과 시험의 시기에 확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을 안정시켜 주는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상 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성장과 성취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련과 난관의 시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모든 결정을 부모가 대신 내려준다면, 과연 어떤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행복의 계획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도전들, 심지어 어려움들을 포함하

여 이 필멸의 시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힘과 능력에서 성장하는 동안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불확실과 시험의 시기에 지켜주는 신앙의 힘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평안과 기쁨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신앙을 행사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갖고 계시는 사랑을 믿는 신앙, 그분의 행복의 계획과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발성을 믿는 신앙보다도 더 확고한 토대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신앙은 잘 이해되지 않으며, 따라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종교에 관한 어떤 토론이든, 그리고 사람이 강한 신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인도는 이성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환상이나 마법이 아니라, 영원한 원리에 뿌리를 둔 권세입니다. 신앙을 행사하고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의 예는 제 말씀의 의미



를 잘 보여줍니다.

오래 전에 저는 여러 다른 물질의 원자적 특성을 측정하는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를 지닌 분자들이 원자로의 중앙 구멍으로부터 흘러나오도록 핵 실험용 원자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분자들은 측정이 수행되는 실험 용기 속으로 보내졌습니다. 높은 에너지를 지닌 분자들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통제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한 청소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역겹다는 태도로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중요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체하는 거짓말쟁이들로, 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볼 수 없고 듣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거나 만질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다섯 가지 감

각에 의해 식별될 수는 없지만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핵 분자의 존재가 어떻게 검출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마음을 기꺼이 열었다면, 그 존재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실재함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제정하신 원리들을 따를 때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들 가운데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의 어려운 정도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발성을 신뢰한다.
-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또 그에 따라 생활한다.

- 영의 조용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
- 그 속삭임에 따라 용기있게 행동한다.
-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고통을 주실 때 인내한다. 그리고 응답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온다는 것을 이해한다.

신앙을 복돋워 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필요 사항에 그분이 기꺼이 응답하시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번영하게”<sup>2</sup>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결같고 자발적인 신앙의 행사는 신앙의 권세를 활용하는 여러분의 자신감과 능력을 키워 줍니다.

여러분은 모로나이가 가르친 이런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신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라야 증거를 얻겠음이라.”<sup>3</sup> 이에 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할 때마다, 다시 말해 합당하게 행동하여 영향을 받을 때마다, 영으로부터 확인하는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은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해 줍니다. 그런 일을 반복함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참된 의도를 가지고 구할 때, 그분은 신앙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크게 해 줄 일을 행하도록 여러분에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지속적인 신앙의 행사는 여러분의 생활에 생동적이고, 강력하고, 고무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이해의 경계를 넘어갈 때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인도를 받아 다른 방법으로는 발견하지 못할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간증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가장 강한 신앙을 행사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소망에 따라 즉시 응답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보다는 그분의 계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육신 상태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그리고 전

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그분의 전체 계획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충동을 받더라도 그 계획에 반대되는 것을 그분께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지한 신앙은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해심과 능력을 줍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능가한다고 믿는다면 평안과 확신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버튼을 눌러서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sup>4</sup> 브리감 영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증명하는 혹독한 시련을 주시지 않고는 뛰어난 축복을 그들에게나 개인에게 결코 내려 주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sup>5</sup>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결정을 통해, 확인해 주는 응답에 앞서 지극히 어렵고, 피로운 노력이 따른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따르는 그러한 경험들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결코 시험하시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연마하기 위해 신앙을 활용하십니다. 성품은 여러분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강한 성품은 인생의 시련과 시험 속에서 지속적인 올바른 선택으로부터 형성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형성됩니다. 분명히 현재의 여러분과 미래의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하는 바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은 주님께 의해 영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격려할 순 있지만, 규정 지어줄 순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은 믿고 있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또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을 때, 그 믿고 있는 바가 참되

다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성품을 약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인도가 주어집니다. 그 인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입니다.

신앙은 긴급할 때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성품을 길러줄 것입니다. 그런 성품은 커다란 난관이나 유혹의 순간에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기는 그런 성품이 활용되는 때입니다. 성품은 원리, 교리, 그리고 순종이라는 실로서 꾸준히 짜여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sup>6</sup> 성품의 기초는 고결성입니다. 합당한 성품은 영의 지시에 따르는 여러분의 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의로운 성품은 여러분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배운 것, 또는 여러분이 성취한 목표들 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뢰 받도록 해 줍니다. 의로운 성품은 영적 힘의 토대가 됩니다. 그것은 시련과 시험의 시간 동안에, 심지어는 내리는 결정들이 과중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어렵고 지극히 중요한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도록 해 줍니다. 사탄이나 그 어떤 다른 권세도 여러분의 성품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점을 간중 드립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불순종을 통해 그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행사가 성품을 만들어 줍니다. 강화된 성품은 신앙을 행사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넓혀줄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여러분의 자신감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화시키는 이러한 순환 작용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성품이 강화되면 될수록, 더 큰 신앙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값을 치른 만큼 얻는다”라는 격언은 영적인 보상에도 적용됩니다. 순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여러분이 배운 진리의 적용에서 여러분은 값을 치른 만큼 얻습니다.



여러분이 얻는 것은 능력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분 성품의 형성 그리고 지상에서의 여러분의 목적, 곧 시험을 통한 성장이라는 목적의 성공적인 달성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상시켜 주는 신앙의 힘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 계획은 삶에 의미를 주며, 또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그분의 계획은 지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과 신앙에 의한 올바른 결정들에서 오는 성장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재난 또는 불확실성에 관해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성품은 결코 그런 것들을 겪지 않아도 될 가능성을 크게 해 줄 것입니다. 도전과 시험이 다가올 때, 신앙은 여러분을 해결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마음의 화평, 피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여러

# 전쟁과 평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저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정부나 정당에 충성하든 그에 상관 없이, 환란의 시기에 서로 사이 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분의 확신,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한하고, 지속적이며, 항상 존재하는 평안과 위안의 근원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어떤 종류의 시련과 혼란과 환란의 바람이 여러분 주위에 불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실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은 그분을 믿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분명한 열의를 믿는 신앙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신을 통해 그분의 인도를 믿는 신앙이 나날이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임을 간증 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본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불확실과 시험의 시기에서 신앙의 힘을 적절히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간증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혼란을 겪고 있고, 또 복잡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진리와 신앙의 권세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충만하게 회복되어 있는 그분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혼란한 이 시기에 그들의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는지를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기 위해 주님의 권세에 대해 간증하십시오. 그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일요일 서재에 앉아 이번 연차 대회에서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던 중에, 미 해병대 소속 제임스 더블류 카울리 하사가 이라크 전선에서 전사했다는 전화 통고를 받았습니다. 41세인 카울리 장로는 20년 전에 일본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교회에서 성장했으며, 학생으로 뛰놀기도 하고, 집사로서 성찬도 전달하고, 선교사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일본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귀환 후, 해병대에서 복무하다 결혼한 뒤, 경찰이 되었다가, 주저함 없이 현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선교 사업과 군복무와 죽음은 복음의 평화와 전쟁의 폭력 간의 모순을 나타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과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약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연단에 섰을 때는, 테러와의 전쟁이 막 시작된 때였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그 테러와의 전쟁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제는 이 전쟁이 끝이 났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안 성신의 인도를 구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비롯하여, 국제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현 상황을 놓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연일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범세계적인 교회로서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대부분의 나라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감정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합니다.

전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기는 변하고 있습니다. 살상 능력과 파괴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러나 분쟁은 어느 시대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두고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과 충성심을 놓고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간략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 기사는 되새겨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

## 주

1. 요한계시록 3:19 참조.
2. 힐라맨서 12:1; 또한 잠언 3:5~6 참조.
3. 이터서 12:6, 사체 강조.
4. 요한계시록 3:19.
5.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1954년), 338쪽.
6. 야고보서 1:3~4.

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요한계시록 12:7~9)

이사야도 그 큰 전쟁에 관해 말했습니다.(이사야 14:12~20 참조) 모세서(4:1~4 참조)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계시들도(교리와 성약 76:25~29 참조) 인간의 선택 의지를 말살하려는 사탄의 계획에 관해 새로운 빛을 던져 줍니다.

간혹 우리는 오토만 제국, 로마와 비잔틴 제국, 대영 제국 등과 같은, 과거의 위대했던 제국들을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국은 하나같이 암울한 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정복과 종속과 억압으로 얼룩진 냉혹하고 비극적인 어둠과 생명과 재산의 천문학적 희생이 이들 제국의 영광 뒤에 숨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수필가 토마스 칼라일은 언젠가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피조물인 인간이 이 지상에서 하는 일을 보시고 웃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Sartor Resartus* [1836년에서 인용, 82쪽]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수 세기 동안 서로 무자비하게 파멸시키는 일에 자신들의 신성한 생득권을 탕진하는 것을 보시고 틀림없이 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이 백성을 억압하고 세계를 위협했던 일이 비일 비재하였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의 사태를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그 결과 대규모의 가공할만한 연합군들이 정밀하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앞세워 전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교회 회원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언론 매체를 통해 어린 아이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전선으로 떠나는 군인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받은 한 감동적인 편지에서, 그 글을 쓰신 한 어머니는 중동전에 두 번째로 참전하는 해병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첫 참전 때, “아들은 휴가차 집에 와서 저와 산책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 아들은 팔로 저를 감싸안고 참전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전선에 가야 엄마와 가족이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예배도 볼 수 있어요. ... 설사 제 생명을 잃는다 해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는 이제 다시 그곳에 있으며, 최근에 가족에게 이런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위해 이곳에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땅이 뒤흔들리고 어두운 밤 하늘에 무서운 미사일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아이들을 끌어 안고 하늘을 바라보며 필사적인 간구에 매달리는 무고한 시민인, 다른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에서 사상자들이 생겨났고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대중들의 반전 시위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연합군의

전략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회교도들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의 의무를 지닌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으로서 해당 국가 지도자들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정치적, 군사적 정보를 접합니다.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해당 정부 아래서 주권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군에 입대했을 때, 그들은 현재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는 계약을 맺었으며, 그에 따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리를 표방하는 신앙개조의 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신앙개조 12조)

그러나 현대의 계시에는 우리가 “싸움을 버리고 평화를 선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

다.(교리와 성약 98:16)

민주주의에서 싸움을 버리고 평화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없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보다 더 우선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일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파이 군대는 보다 훌륭한 동기로 고무 되었으니, 곧 이들은 … 권력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요, 다만 저들의 가정과 자유와 처자와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저들의 교회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었더라.

“저들이 이렇게 행함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드러야 할 의무라고 느낀 때문이었으니,”(앨마서 43:45, 46)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는 피를 흘려서라도 너희의 가족을 보호하라.”(앨마서 43:47)

모로니이는 “그의 옷을 찢어 그 조각 위에—우리의 하나님과 종교와 자유와 평화와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라 쓰고 장대 끝에 매단 다음,

“투구와 가슴판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방패를 갖추고서, 옷을 찢어 매단 장대를 들고(그가 이를 자유의 깃발이라 하였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유의 축복이 그의 모든 동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였더라.”(앨마서 46:12~13)

이런 저런 기록을 보면, 실제로 가족을 위해, 자유를 위해, 독재와 위협과 억압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실에서 국가가 정당화되는 시대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평화의 백성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조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태복음 10:34)

이로써 우리는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평



화를 가르치며, 평화를 위해 수고하지만, 또한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며 정부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백성이며, 자유가 위협에 처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자유를 수호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남녀 군인들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할 때 그들에게 정부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악과 억압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의 길을 막거나 저지하려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이 편이나 저 편으로 갈린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들에 관해 악한 말이나 행위를 하는 파당에 속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결코 증오나 악의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정부

나 정당에 충성하든 그에 상관 없이, 환난의 시기에 서로 사이 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제각기 자신의 정부에 의해 무기를 들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보호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위험의 길에 들어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며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귀향하여 삶을 이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전쟁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모래 바람이 부는 열사의 땅에 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의의 힘은 여러분이 믿는 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려는 태도에 의해 평가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격전을 치루는 동안 이미 전사자들이 생겼으며 앞으로도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시다. 애통해 하는 사람들은 오직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위로로 위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1~3, 27)

우리는 힘이 강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께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위로 하늘에서 다스리며 세상의 여러 군대 가운데서 통치하나니”(교리와 성약 60:4)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날에 사람들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노래하고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 연합 합창단

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이사야 2:4)

비록 우리가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중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의인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의인들을 위해 이 도시들이 용서 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창세기 18:20~32 참조)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해와 소망을 키우고 세상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삶이 사망의 장막 너머로 계속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을 승

영으로 이끄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전쟁의 무기가 죽음의 전주곡을 연주하고 암흑과 증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도, 누구에게나 미치는 위대한 사랑을 품으신, 흔들림이 없으시고, 위안과 용기를 주시는 세상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조용히 서 계십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8~39)

이 생은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의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이 생은 갈등과 부조화로 가득합니다.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

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계속 살게 될 것을 분명한 지식으로, 또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주는 위안의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둡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위안과 화평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인생의 황혼기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단지 그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분들이 현재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두면서 연로한 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래 전 한 성탄절 전야에, 제 사촌 한 명이 다섯 살 난 아들을 급성 폐렴으로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족 기도를 하기 위해 관 주위에 모였습니다. 어린 소년의 발 위에는 소년의 어머니가 만든 작은 담요가 접혀져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관을 닫으려 할 때, 제 어머니가 앞으로 나아가시더니 슬픔에 잠긴 아이 어머니를 팔로 감싸고는 그녀가 담요를 펴 그 어린 소년을 덮는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 그 아들은 마치 가장 좋아하는 담요를 덮고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숙연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바로 할머니들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내의 부친인 윌리엄 더블류 스미스 형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브리감시티

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세미나리 반 학생이었던 한 젊은이가 깊은 상념에 잠겨 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장인을 아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느 여름 저는 그분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스미스 형제님은 제게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관해 말하셨습니다. 제 가족은 선교 사업을 뒷바라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스미스 형제님은 그것에 관해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시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내가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겠네.’라고 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아내도 장모님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그런 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열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많았던 시절 어느 정신 없는 일요일 아침, 아내는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일요일에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의자 한 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열두 자녀를 키워 냈고 회색 빛의 우아한 머리 결을 지닌 할머니이신 위커 자매님은 몇 줄 뒤쪽에 앉아 계시다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 애들 가운데로 살며시 오셨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제 아내는 그분의 도움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위커 자매님은 “손이 모자랄 정도로 할 일이 많죠?”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후 위커 자매님은 제 아내의 손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서 “지금은 할 일이

가득하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가득 찰 거예요!” 그분의 조용한 한 마디는 참으로 앞을 내다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선교부를 관리했습니다. 선교사들 중의 하나가 결혼을 해서 다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태울 보다 큰 차를 가지러 멀리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나중에 고가 교차로 아래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는 도난당했습니다.

저는 그의 스테이크장에게 연락하여 그 가족을 도와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었고, 그 맥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은 조부모, 즉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 관해, 그리고 자녀가 있진 않지만 조부모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다른 연로하신 회원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욥 12:12)

한번은 스테이크 모임에 참석했는데, 평소보다 많은 수의 연로한 회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은 미망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라고 스테이크장에게 말했습니다.

스테이크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교회에서 활동적이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분들이 지도자나 교사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분들이 마치 부담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않아요?”라고 그의 말을 반복하고 나서 “그분들은 복음 안에서 활동적이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스테이크장은 처음에는 그 차이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사람들이 행

하는 일 자체에 너무 중점을 두어서 그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즉 경험, 지혜, 영감을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원임을 간과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출생률은 떨어지고, 평균 수명은 늘고 있습니다. 가족은 보다 작아지고 의도적으로 제한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몇 년 후면 자녀들의 수보다 조부모의 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인구의 노령화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최근에, 대관장단은 여성으로 성장해 가는 청년들에게 상호부조회의 어머니들, 할머니들과 함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대관장단 서한, 2003년 3월 19일자 참조)

일부 청년들은 연로한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또래의 친구들과 같이 있으려 합니다.

청녀 여러분, 나이 든 자매님들과의 사귀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 분들은 여러분이 그토록 즐기는 많은 활동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귀중한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줄 것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청년들에게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상호부조회에 계신 연로하신 여성들에게 가까이 가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청남들이 신권 정원회에서 갖는 것과 유사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회복의 목적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기울이는 모든 노력과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불완전할 것입니다. 신권 열쇠가 회복되고 인본의 권능이 계시되었으며, 또 세대를 묶어 주기 위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고대로부터 있어 온 모든 계시들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말라기 4:6)는 영원한 황금 진리가 이어

져 왔습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이 청소년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는 문제들이, 만약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조부모, 나이 든 사람들 곁에 머무른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감독님들이 너무 많은 상담으로 힘겹다면, 결혼한 젊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할머니처럼 행동할 수 있는 나이 드신 자매님들, 할머니들이 와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형제들을 위해서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꾸준함과 경험에서 오는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현명하고 경험이 많은 연장자 곧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권고와 도움을 구하십시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93쪽)

우리는 젊은이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러, 여러 세대를 함께 모으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이 든 회원들의 활동이 교회에서 저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복음 안에서 활동적입니까?”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부모와 조부모들의 기도 속에 담긴 커다란 지지력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의인 즉 의로운 남자나 [여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야고보서 5:16)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반항아였던 엘마 이세는 “보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주의 종, 엘마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곧 이는 너의 부친이라, 저가 네게 진리를 알게 하려 두터운 신앙으로 간구한지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네게 알릴 뜻으로 이곳에 왔음에, 주님의 종의 간구가 저의 신앙에 따라 성취되리로다.”(모사이사서 27:14)라는 천사의 말에 쓰러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 조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부담이나 문제라고 생각했던 몇몇 경험들을 오래 전부터는 축복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장인께서는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에게는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했습니다. 간호사가 침대에만 계셔야 했던 할아버지를 돌보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배운 것은 그들과 저희들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을 우리 가까이에 모실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

으로 수천 번에 걸쳐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녀들에게 훌륭한 경험이었으며, 저 역시 소년 시절, 저의 할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배웠습니다.

단지 그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분들이 현재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두면서 연로한 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조직하셔서 항상 연로한 사람들이 교회의 선임 지도자들이 되게 하신 이유를 궁금히 여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선임제는 젊음이나 신체적 활력보다도 지혜와 경험을 중시합니다.

현재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들의 평균 연령은 77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민첩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일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약 1년 전에 조셉 워스린 장로님은 십이사도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음, 도전을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96세의 데이비드 헤이트 장로님과 경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헤이트 장로님이 그분의 지팡이로 저를 방해하면 제가 경주에서 질 수도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가 함께 만날 때, 우리는 놀랄 만한 다양한 경험들로 가득 찬 1,161년의 세월을 한데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총관리 역원으로서 도합 430년의 세월도 갖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포함하여,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 중 한 명 이상은 이미 그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애에서 그 문제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분명히 더 늘어날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을 견디어 낼 수 있다는 확실한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자녀들은 결혼을 했고, 그들의 삶을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한 가족이 낡은 차를 타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멀리 떠나갔습니다. 제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들이 가는 곳에도 교회가 있잖소. 그곳에도 요리하고 돌보는 것에 관한 저 애의 질문에 대답해 줄 할머니들이 있고, 애들 아빠에게 실질적인 것들을 가르쳐 줄 할아버지들이 있을 거요.”

상호부조회에서 할머니로 삼을 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권 정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교회에 와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들 하나가 멀리 떨어진 주에 자그마한 집을 샀습니다. 그는 제게 허물어져 가는 한 초석의 벽돌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까이에 나이 든 부부가 사시니?”

그가 말했습니다. “예, 길 건너 몇 집 아래에 은퇴하신 부부가 계시요.”

“그 분에게 좀 오셔서 봐 달라고 하면 좋지 않겠니? 그 분이 이곳의 기후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일이 그렇게 처리되었고, 아들은 그런 문제와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나이 든 분의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하면 ... 하나님 여호와와 [여러분에게 준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길 [것입니다.]”(출애굽기 20:12)

사도 바울은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가르치고, “늙은 남자”는 젊은 남자를 훈계하며 “자신이 선한 일의 본”(디도서 2:1~7 참조)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늙었고, 때가 되면 장막의 저편으로 소환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걸쳐 배워 온 실용적인 것들을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 더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가 했던 일들을 할 수는 없으나, 예전의 우리보다 더욱 훌륭하게 되었

습니다. 삶의 교훈들은, 그 중 어떤 것들은 매우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젊은이들을 권고하고, 바로잡고, 심지어 경고하는 자격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황혼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고, 되어서 할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삶으로부터 은퇴하여 즐거움 속으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무익하고 심지어는 이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 봉사한 후 해임되었고, 이제는 교회에서 할 봉사는 다했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복음 안에서 활동적이 되어야 하는 일로부터는 결코 해임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교리와 성약 4:3)

나이가 들고 약해졌을 때, 여러분은 마침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커다란 사명은 여러분의 가족과 다른 이들의 가족을 강화시켜 세대들을 묶어 주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참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계시 가운데 너희에게 명한 [교리]와 온전히 일치하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8:7)

1835년에 최초로 출판된 말일성도 찬송가에 “군도다 그 기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노년에도] 나의 모든 백성 영원 무궁히  
영원하고 불변한 주님 사랑을  
증거하고 널리 전파하리라  
그 때 저희들을 어린 양과 같이  
내 품에 안아서 보호하리라”*  
(찬송가, 35장, 6절)

회복된 복음에 대해 여러분이 지닌 간증의 불꽃과 구속주에 대한 증거를 밝게 타오르게 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불가에서 불을 쬐 수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자녀를 위한 기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부모로서 우리는 ... 삶을 지켜 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신앙을 갖고,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을 물려주되, 한 번에 한 자녀씩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충실한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신 첫째 날, 시간이 다해 갈 무렵, 그분은 종종 우리의 시선 바로 아래 서 있어, 때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특별한 청중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 성스러운 기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 오라 명하시니,

“저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앉자 ... 예수께서도 친히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보라 아버지께 간구하시었으니 이제 그 간구하신 대로 날 날이 기록하지는 못하나, ...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 [그는] 아버지께 간구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마치시고 일어서[신 후에] ... 예수께서 우시니[라] ...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다시]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

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다시 우시더라.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sup>1</sup>

우리는 그런 감동적인 상황에서 구세주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분이 “괴로워” 하셨으며 무죄한 자들 주변을 늘 맴도는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 “마음이 편안치 못하셨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 위험이 세계적인 것이든 지역적인 것이든, 혹은 개인적인 것이든, 저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성공적으로 견뎌 내기도 전에, 그들이 그것에 직면해야 할 때가 되기도 전에 유혹과 범죄의 바다가 그들을 뒤덮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그들 위에 작용하는 세력들 중 일부는 개인의 통제로 막을 수 없는 듯이 보입니다.

일부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는 않다고 간증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고 신권의 권세는 장막의 양쪽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홀로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행하면서 복음대로 생활하고 그 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한 방법과, 구원의 진리와, 기쁜 생활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sup>2</sup>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개인적으로 회개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일을 하고 난 후에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방법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으며 특별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이제까지 삶을 지켜 온 방법대로, 삶을 지켜 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신앙을 갖고,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을 물려주되, 한 번에 한 자녀씩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그들의 안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면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저는 신중하고 사랑에 찬 마음으로 교회의 어떤 성인이나 부모,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인 사람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복음의 야영장에서 늘 종교적인 신앙의 가장자리에 텐트를 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와 좀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야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그러한 태도에 대한 대가를 완불하는 날까지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애석하게도, 이것들 가운데 일부 요소들은 일종의 엄청난 국가적인 부채가 되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연구하고 배우는 것, 비교하고 숙고하는 것, 토론하고 추가 계시를 기다리는 것에 관한 커다란 관용의 여지와 경전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된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가르쳐 주는 종교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배웁니다.<sup>3</sup>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갑압이나 통제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위협과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있는 어떤 자녀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교회의 회복과, 고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의 뜻[과] ... 주의 생각[과] ... 주의 말씀[과] ...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sup>4</sup>에 따라 이 교회를 인도하는 살아 계신 예언자와 사도들의 실재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예언자들은 단합과 화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해명할 필

요가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설득력 있는 말로 화합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sup>5</sup> 언젠가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사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홍해가 열리던 날에는 화합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의문과 의심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더 큰 의문과 의심을 품게 됩니다. 신앙과 믿음의 문제에서 자녀들이 이러한 지식의 흐름이나 문화의 급류에 휩쓸려 하루로 떠나러가는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부모인 우리들은 가족들이 실수 없이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정착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절벽 가까이로 가서 아래 쪽에서 들려 오는 시끄러운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교회가 참되고, 신권의 열쇠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싶어하지 않다고 설명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배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일 경우 자녀들이 안전하게 기슭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에게 관해 말하면서 그러한 비유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sup>6</sup>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이 확실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활동적이고 모임에 참석하는 말일성도가 될 수는 있지만, 복음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하지 않고 회복의 참됨과 첫번째 시현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인도하는 신성한 힘에 대해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강력한 확신을 자녀에게 전해 주지 못할 경우, 우리의 자녀들은, 전혀 놀라울 것 없이, 애석하게도 모임에 참석하고, 눈에 보이게 활동적인 말일성도 혹은 때로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홀랜드 자매와 저는 한 훌륭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는 종교적인 신앙을 찾기 위해 초자연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동방의 여러 종교들을 조사하고 난 뒤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친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가 실제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열심히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 분은 교회에 대해 늘 냉소적이었습니다.” 냉소적인 할아버지에게서 불가지론자인 아들로, 그리고 다시 그 손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 주신 바 있는 것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리차드 엘 이만스 장로가 했던 경고에 대한 얼마나 전형적인 예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어떤 부모들은 가르침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거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소위 자유로운 견해를 갖는 것—다시 말해 약간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거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가족이나 가족의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것을 약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길을 약간 벗어나면, 자녀는 부모보다 더 심하게 길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sup>7</sup>

고의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우리가 현명해지거나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충실함으로부터, 충성과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자녀(혹은 다른 누구라도)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어떤 부모나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회의적인 생각은 믿는 마음보다 훌륭한 미덕의 예가 아닙니다. 때로 문학적 허구에 적용되는 의도적인 비판과 회의가, 가정의 신앙을 갈망하는 가족에게 전이될 때 그저 단순한 낡은 형태의 파괴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것처럼 참된 길에서 탈선하는 것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며 막을 수 없을 만큼 미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욕물을 매 10분마다 1도씩 [올린다면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sup>8</sup>

고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서 거룩한 장막을 세울 때, 그들은 지탱하는 줄을 단단히 고정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sup>9</sup>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정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정시키고 단단히 붙잡아 맨 후 또다시 고정시키고 단단히 붙잡아 매십시오.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떤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엄마야빠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지만 자녀는 빛나갈 수 있습니다. 선택의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 신권의 권세와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앙을 알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곧고 좁은 길을 떠나겠다는 선택을 할 경우 그들이 자신의 부모는 그 길에 확고하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면서 떠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스스로 돌이”<sup>10</sup>키고 과거에 그들이 있던 가정에서 여러분이 보여 준 사랑의 모범과 부드러운 가르침을 기억하게 될 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눈에 띄도록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약을 맺었다는 것을 자녀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십시오. 신권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간증을 하십시오.<sup>11</sup> 여러분이 믿음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그것을 우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예언자 니파이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녀[를] 권고하고,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올바른 길”<sup>12</sup> [민계] 하기 위해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작성했으며 그분의 복음에 관한 그들의 확신을 보존했다고 말했습니다.

니파이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이 무엇을 아는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입니까? 자녀들은 우리가 경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까? 그들은 우리가 경전을 읽고 표시를 하고 매일의 생활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봅니까? 자녀들이



무심코 닫힌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기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직 부모로서의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압니까? 자녀들은 우리가 금식을 매월 첫 주에 하는 힘든 의무 이상의 것으로 믿는다는 것을 압니까? 그들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들도 전혀 모르는 장래를 위해 우리가 금식했다는 것을 압니까? 성전이 지옥이나 죽음의 군대도 꿰을 수 없는 유대 고리를 마련해 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까? 부모들이 지역 지도자나 본부 지도자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그 지도자들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의로운 표준을 보전하기 위해, 구하지 않은 부름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까? 자녀들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생자의 발아래 엎드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압니까? 저는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렇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동기 부여와 지도에 따라 미래로 향해 날아갑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손을 떠난 그 화살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악들을 알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 화살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현세의 요인이 화살을 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안정과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갖습니다.<sup>13</sup>

칼 샌드버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기는 생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뜻이다.”<sup>14</sup> 그 아기의 미래는 여러분처럼 강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계속 사랑하고 계속 간증을 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시기에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녀와 자녀의 부모를 기꺼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리러보

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sup>15</sup>

자녀들을 위해 항상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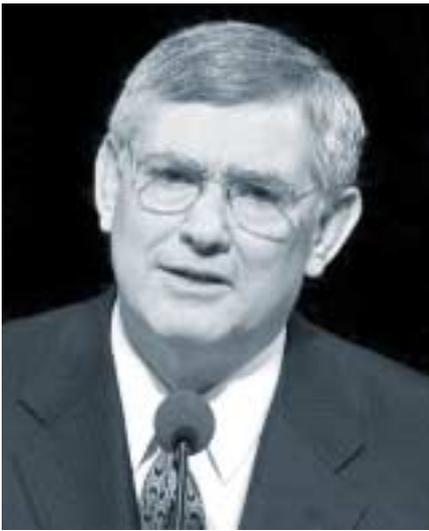
#### 주

1. 니파이삼서 17:11, 14~16, 18, 21~23.
2. 요한복음 14:6 참조.
3. 니파이서 28:30.
4. 교리와 성약 68:4.
5. 교리와 성약 128:13 참조.
6. 이사야 33:23.
7. Conference Report, 1964년 10월호, 135~136; 사체 강조.
8. 마셜 맥루한, John Leo, “The Proper Place for Commercials,” U.S. News and World Report, 1989년 10월 30일, 71쪽.
9. 아사야 54:2; 니파이삼서 22:2 참조.
10. 누가복음 15:17 참조.
11. 인간 간증에 대한 부모의 힘에 관한 말씀은 요셉 스미스, comp. *Lectures on Faith*(1985년), 37쪽 참조.
12. 니파이서 25:23, 26, 28; 사체 강조.
13. 이 은유는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서 발췌함.
14. *The Columbia World of Quotations*(1996년), no. 48047.
15. 니파이삼서 17:23~24.

# 죄의 악취를 이겨냄

스펜서 브이 존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러분과 제가 온갖 죄를 짓고 불결하게 될 것을 아셨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마련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 정말로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중** 든 나쁘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수반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지루한 농촌 지역이라고 여기는 곳인, 인구가 135명인 뉴멕시코 주 버든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소년이었던 어느 날 여름 밤, 제 사촌들과 친구들, 그리고 저는 흥미로운 일을 벌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어떤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장난을 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 양심은 잘못된 일이라고 속삭였으나 저는 주변 친구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반대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짓궂은 장난을 친 후에 우리는 어둠 속의 시골 길을 쓴살같이 달아나서는, 웃으면서 우리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리 중 한 명이 발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면서 외쳤습니다. “맙소사, 고

양이가 발에 채였어!” 우리 위에 매우 고운 액체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매우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제 친구가 고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제로는 스컹크였습니다. 그것이 자기 방어를 위해 냄새를 우리에게 뿌렸던 것입니다. 스컹크가 내뿜는 냄새만큼이나 역겨운 것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그 지독한 냄새를 맡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풀이 죽어서 우리의 처참한 처지를 부모님이 달래 줄 것으로 기대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부엌 문으로 들어섰을 때, 어머니가 냄새를 한 번 맡아 보시더니 우리를 마당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청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 옷을 태우셨습니다. 그런 뒤 온갖 가정 요법 내지는 동네에서 사용되던 조제약들이 우리를 위해 다 동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다양한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토마토 주스로, 그 다음에는 소젖으로, 심지어는 집에서 만든 껌껌한 잿물 비누로 목욕도 했습니다. 그러나 악취는 남아 있었습니다. 부친께서 먼도 후에 바르시던 강력한 로션조차도 그 악취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우리는 장난에 대한 별로 집 밖의 나무 아래서 식사하고, 밖에 친 천막에서 잤으며, 화물 트럭의 뒤에 타고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냄새가 다 나갔다고 순진하게 생각한 우리는 몇몇 소녀들에게로 다가가려고 했으나 그 소녀들은 우리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으며, 십대인 우리의 연약한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스컹크의 냄새가 배는 것이 모든 죄에 따르는 공통된 결과가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과는 즉각적이거나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죄에 대해 다소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결과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죄의 결과가 죄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녀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도 우리 죄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고 또 그 죄들이 잘 은폐된다고 스스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항상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지도자들,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종종 우리 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과 한 청소년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저는 회중 사이에 흩어져 있던 다섯 명의 청소년을 주목해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이나 몸짓은 그들의 생활에서 영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모임 후에 제가 스코트 장로님에게 다섯 청소년에 관해 언급했을 때, 그 분은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덟 명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저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저들의 죄가 소돔 같음을 고하며, 이를 숨기지 못할지라.”(니파이이서 13:9; 또한 이사야 3:9 참조)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교리와 성약 42:28) 제 사촌들과 제가 우리 죄의 결과로 집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 부친께서 먼도 후에 바르는 로션을 가지고 냄새를 감추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할 때,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합니다!”(교리와 성약 121:37) 우리는 우리의 영적 은사들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받았던 빛마저 빼앗기리니”(교리와



구세주의 역할과 사명에 관해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터의 그리스도 조각상

성약 1:33)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들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 또는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선을 택하라고 속삭입니다. 선한 선택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회개를 늦추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계속해서 스텝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악취가 더욱 강해져서,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더욱더 멀리 떼어놓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쁜 선택을 한 후에 우리는 “마음이 무디어져” 작고 조용한 소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었던 레이맨과 레뮤엘처럼 될 수 있습니다.(니파이일서 17:45 참조)

만일 제가 그 장난은 잘못된 것이라고 양심이 처음에 속삭였을 때 그것에 따랐더라면, 온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큰 시련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니파이를 통해 구세주께서는 “... 불결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음에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것이라”(니파이일서 10:21)고 가르쳤

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을 미리 아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온갖 죄를 짓고 불결하게 될 것을 아셨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마련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토마토 주스, 우유, 잿물 비누와는 달리 정말로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구세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앨마서 22:14 참조)

셋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한 순종을 몸소 보여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큰 고통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그분]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게”(교리와 성약 19:18)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자신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습니다.”(니파이일서 11:33)

“그분은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 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 그리고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교리와 성약 18:11, 13)

구세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지[를]” 아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릴[다]”(교리와 성약 58:43)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이사야 1:18)라는 기적적인 약속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그분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 미루지 않기를”(앨마서 34:33) 애정의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그 과정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회개의 치료 약으로 죄의 악취를 없애십시오. 그러면 속죄를 통해 구세주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유의 사항에 따르십시오

디 렉스 게렛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영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열 때,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지시 사항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몇**년 전 와드 서기로 봉사하고 있을 때, 와드에서 새해 동안 사용할 물품이 저의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박스 가운데서 수신자가 와드 서기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주의를 끌었습니다. 테이프로 포장된 박스에는 붉은 글씨로 타자된 다음과 같은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 살펴보고 잘 모르거든, 제발 유의 사항에 따르십시오.”

저는 이 꼬리표가 모든 박스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본부에 누군가 저를 아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작은 꼬리표는 제 마음에 그 메시지를 깊이 새겨 주었습니다. “다 살펴보고 잘 모르거든, 제발 유의 사항에 따르십시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훌륭한 선택은 약속된 축복을 가져오고 좋지 못한 선택은 늘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짧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엘마서 34:32 참조) 우리의 육신과 영에 이미 해로운 것으로 입증된 것을 개인적으로 시험해 보거나 관여하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중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느낄 마음과 들을 귀를 갖고서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우리는 어떻게 지도를 받으니까?

첫째, 진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요셉은 그 지시에 따랐으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농부와 대가족의 가장으로 살아 왔습니다. 물론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가는 생활의 일부였지만 가끔 한밤중에 밖에 나가서, 혹은 건초더미 옆에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큰소리로 기도드리고 싶은 절실한 필요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분의 따뜻함을 느꼈으며,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면 그분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지혜로써 저의 가장 큰 유익을 위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소망을 갖고자 하고, 위안이 필요하며 불행하고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인생의 목적을 느끼고자 하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러분을 위해 그분의 아들이 치르신 속죄의 희생과 그분이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눈물이 여러분의 눈을 적실 것이며 영의 따뜻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위안과 지도와 이해력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영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열 때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지시 사항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경전에는 고대와 현대 예언자들의 지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6)

주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두려워 말라. ... 나는 이미 나의 마음

에 청하였음이니, 곧 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시험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성약을 지키려 하는지를 알아보아 너희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노라.”(교리와 성약 98:14)

지시 사항에 따르는 데는 커다란 노력과 각오와 끝까지 참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니파이이서 31:20)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지켜 준행하면 나 주는 모든 노여움과 분노를 너희로부터 거두어 가리니,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98:22)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과거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저는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이 오늘날 주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시대에 맞는 영감에 찬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은 200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심각하고 소모적이며 어렵고도 큰 염려를 일으키는 특별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덕스러운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의로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05쪽)

지시 사항을 받은 후에 우리는 그 권고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 받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한번은 구세주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셨습니다.(마태복음 9:36 참조) 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원회 지도자, 감독 그리고 스테이크장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전을 탐구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7~38)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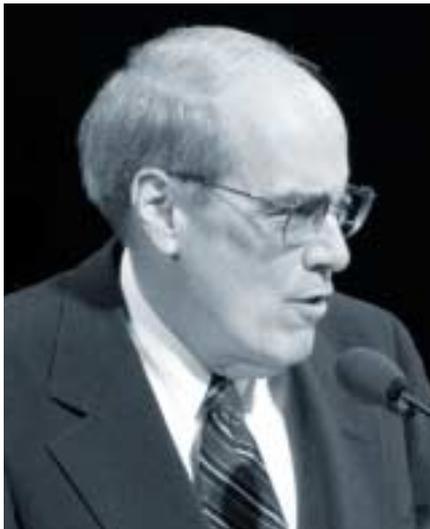
**“다 살펴보고 잘 모르거든, 제발 주의 사항에 따르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영원한 결혼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러분이 뭔가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그 물건을 달리  
취급합니다. ... 여러분이 특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 물건은 특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아내와 저는 정원에서 열린 결혼 피로연에 참석했습니다. 그 날 일찍 우리는 성전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젊은이가 영원한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기적처럼 만났으므로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우리는 줄을 서 있었는데, 우리 앞에 그들의 가족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더니, 룯기의 감동적인 말씀을 구성진 테너 음성으로 노래 불렀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룯기

1:16~17)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리라고 확신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집 벽에 룯기의 같은 말씀이 오랫동안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이혼으로 끝나는 결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심과 죄와 편의 의식이 종종 성약과 약속보다 우선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결혼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정해진 원리이며 아담과 이브가 선약과를 먹고 인류가 필멸의 상태로 되기 전에 이 지상에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서로를 반려자로 정해 주셨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하셨습니다.(창세기 5:1~2; 사체 강조)

영원한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계획의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인 핵심이라고 예언자들은 한결 같이 가르쳤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결혼 성약에 충실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기쁨을 얻고 다음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1988년, 533~534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해의 영광의

결혼을 “더 없는 영광의 복음 의식”이라고 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사후 세상에서 뒤늦게 해의 영광의 결혼을 이룰 수 있겠으나,” “합당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 [1997년], 132, 140쪽)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은 영원한 결혼이란 훌륭한 [켓]이며(“하나님이 짝지어 주심”, *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70쪽 참조), “무엇보다도 값진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영원한 결혼,” *성도의 벗*, 1974년 11월호)

영원한 결혼이 아무리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은사라고 해도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은사에 따르는 성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받은 은사는 물러가고 맙니다. 교리와 성약 13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에는 세 하늘 곧 세 가지 등급이 있느니라.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는 이 신권의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말할)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31:1~2)

성약은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성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분의 완전한 영광, 영생, 영원한 증진,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 및 완전한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점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행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경전은 이러한 성약에 최소한 세 가지 약속이 내포되었음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영원한 결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남편과 아내가 온전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결혼 관계란 불화의 조짐이 보일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경솔하게 파기해서는 안 되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은 점점 강해지며, 사랑은 무덤 저편에서도 계속되며, 각자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해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게 되며, 문제와 불화가



생기면 저절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회개, 용서, 오래 참음, 인내, 사랑, 소망 및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성의 요소가 되며 영원한 결혼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모든 요소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영원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며, 이것은 결혼 성약 당사자가 자신들의 결혼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계명을 지키며, 예언자들이 가르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욕망과 열정을 절제하기로 하며, 대등한 동반자가 되며, 집안이나 집 밖에서 진실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셋째, 영원한 결혼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자 관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함께 인봉된 자들에게 생명이 계속됨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계명에는 창조주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또한 그분의 자녀이므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밤을 가지며 경전 공부를 하며 복음 토론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부름과 역할에서 서로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초등학교의 역원 부름을 받거나 남편이 감독단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고 서로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 성약에는 최소한 이런 저런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말로 아내나 남편을 학대하는 사람이나 결혼 생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은 성약을 어기고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웃을 홀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혼 관계를 합당하게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결혼에 관련된 대부분의 것은 제 동반자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거의 4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내는 결혼 생활을 꾸려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가난한 대학생 신분으로 시작했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아내의 꿈은 은식기 한 벌이었습니다. 오늘날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내는 결혼하면서 마을 백화점에 가서 결혼 선물로 받고 싶은 물품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목록에 주전자, 냄비 및 가전 제품을 열거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택했습니다. 은식기를 적었던 것입니다. 결혼 선물 목록에 은식기 손잡이의 디자인, 은식기 벌 수, 나이프, 포크 및 스푼 등만 적고 그 밖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 목록에 수건, 토스터 및 텔레비전은 없고 나이프, 포크 및 스푼만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우리의 친구들과 부모의 친구들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신



혼 여행을 떠나면서 선물은 돌아와서 펼쳐 보기로 했습니다. 돌아와서 뜯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온 선물 중에 은식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은식기를 선물로 받지 못한 데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법대생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아이가 둘이나 생겼습니다. 돈을 따로 떼어 둘 형편이 못 되어 아내가 시간제 선거 사무원으로 일을 하여 돈을 번다든지 생일 선물로 누군가에게서 몇 달러를 받으면 몇 푼씩 저축하곤 했습니다. 돈이 좀 모이자 마을에 가서 포크나 스푼을 샀습니다. 여러 해가 걸려야 손님 맛이 식탁을 차릴 수 있는 은식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4인용 은식기를 갖추게 되자, 저녁 식사에 친구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부엌에서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 은식기를 사용할 것인지 아

니면 낡고 짝이 맞지 않는 값싼 스테인레스 식기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같으면 저는 값싼 스테인레스 식기를 사용하고자 하겠지요. 사용하기가 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세척기에 던져 넣으면 알아서 세척되니까요. 이와 달리 은식기는 손이 많이 갑니다. 아내는 도둑들의 눈에 띄지 않는 침대 밑에 은식기를 숨겨 놓았습니다. 아내는 은식기를 포장할 수 있는 깨끗한 천을 사 오라고 저에게 줄랐습니다. 은식기 하나하나를 천으로 된 별도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모두를 정리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식기를 사용하고 나면 얼룩이 지지 않도록 손으로 씻은 후 건조시켜서 천 주머니에 넣어 때가 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천으로 싸서 도둑 맞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겨 놓았습니다. 때가 끼인 것이 발견되면 제가 은 세척제를 사 오고 우리 두 사람은 때를 깨끗이

닦아 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은식기를 몇 벌 더 샀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은식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내는 좀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은 포크 하나를 뒷마당의 흙을 파는 데 사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심한 경고를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조리한 음식을 와드 만찬에 보내거나 준비한 식사를 환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때 은식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외 소풍을 가거나 캠핑을 가도 은식기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집 밖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식탁에 은식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오면 은식기를 사용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요리조리 따져 보고 쉽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오면 오래 스테인레스 식기로 대접했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 부부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은행에서 보관 금고를 빌리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은식기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남겨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에서였지요.

여러 해 동안 아내가 좀 괴팍스럽다고 생각하던 저는 어느 날 그녀의 심중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그 물건을 달리 취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물건을 보호해야 하며, 아무렇게나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물건을 바람이나 눈비를 맞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물건에 때가 묻으면 광이 날 때까지 정성으로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 물건은 특별한 것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더 아름답고 소중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결혼은 특별한 물건을 다루듯이 다루어야 합니다. 영원한 결혼을 귀중한 은사로 여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범사에 감사하라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을 인생의 목적이란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물** 문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이자 세  
상적인 역경의 시기들 중에 한번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고난을” 겪  
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  
”(모사이야서 26:38~39)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싶습  
니다.

## I.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감사하라는 명을 받  
았습니다. 구약전서와 신약전서에는 많은 예들  
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  
니가전서 5:18) 예언자 엘리야는 이렇게 가르쳤  
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이 가득차게 하라”(엘마서

37:37) 그리고 현대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  
이 저에게 더하여지리니 참으로 백 배 이상 더  
해지리라.”(교리와 성약 78:19)

## II.

우리에게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많습니  
다. 우선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그  
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언자들  
을 통해 구원의 계획과 그에 수반되는 계명과  
의식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보여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  
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받을 수 있도  
록,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죄 값을  
치렀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과 생명이십니  
다. 베나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  
하시며, 기쁨을 누리고 서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  
리고, ...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중에 불과한 것이니  
라.”(모사이야서 2:20~21)

우리는 진리가 계시되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표준을 갖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듯이, 주님은 “성도를 온전하  
게 하기”(에베소서 4:11~12 참조) 위해 사도  
와 예언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계시된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에베소서 4:14)  
어떤 재앙, 어떤 새로운 견해와 발견도 계시된  
진리의 표준에 비추어 이해하는 사람들은 “요  
동”할 필요가 없으며 침착하고 평안할 수 있습  
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있  
을 멸망에 대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  
에는 너희와 맺은 약속이 성취되는 줄 알게 될  
것”(교리와 성약 45:35)이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그것은 얼마나 훌륭한 영혼의  
맞이 됩니까!

우리는 계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지침이며,  
축복에의 초대장입니다. 계명은 가는 길을 표  
시해 주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과 앞으로 오는  
세상의 영원한 삶에서 행복을 얻는 길을 보여  
줍니다.

## III.

지난 8 개월 동안 필리핀에 있는 동안 저는  
복음의 축복에 관한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  
다. 한 필리핀 감독은 와드 예배당 헌납식 말  
씀에서 10여 년 전에 그의 삶에 찾아온 복음  
의 메시지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  
것이 어떻게 이기적이고, 지나치며, 자신과 타  
인을 학대하는 생활에서 자신을 구출하여 훌륭  
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해주었는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오는  
축복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변호사이자 사회 지도자인 한 스테이크장단  
보좌는 지도자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이 있다  
면 그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  
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온 세상  
을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생활  
에 적용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  
긴 하지만, 회원이 됨으로써 저와 가족의 삶에  
는 큰 변화가 왔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기이한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듣기 위해 필리핀으로 갈 필

요는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스 자매와 저는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환경 속에서 살며 복음을 새롭고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가 아직 발전 단계에 있는 지역에서 우리는 교회 설립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통해, 부름과 성임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함을 통해 새로운 회원들을 남아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계명과 성약에 위배되는 문화적 전통을 단념하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후손과 더불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에베소서 2:19~20)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계명과 성약, 그리고 의식과 축복이라는 범세계적인 복음의 문화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더 이상 악을 행치 아니하고 계속하여 선행을 하계”(모사이사서 5:2)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 몸에” 지니게 됩니다.(엘마서 5:19)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과 교회가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새로운 회원에게 우정과, 가르침과, 역할 모델과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는 힘이 결집되어 있는 중심지로부터 차츰 퍼져 나가게 하고, 이미 강한 회원들이 충분히 있는 큰 그룹에 가르침이 집중되게 함으로써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IV.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는 계시는 비록 역경

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역경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기 바라시는 인물이 되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언자 모로나이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이다.”(이더서 12:27) 미주리 주에서 말일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이와 비슷한 가르침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려워 말라. 너희 마음에 위로를 얻으라. 참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 너희에게 고난을 겪게 한 모든 일은 합동하여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교리와 성약 98:1, 3) 그리고 주님은 리버티 감옥에서 역경을 당하고 있는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이다.”(교리와 성약 122:7) 브리감 영은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생활 상태와 모든 체험이 유익합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년], 179쪽)

어떤 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20년의 경험과 1년간의 경험을 아무런 발전 없이 20년 동안 반복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이해할 경우, 우리는 역경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현대 예언자들의 영감 받은 많은 가르침들이 멜기세덱 신권과 상호부조회 학습 과정인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책에 포함되어 있는 영원한 교리와 원리들은 신성한 지혜와 인도의 근원이 됩니다. 와드와 지부에 있는 현명한 교사들은 자신이 택한 주제와 지혜를 가르치는 대신, 이 영감 받은 가르침과 그것을 현대 상황과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사용하는 책에서 우리는 고난에 감사하는 것을 주제로 한 존 테일러 대관장님의 다음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정화하여, 그들이 경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금처럼 되게 할 목적으로 시험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2001년], 202~203쪽) 예언자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박해와 신앙으로 인해 감당기 힘든 어려움을 경험한 존 테일러 대관장님 같은 개척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영감 받은 용감한 행동을 통해 그들은 신앙과 영적인 면에서 성장했습니다. 역경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되기를 바라시는 인물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위해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개척자들처럼 우리도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겨 내도록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통해 그리고 신앙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계획의 전부입니다.

저는 뮤지컬 영화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한 유대인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그는 “내가 부자라면”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간구의 질문으로 끝을 냅니다.

사자와 양을 만드신 주님,  
당신은 내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지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부유한 사람이라면  
영원한 계획을 망치게 될까요?  
(lyrics by Sheldon Harnick [1964년])

그렇습니다, 테비. 그것은 계획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의 신분에 대해



그리고 필멸을 통해 개인적인 여행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고대에 예언자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네가 어릴 때 너희 형들이 횡포함에 고난과 슬픔을 겪었으나,

“광야에서 처음 얻은 나의 아들 야곱아,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나니,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 이매.”(니파이서서 2:1~2)

저의 모친은 그 구절을 좋아하였으며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생애에서 가장 큰 역경은 결혼 11년 만에 남편, 즉 우리의 부친을 여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으며 생계를 꾸려

나가고 어린 세 자녀를 키워야 하는 큰 어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재능을 발전시켰으며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결코 될 수 없었던 인물이 되었기에, 주님이 역경을 성별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제 모친은 영적으로 거인과 같은 분이로서, 세 자녀가 묘비에 새긴 다음과 같은 찬사를 받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모두를 강하게 만들었다.”

역경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저는 미망인이 된 어머니 아래서 자라면서 일찍부터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비교적 궁핍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유하고 풍족한 시간적 자유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역경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또한 역경 가운데서 힘이 생겨나며 신앙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한다는 것을 압니다.

#### V.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을 인생의 목적이란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기 위해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범사에는 상대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되는 것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배우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인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 고귀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암으로 인한 역경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수궁하는 자세, 충실하고 지속적인



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보여 준 모범은 주님이 우리의 역경을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성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활용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맏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맏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맏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요한복음 9:2~3)였습니다.

영성의 렌즈를 통해 인생을 볼 경우, 우리는 하나님 사업의 많은 예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겪는 역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마닐라에 있는 미국 전쟁 기념관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제게 신성한 곳

입니다. 그곳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태평양에서 목숨을 잃은 17,000명의 육군, 해군, 공군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기념관은 또한 목숨을 잃었으나 시신을 찾지 못한 36,000명의 다른 군인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름과 출신 주가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벽을 걸으며 저는 충실한 말일성도였다고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전시예 목숨을 잃은 합당하고 훌륭한 많은 회원들과 그들의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저는 교리와 성약 138편에 기록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위대한 시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에 대한 간증에 충실했던”, “무수한” 의로운 영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12절) 주님은 의로운 영들로 “군대를 조직하시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 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위임하셨나니, 복음은 이렇게 죽은 자에게 전파되었”(30절)습니다. 이 계시를 생각하고 전쟁에서 죽은 무수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많은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역경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함께 죽은 무수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의로운 사자가 되는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경과 다른 사람들의 역경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범사에 주네 하나님께 감사하라.”(교리와 성약 59:7)고 명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교리와 계명에 담긴 진리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며, 범사에 감사할 만큼 충실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요 또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 개개인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고, 더욱 강한 신앙으로 그분과 더욱 자주 교통할 것을 간청드립니다.



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며,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고, 그렇게 하여 제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소망을 굳건히 했습니다.

말일성도들의 이 위대한 모임을 마치며, 우리 개개인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고, 더욱 강한 신앙으로 그분과 더욱 자주 교통할 것을 간청 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세상의 악에서 보

호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신앙과 지식을 쌓으며 성장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유익하고 선한 삶으로 인도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아내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많은 남편들이 헤아릴 수 없는 문제와 크나큰 번민이 가득한 매우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편이 의로운 행동으로 인도되고, 축복 받고, 보호되고, 영감 받도록 전능하신 분께 간청하십시오.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자께서 손을 펼치고 그분의 영을 만백성에게 임하게 하셔서 국가들이 서로를 향해 분노하지 않고 평화가 지상에 깃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날씨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곳에서 홍수가 나는 반면에 다른 곳에선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축축한 땅을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주님이 의로운 자들을 위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69년에 남미에 갔었습니다. 비행기를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할 일만을 남겨 둔 채 모든 모임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이 훌륭한 대회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란도 없이 평화롭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에 관해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연사들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진리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간증은 밝게 떠오르는 불꽃으로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 위대한 대회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선한 영향을 받았기를, 우리 개개인이 지난 이틀 간의 경험으로 인해 더 나은 남자와 여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주님께 더욱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저



# 우리의 성약 안에서 굳건함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본부 청녀 회장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굳건하게 된다는 것은 성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면, 우리의 영은 고무되고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타고 아르헨티나에서 칠레, 산티아고로 갔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말라 있었습니다.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목은 바짝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칠레는 끔찍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방문 때 우리는 두 개의 새로운 건물을 헌납했습니다. 우리는 헌납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비가 더 이상 오지 않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정도로 풍족한 비가 내렸다고 그 모임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처할 때 지혜와 이해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리석고 무모한 일들을 하기로 굳게 결심한다면, 주님께선 여러분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에게 오는 권고에 따른다면, 축복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돌보심과 훈계로”(이노스 1:1) 성장하게 합시다. 여러분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신명기 10:12)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분은 무의식 상태로 계시거나 주무시지 않으심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Felix Mendelssohn, *Elijah*)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을 전하며,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제게 보여주신 친절함과 전능자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일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충실함과 활력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6개월 전에 부름을 받은 이래로 저는 여러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사랑을 느껴 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모든 청녀에 대한 저의 큰 바람은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지도자, 그리고 특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녀 한 명은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되고 소규모 합창단에 응시하여 합격했으며, 학교에서 무도회 주인공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

온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나고 묻자 딸은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실패자처럼 느껴져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요. 가진 재능도 없어요. 숙제도 다할 수가 없고 게다가 난 못생겼어요.” 그녀가 그렇게 불안하고 외롭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대부분의 십대들은 한두 번쯤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더 분명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청녀 가운데 한 소녀는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녀의 부모는 이혼을 했습니다. 한 소녀는 주말에 모든 친구들이 술을 마시러 가는 동안 혼자 집에 있습니다. 어떤 청녀는 불구가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소녀의 아버지는 군에 배치되었습니다. 한 착한 자매는 빛나간 오빠를 걱정합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엄청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청녀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년도의 상호 향상 모임 주제가, 오늘 저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니파이서서 31:20)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여러 문제

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가 희망과 사랑을 지니고 나아갈 때 저는 또한 희망과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굳건하게 된다는 것은 성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주 우리는 “항상 그를 생각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우리의 영이 고무되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차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성약을 지킬 때, 저는 희망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린지라고 부르는 한 청년 친구는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영과 사랑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거칠었으며 심지어 대부분의 청년 지도자들조차 그녀의 필요 사항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나쁜 일을 할 때 그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영을 느끼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선하게 되고 싶었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비록 경험이 부족하고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이 적었지만 침례 성약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의로운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 손바닥에 새겼”(이사야 49:16)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우리도 그분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잊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초기 성도들은 미주리에서 고난을 겪는 동안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기도가 ... 주의 귀에 상달되었으니” 끈기 있게 주를” 기다리고 ...

“그러므로 주께서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리



라는 불변하신 성약으로 약속하셨나니, 너희에게 고난을 겪게 한 모든 일은 합동하여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 되 ... 리라.”(교리와 성약 98:2~3)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간 기록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는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지의 상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굳건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생활했습니다. 그가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를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주리에 있었던 성도들처럼, 린지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사랑의 “불변하는 성

약”, 즉 “너희에게 고난을 겪게 한 모든 일은 합동하여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 되”리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교리와 성약 98:3) 아브라함처럼 그녀의 상황은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도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특별한 교회 지도자가 그녀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으며 결국은 그녀를 사랑하고 복음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청년을 만나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바라던 많은 축복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에 영이 거하고 자녀들을 의롭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고립되고 무시당했으나 지금은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축복은 인내로써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때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이 린지에게 희망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도전 속에서 애써 노력할 때 우리 각자에게도 희망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저녁 합창단이 부른 노래 가사가 우리를 그분께 나아오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위험의 손길 나를 뒤흔치나  
생길 일 문제 되지 않네

그분은 나의 보호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네  
 낙심한 자들이 그분께 오라  
 흐린 눈을 가진 죄진 자들이  
 안식을 갈망하는 지친 자들이  
 그분께 오라! 그분께 오라!

(“Come unto Him”, 찬송개영문, 114장)

성약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희망을 갖도록 해 주는 반면 또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리라”(예레미야 31:33) 성약은 우리 마음을 넓게 해 주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니파이서 31:20)을 느끼게 해 줍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희망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사랑과 용서 및 동정심과 같은 마음의 덕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제자로서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지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축복합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돌이켜 그분에게 헌신할 때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웃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인내심, 친절, 부드러운 포용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20쪽)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가족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과 성품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할 때, 그것은 좀더 부드럽게 말하고, 좀더 친절하게 행동하고, 좀더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친형제 자매에게 봉사하고, 좀더 넓은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들은 오래 전 가족 여행을 하는 동안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



을 보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어린 딸 가운데 하나가 몹시 지치고 힘들어했습니다. 딸 아이는 우리가 그토록 먼 곳까지 와서 보려고 한 그 장소로 잠시 걸어가는 것조차 싫어서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아이에게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열 네 살 된 아들이 그 동생을 등에 업고 성까지 갔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그가 보여 준 조용한 사랑의 표현으로 인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은 우리가 성을 구경한 것보다도 더 각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최선을 다해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가끔 힘든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부지런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성약을 지킬 때,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을 보다 완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가족의 품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은 잠시 브라질에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귀국 예정 시간을 2주 정도 남겨 두고 우리는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성찬식을 마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근처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주차해 있던 차가 거리로 차를 빼면서 우리 차 옆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차

가 몹시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른 운전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남편 존이 차에서 내릴 때, 저는 계속해서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차로 돌아온 그는 바퀴가 구를 때마다 타이어에서 쇠가 갈리는 소리를 내는 차를 천천히 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농장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차가 따라왔습니다. 남편은 단지 “나중에 설명할게.”라고만 말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 남편은 비상금을 넣어 두는 작은 봉투를 찾아 그 가족에게 차를 수리하려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가족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을 설명하면서 약간 미안하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난 이 사고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머리 속에 있었던 생각은 바로 한 시간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행동하겠다는 성약을 그분과 맺었다는 것이었소. 그분이 내 입장에 계셨다면, 그분은 이 가족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셨을 것이며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소.” 얼마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준 남편과 아버지였습니까! 그는 자신이 맺은 성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행동하면서 그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자신의 성약을 기억할 때, 희망과 사랑을 느낀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닐 때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이 제게 찾아오며,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게 말하시[며] 네 신앙과 소망 지니고 이웃을 도우며 아들처럼 살라[고]”(“아들 보내셨네,” 어린이 노래책, 20~21쪽; 성도의 빛, 1992년 4월호, 58~59쪽) 하십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그분에게 나아와 희망을 갖고 그분의 사랑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우리 앞에 밝게 미소 짓는 희망

줄리 비 벡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은 ... 여러분 앞에 밝게 미소 짓는 희망을 품고, 매일 ...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세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첫 번째 손녀가 태어나기 며칠 전, 아기의 부모들은 아기가 아들일지 딸일지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그 다음주 일요일에 교회에서 그들은 “우리 앞에 미소 짓는 희망”(“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고 서로를 쳐다보며 “딸이야!”라고 외쳤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딸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참 적절한 이름을 가진 희망이는 이제 다섯 살입니다. 그 아이는 매일 아침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희망이는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희망의 밝은 빛”

이 반짝입니다.(니파이서서 31:20 참조)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가진 재능, 난관 그리고 미래의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이 보입니다. 교회 회원이 된 지 6개월밖에 안된 청년의 행복한 얼굴이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서 차를 기다리는, 가족 중 유일하게 회원인 외로운 청년의 얼굴이 보입니다. “제가 언젠가 성전에 가기에 합당해질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며 걱정스러워 하던 청년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리에 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난 피곤한 청년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한 기쁨으로 흥분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도전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는 희망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눈에서 빛나고 있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침례 받았을 때, 여러분은 구세주의 모범을 따랐으며 하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니파이는 여러분이 이제 “영생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에 임하니, 너희는 이제 그 문에 들어섰으며”(니파이서서 31:18)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

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희망, 즉 여러분 앞에서 미소지으며 길을 밝혀 주는 밝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은 “또한 너희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위대한 희망에 관해 말해 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 영생으로 세우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니”(모로나이서 7:41)

침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첫 번째 커다란 희망인,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고 조금 더 잘 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낡고 합당치 못한 부분을 묻어 버리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그들의 낡은 방식을 물어버린 두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약의 딸이 지녀야 할 표준에 맞지 않는 옷들을 갖고 있었는데, 땅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단정하지 못한 옷들을 모두 넣은 뒤 그것들을 묻어 버렸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의 희망과 신앙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를 묻어 버리는 것에 상당하는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때 부모님이나 감독님의 도움을 얻기 원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찬을 합당하게 취할 때,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로마서 6:4)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에 여러분 앞에 밝게 미소 짓는 희망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영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곳에 머물러 있기만 하십시오!

두 번째 커다란 희망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끝날 때, 살아갈 훨씬 더 많은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 조카 딸 케이티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재능이 많은 희망에 찬 스무 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케이티는 자동차 사고로 목



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케이티를 못내 그리워하지만, 그녀와 다시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케이티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케이티의 지갑에는 성전에서 조상들을 위해 침례 받을 수 있도록 감독에게서 받은 성전 추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케이티는 합당했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그녀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다. 매일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자 ... 주님 가까이에 머물자. 주님의 창조에 대한 복음인 경전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얻자 ... 자신을 바치자.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의 모범과 속죄를 기억하고 매일 그분과 같이 되도록 애쓰자 ...” 케이티는 영생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으며, 그 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밝

게 미소 짓는 희망”이 있으며, 여러분은 질병이나 죽음, 가난, 혹은 다른 고통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취하며, 하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무는 것입니다.

속죄와 부활에 대한 희망과 함께 여러분에게는 세 번째 희망, 즉 영생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생 이후까지 이어지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킨다면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공부하고 연구하며 “모든 양서, 언어, 그리고 국민과 친숙”(교리와 성약 90:15)하게 됨으로써 자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교리와 성약 130:18)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평생을 준비해 오신 어머니를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생에서의 창조, 배움, 그리고 봉사의 원리들을 이해하십니다. 어머니의 모토는 “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러면 성장하게 될 것이다.”였습니다. 모험이 가득했던 어머니의 생에서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제 할아버지가 일하셨던 거친 유인타 산맥에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큰 나무들을 베고, 고기를 잡고, 야외에서 야영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겨울에는 도시에 있는 학교에 다녔고 야구 팀에서 활동했으며, 트럼펫을 배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대학에 가서 간호원이 되셨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브라질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가셨으며, 그

곳에서 포르투갈어를 배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나라를 여행하셨으며, 수천 명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경전을 공부하셨으며 몇 권의 저서를 남기셨고, 63명 손주들의 일을 챙기셨고, 아침에 한꺼번에 600개의 도넛을 구우실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전 생애 동안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니파이서 31:19 참조)으로 구세주의 길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로운 모험을 고대하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인생은 매우 흥미롭고 아직 도 배울 것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은 창조와 봉사와 배움의 행복한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좁고 곧은 길에 들어섰으며, 여러분 앞에는 밝게 미소 짓는 희망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기쁨을 지니신 97세의 저의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기력이 없고 거의 보이지 않는 눈에, 구부정한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계시던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삶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사악한 곳이에요. 유혹과 도전이 너무나 많아요. 합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일어나서서 명령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넌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온 이유야!” 제게 희망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여러분은 케이티나 제 어머니, 그리고 다섯 살짜리 희망이처럼, 여러분 앞에 밝게 미소 짓는 희망을 품고, 매일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세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침례 받았습니까.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여러분의 하늘 집을 향해 나아가면서 계속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힘차게 나아가고 굳건해짐

엘레인 에스 델튼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은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신이 도움을 줄 것이며, 구세주에 대한 간증으로 여러분은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부두에는 크리스티나라는 한 젊은 여성의 청동상이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시온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겠다는 일념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맹렬한 바람이 들이닥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굳건하며, 어렵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그 동상을 사랑합니다. 제게 있어 크리스티나는 거센 반대 속에서도 교회에 들어오는 선택을 했던 덴마크 출신의 제 고조 할머니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분의 용기와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당시 그 분의 선택에 저의 영원한 운명 뿐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운명이 달

려 있었습니다.

니파이는 물문경에서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니파이서 31:20) 그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 크리스티나처럼 니파이도 한 사람의 굳건한 선택이 여러 세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니파이의 아버지가 레이벤의 판을 얻기 위해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냈을 때,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을 꼭 얻게 하려면 힘은 곧 하나님의 지혜라. 이는 우리가 이 기록으로 조상의 언어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며”(니파이서 3:19, 사체 강조) 니파이는 결혼할 가망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자신의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그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니파이는 자신의 하늘 가정에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비전 뿐 아니라, 지상의 자신의 가정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한 비전도 있었습니다.

구세주는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 갖고 있는 비전을 여러분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분의 영이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덴마크 부두에 서 있는 크리스티나에게로 맹렬한 바람이 마주 불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도 세상의 힘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저항이 있음을 내포합니다. 경전은 앞으로 걸어가라, 또는 앞으로 움직이라, 그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자신이 가려는 곳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굳건해 지도록 도와 줄 것이며, 구세주에 대한 간증으로 여러분은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남편과 저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대회가 있기 전 날 밤, 완주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결승점에서 1.5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보스턴 시내로 갔습니다. 한밤

의 적막 속에서 우리는 운동화 끈을 묶고 결승점까지의 마지막 1.5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의기양양하게 손을 공중으로 치켜들고, 우승자가 된 듯 행동해 보았습니다! 관람석에서 환호를 보내는 수천 명의 사람들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경기에 참가해 달렸습니다. 42.195 킬로미터는 참으로 먼 거리입니다. “심장 파열”이라고 불리는 언덕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불릴 만합니다. 그 언덕들을 달리는 내내, 저는 결승지점과 전날 밤 그 결승지점을 승리감으로 통과할 때의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결승점에 대한 그 비전 덕분에 저는 뉴잉글랜드의 그 세찬 바람 속에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비전은 여러분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1년이나 2년 아니 5년 뒤에 되고 싶은 상태를 마음으로 그려 보십시오. 그런 다음 자

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실행하십시오.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겠다고 결정한 후, 그냥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훈련을 받으며 42.195 킬로미터를 달릴 체력과 지구력을 서서히 키워 갑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와 경전 공부를 부지런히 한다면 여러분은 각자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내리는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멜리사는 세미나리 덕분에 앞으로 자신이 되고 싶은 청년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세미나리에 등록했습니다. 열여덟 살이 되자, 선교사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멜리사는 선교사들이 가르친 것들이 참됨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침례식의 영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뿐 아니라 멜리사가 미래에 갖게 될 가족도 참석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감독님은 멜리사의 미래의 가족들이 “엄마, 고마워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멜리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침례 성약을 맺었습니다. 성약을 지킬 때, 여러분은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며 “행하여야 할 모두를”(니파이서 32:5) 말해 줄 것입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표준을 지키면서 거센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테네시와 아칸소에 있는 청년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하이티에서 만난 청년들 또한 성약의 청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들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복음의 소망으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신의 “제미한 소리”(열왕기상 19:12)에 귀 기울이고 있고 그 속삭임에 순종하기 때문에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성신은 또한 장래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청년은 키가 크고, 잘 생긴 젊은이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농구

부의 스타이자 상급반 회장이었습니다. 장래 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는 자신이 귀환 선교사와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결정을 오래 전에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교 사업은 그 젊은이의 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으며,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성탄절에, 그는 이 청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남자 친구를 선교사로 부르는, 하나님의 예언자에게서 온 편지임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의로운 영향력은 그가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기]”(고든 비 힝클리, “탁월함을 추구함”, *리아호나*, 1999년 9월호, 8쪽) 위해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남들이 명예로운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봉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남아서 명예롭게 신권을 지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한 청남의 인생에 미치는 여러분의 의로운 영향력은 그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 세대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딸 에미는 열다섯 살 때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딸의 물문경이 열어서 48장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모로나이 대장에 대해 묘사하는 다음 구절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모로나이는 강하고 의지가 굳으며 완전한 이해심을 갖춘 자라. …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돈독[한] … 자였더라.”(11절, 13절)

경전 여백에 에미는 “나는 모로나이와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7년 후에 그 아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에미는 경전을 읽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장래 남편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또한 구세주와 그분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구세주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뿐인 밝은 소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청녀 총회 전, 컨퍼런스 센터에 입장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청녀들과 지도자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돌아가 함께 살겠다는 소망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여러분은 회개하고, 여러분이 굳건하게 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여러분은 저항의 바람이 불 때에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크리스티나처럼 부두에서 서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마라톤을 하면서 언덕 위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경험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신이 도움을 줄 것이며, 구세주에 대한 간증으로 여러분은 온전한 희망

의 밝은 빛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가파른 언덕들이 얼마간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의 모든 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굳건하게 되는 데 있어 지금보다 더욱 중요한 때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니파이처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 끝까지 참을진대, …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니파이서서 31:20, 사체 강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이 지닐 미덕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저는 여러분이 이미 지니고 있는 미덕을 강화하고 그 외의 많은 것들을  
개발할 결심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훌륭하게 될  
위대한 잠재력을 지닌 여러분 앞에  
서니 압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  
러분은 자신의 어머니, 이모(고모, 숙모), 그리  
고 할머니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래의  
교회와 세상에서 절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것 이  
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특별히 이 자리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  
장님, 그리고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  
는 굳건함에 대한 훌륭한 메시지를 전해 주신  
태너 자매님, 벅 자매님, 그리고 델튼 자매님

께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년 합창단이  
들려준 음악 또한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대관장단은 2003년 3월 19일자로 신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어 여성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도  
록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  
니다. 그 서한은 기본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  
지만 감독단, 청년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과도기에 처한 우리 젊은 자매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 임무를 위해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훌륭한 청년들을  
만났고, 여러분이 지닌 굳건함에 감명을 받았  
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딸로  
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경우, “온전한 희  
망의 밝은 빛”<sup>1</sup>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서슴없  
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덕을 지  
닌 전도 유망한 청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지니고 있는 미덕을 강화하고 그 외의 많  
은 것들을 개발할 결심을 하도록 격려하고 싶  
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그 몇 가지 미덕에 대해 말  
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덕*의 의미를 완전히 이  
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미덕*의  
단편적인 뜻은 순결이나 도덕적인 깨끗함이지  
만 *미덕*이 지닌 더 큰 뜻은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의로운 특성들을 포함합  
니다. 뉴펀들랜드에 소재한 한 박물관에는 다

음과 같은 글이 수놓아진 1813년도 자수 시  
작품이 있습니다. “미덕은 마음 속의 최고미이  
며, 인류의 가장 고귀한 장식품이다. 미덕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내하는 별로서  
감각이 잘못을 저지를 때 이성을 일깨운다.”

탁월함과 행복의 추구에 있어 여러분 각자  
가 갖출 수 있는 열 가지 미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신앙

제가 신앙의 미덕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요  
셉 스미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모든 의로움의 기초”가 된다고 가르쳤습니  
다.<sup>2</sup>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계명에 따라 생활  
하려고 노력할 경우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앙을 행사  
할 때 우리는 기쁘고 긍정적이고, 자애롭고 용  
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는 신앙이 이 모든  
미덕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2. 정직

어느 대학 배구 팀의 한 젊은 여성은 자신  
의 친구인 무키와 함께 결승전에서 경기를 하  
고 있던 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경기는 막상막하였습니  
다. … [상대편에 있는] 그레이시가 서브를 넣는 선  
에서 점프를 하여 있는 힘을 다해 공을 쳤습니  
다. … 선심이 아웃을 선언했으며, 주심이 손  
가락을 들어 [우리 팀에게] 점수를 주라는 신호  
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하이  
파이브를 하기 시작했을 때 무키가 심판에게  
손을 들어 자신이 공에 손을 댔다는 신호를 보  
냈습니다. 무키는 자신이 공에 손을 댔다는 것  
을 시인했지만 선심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  
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무키는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정직함을 보였습니다. 그레이시 슈  
트는 너무나 감명을 받아 경기가 끝난 후 무키  
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키는 나중에  
그레이시에게 물문경을 주었습니다. 그레이시  
가 물문경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뮤키의 모범에 그레이시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sup>3</sup>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수 없습니다.

### 3. 순결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sup>4</sup> 더욱이 주님은 물론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은 여인의 순결을 기뻐함이라.”<sup>5</sup> 결혼 관계 밖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적으로 가까운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및 신체적인 깊은 상처뿐만 아니라 죄의식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정한 범위 밖에 있는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친밀 관계는 그 사람들에게 커다란 비참함, 부끄러움, 타락, 그리고 불행을 가져다줍니다.

반면, 이 성스러운 은사를 성전 결혼의 범위 안에서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행사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가족과 후손을 갖는 일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동역자가 됩니다. 혼전 순결이 결혼 후의 정절로 이어질 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존중과 행복에 이르게 하는 성스러운 통행증이 됩니다. 엔 엘돈 테너 부대관장님은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기보다는 존경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sup>6</sup> 또한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있는 성적인 순결에 대한 훌륭한 권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겸손

겸손은 중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청년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영을 세상에



보내어 겸손하며 심령이 상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 … 려 함이니라.”<sup>7</sup>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 말을 적절한 때 사용할 경우,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sup>8</sup>

### 5. 자기 수련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자신의 타고난 힘을 높일 수 있도록 자신을 수련하는 힘을 지녀야 합니다. 젊었을 때 형성한 자기 수련의 습관은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의 인격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수련으로부터 형성된 그 인격은 부활할 때 여러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sup>9</sup>

일의 원리 또한 자기 수련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오래 살았지만, 오래 전 할아버지의 시대에서조차도 일부 게으른 사람들이 내버려둔 채 가서 자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이라고 불렸습니다.

### 6. 공정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에서 공정해야 하며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많은 빛을 진 불의한 종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빛을 탕감해 주었으나, 그 종은 나가서 훨씬 적은 금액을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이 받은 동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을 꾸짖고 동료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했습니다.<sup>10</sup>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공정할 때, 그들 또한 여러분을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르치던 한 주일학교 교사에 관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녀는 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공과반에 있던 한 소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이곳에 있는 거죠?”

### 7. 절제

지혜의 말씀이 지닌 정신의 일부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금하신 것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에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복장, 두발 모양, 화장, 행동, 말, 그리고 음악에서 지나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것들은 일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었을 때 저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원에 가서 비행 접시를 탔습니다. 그것은 모양이 거꾸로 된 접시 같았는데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비행 접시가 속도를 내자 원심력에 의해 떨어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 가까이 있는 친구를 붙잡는 바람에 둘 다 비행 접시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곧 중앙에서는 원심력이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 접시는 계속 돌았지만 저는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꽤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붙잡게 되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앙에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8. 깨끗함

여러 해 전 예루살렘에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이스라엘인의 집단 정착지인 키부츠에서 실시되었을 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과 파우스트 자매, 그리고 제가 일부 BYU 학생들을 방문했습니다. 두 학생이 목고 있는 방 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끗한 것이 신앙과 같은 것이라면 정화되는 자들의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복과 행동에 있어

서도 깨끗하십시오. ... 지금의 시대는 단정하지 못한 복장과 단정하지 못한 행동의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복장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만큼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sup>11</sup> 여러분과 교회는 부분적으로 여러분의 외양적인 깨끗함과 단정함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9. 용기

고귀한 청년 여러분은 많은 용기, 즉 또래 친구들의 압력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유혹을 물리치고, 비웃음과 따돌림에 대항하고, 진리를 위해 일어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인생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크로스컨트리 선수였던 한 청년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종종 경기 도중에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금년에 있었던 첫번째 경기에서 무리하여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려 했을 때 ‘돈도다 그 기초’의 3절 가사가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는 경기를 끝낼 용기를 제게 주었습니다.”<sup>12</sup>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너희 주 하나님 나 함께 하리라

힘 주고 도우어

높이 세우리라

전능한 손으로 내 손이 놀이 널 받들겠노라<sup>3</sup>

### 10. 은혜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은혜 ... 로 성장 하라”<sup>14</sup>는 말씀을 읽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미덕입니다. 그것은 친절하고 선을 베풀고자 하는 성품입니다. 그것은 매력적인 특성 또는 성취이며, “기본 좋게 하는 우아한 모습”입니다.<sup>15</sup> 매력은 개인적인 품위에서 오는 이끌림이며, 자기 가치로부터 나오는 내적인 미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여러분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한 독신 청년은 장차 아내가 될 여성의 특성을 적은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록의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유쾌한 성격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여성의 영향이 과소 평가되고 있음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영향은 때로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여성이 온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두 가지 예를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는 악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선에 관한 것입니다.

이더서에 보면 야렛의 아름다운 딸이 매혹적인 춤으로 에이키시에게 결혼하도록 유혹합니다. 에이키시는 그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할아버지인 오머 왕을 살해하여 그의 목을 그녀에게 주어 그녀의 아버지가 왕이 되게 합니다. 그녀의 권유에 따라, 에이키시는 야렛 백성의 멸망을 가져온 맹세에 의한 비밀 결사를 만들었습니다.<sup>16</sup>

반면, 구약전서에 있는 유대인 여성 에스더는 그녀의 백성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에스더는 아하수어로 왕과 결혼합니다. 그 왕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는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개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백성을 위하여 왕에게 중재할 것을 권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 그분의 사랑의 빛

게일 엠 클레그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알겠느냐?”<sup>17</sup>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들을 살려 달라고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간청을 들었으며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심지어는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이 이 말일을 위해 예비 되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즉 여러분은 에스더처럼 “이 때를 위해” 지상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의로운 영향력일 것이며,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여성적인 신성한 내적인 미와 직감은 조용한 힘과 친절, 존엄성, 아름다움, 우아함, 창의력, 감수성, 광채, 그리고 영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여성적인 성품을 향상시키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그들의 마음을 끌고 심지어는 사랑스럽기 그지 없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미덕을 실천할 때,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sup>18</sup>갈 수 있게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니파이서서 31:20 참조.
2. *Lectures on Faith*(1985년), 1쪽.
3. Michele Lewis가 쓴 개인 서한, 1996년 8월 12일.
4.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24쪽.
5. 야곱서 2:28.
6. “No Greater Honor: The Woman’s Role,” *Woman*(1979년), 8쪽.
7. *교리와 성약* 136:33.
8. “Rumsfeld’s Rules”, *Parade Magazine*, 2001년 11월 18일, 9쪽.
9. *교리와 성약* 130:18 참조.
10. *마태복음* 18:23~34 참조.
11. “Be Ye Clean,” *Ensign*, 1996년 5월호, 48~49쪽.
12. “Feedback,” *New Era*, 1990년 8월호, 3쪽.
13. 찬송가, 35장.
14. *교리와 성약* 50:40.
15.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2000년), “grace,” 504쪽.
16. *이디서* 8:8~21, *힐라맨서* 6:28 참조.
17. *에스더* 4:14.
18. *니파이서서* 31:20.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아홉 살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원공이 덜 된 지하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언니와 저는 그 곳에서 잤습니다. 때로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우면 공사가 끝나지 않은 벽이 무슨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습들은 무서운 꿈을 꾸게 했습니다. 때로는 잠자는 채로 집안을 걷기도 하고 갑자기 이상한 곳에서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완전히 혼란스럽고 무서운 가운데 잠에서 깨었습니다.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눈 앞에 있는 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 누군가 갑자기 불을 켜고, 그 때서야 저는 제가 있는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몽유병으로 돌아다니며 내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확인하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제가 자리에 없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저를 찾기 위해 불을 켜셨습니다.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올리는 간단한 일로 제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된 저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으며 다시 안전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림자가 무서웠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게 불을 켜 둔 채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지하실로 내려와 불을 켜 줄 만큼 저를 사랑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 준 “주 사랑 느끼게 하시고”(“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친16쪽)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 타오르는 또 다른 불을 느낍니다. 이러한 느낌 때문에 우리는 매주 교회에 가서 초등학교 노래와 찬송가를 부르고 때로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우리는 가사를 알고 있지만 갑자기 그 가사가 우리 마음을 빛과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불을 켜기 위해 내려오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느끼는 불빛에 대한 이러한 느낌은 어머니가 지하실에서 불을 켜는 때 제가 느낀 사랑과 안전의 느낌과 꼭 같습니다.

레이첼 레멘이라는 의사는 그 불빛이 가져오는 사랑의 느낌을 잃어버린 잘 생기고 젊은 미식 축구 선수에 대한 실화를 들려 주었습니



다. 그는 친구들과 또 운동 팀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멋진 생활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릎 위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축구를 하거나 인기를 얻는 것은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분노하게 되었으며 그의 생활은 어둡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레넌 의사는 이 젊은이에게 자신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꽃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검정 크레용으로 꽃 병에 커다란 금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몸은 마치 깨어진 꽃병과 같아서 다시는 쓸모가 없다고 믿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에게 인조 다리를 만들어 걸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그의 몸이 치유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느낌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으며 그는 자신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병실에 처음 들어

갔을 때 그녀는 그를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 보았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우스운 이야기도 하고, 결국은 그의 인조 다리를 빼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눈을 뜨고 처음으로 그가 음악에 맞춰 손가락을 튀기면서 방안을 깡충깡충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춤을 출 수 있다면 저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나누었으며 서로 희망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의사가 이 젊은이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그 청년은 전에 깨어진 금을 그어 놓은 꽃병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노랑색 크레용을 집어 갈라진 금에서부터 종이 끝까지 칠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검정색 금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 옵니다.”(Kitchen Table Wisdom, [1996년], 114~118쪽 참조) 저는 그가 한 말의 뜻이 어둡고 힘들었던 경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빛을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지하실에서 약물을 꾸다가 무서운 가운데 깨어났을 때, 저의 옆에는 항상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무 탈 없이 잘 자고 있었지만

제게는 불을 켜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부모님과 교사와 친구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음악과 포옹을 통해, 경전과 기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빛을 필요로 할 때, 그것으로 우리를 감쌀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일은”(앨마서13:29)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느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사랑의 빛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도록 하십시오.

저는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을 저는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린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였나요? 무서웠을 때였나요? 아마도 여러분이 아프거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어디에서 기도를 드렸습니까? 저는 해변에서, 산에서, 교회에서, 놀이터에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비행기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여섯 살 된 한 남동생과 이제 막 일곱 살이 된 누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한 더운 여름 날 할아버지의 오래된 지프차를 아버지와 함께 타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지나자, 차가 덜컹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마을에 있는 주유소에 가까스로 도착하자 차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저희가 고쳐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을 건너편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상점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곳으로 걸어가 상점에 들어서자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물건들이 많았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상점 직원과 함께 뒤쪽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들이 밖을 바라보았는데 마침 아버지가 쓴 것과 비슷한 모자를 쓴 한 사람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막 모서리를 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 아빠!”하고 소리치며 그 사람을 뒤쫓아 달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 사람이 자기들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상점을 찾을 수 없었고, 자신들이 어

디에 있는지 몰랐으며 또 그 도시에는 낯선 사람들뿐이었습니다. 누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고, 동생은 저쪽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아빠를 찾거나 최소한 자기들이 타고 온 차를 찾을 수 있을까요? 누나가 “기도를 해야 돼.”라고 말했습니다. 남동생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두 사람은 기도를 한 후에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주유소를 찾았고, 지프차 뒤에 기어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긴 시간으로 느껴졌던 잠시 후에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도 아이들을 찾게 해 달라고 그것도 빨리 찾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경전에는 기도에 응답을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니파이는 배를 지으라는 말과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노스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루 종일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알고 싶었던 어린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교회에 가야 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가족은 가야 할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교회가 옳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 스미스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참으로 이 구절은 그에게 크나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전에 소리 내어 기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응답이 필요했고 그 구절을 믿었습니다. 겸손하게 그는 집에서 가까운 숲 속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너무도 중요한 기도이기에 도중에 어둠의 힘이 강하고 어린 이 농촌 소년을 압도할 정도로 엄습했으나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한 빛이 내려왔고 어둠은



멀리 사라졌습니다. 요셉은 빛 가운데에서 계신 두 분을 보았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이 다른 분을 가리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스미스서 2:17)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면 저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 모두는 외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워서 새로운 언어를 통해 나누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요셉 스미스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 이야기를 배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다시 한 번 회복시킬 예언자로 요셉 스미스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 스미스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

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을 저는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섯 손가락으로 꼽으며 드리는 저의 간증입니다.

1.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며 우리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3.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물문경을 번역했습니다.
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날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5.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살아 계신 예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여러분이 알고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클린 케이 멘러브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

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또 신앙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보여 줄 기회를 갖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올해 우리는 초등학교 창립 125주년을 기념합니다.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이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의 한 예언자께서 조직하셨습니다. 초등학교는 중요한 조직이고, 또 이를 기념하는 가운데 올해는 놀랄 만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 지도자와 교사들이 어린이 여러분을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여러분과 미래의 여러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합당하게 되어 언젠가 그분께 돌아와서 함께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상 생활에서의 미래와 영원한 미래를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내일을 넘어 멀리 보십시오. 경전, 말일의 예언자들, 그리고 나아가 초등학교 노래까지도 여러분이 자신의 영원한 잠재성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미치도록 준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는 방법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고 그런 다음 신앙 가운데서 그분을 따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리고 성신을 받고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성장을 합당하게 취하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저는 우리가 따르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다른 길에 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sup>1</sup> 저는 초등학교 노래 “주 예수를 닮으려고”<sup>2</sup>를 사랑하며 그 노래를 부를 때 갖게 되는 느낌을 사랑합니다. 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또 신앙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보여 줄 기회를 갖습니다.

열 살 된 존이 수영부에 가입했을 때, 그는 감독에게 토요일에 열리는 경기에만 참가하고 일요일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경기에서 존의 계영 팀은 일요일에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가정의 밤 공과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일이 닦쳐왔을 때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보다 쉬웠습니다.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영부에 가입하기 전에 일요일에는 수영을 하지 않겠다고 저는 미리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계영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감독님에게 말하는 것이 보다 쉬웠습니다. 감독님이 제게 화를 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말 연회에서 감독님은 표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굳게 지킨 제가 너무도 자랑스럽다고 수영부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sup>3</sup> 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가 알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열한 살 때 겪었던 것과 같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듯이 보여서 제가 부러워 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 아이가 제게 담배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담배 피우는 것을 배우게 도와 주겠다고 말하고는 “담배는 해롭지 않아, 그냥 딱 한 번만 해 봐”라고 말하며 저를 굉장히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마음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어렸을 때 결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제가 보다 쉽게 아니라고 말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알고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여섯 살 때 캐틀린은 무용 발표회에서 보다 단정한 복장을 입어도 되는지를 무용 선생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캐틀린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캐틀린은 “너무 힘든 결정이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sup>4</sup> 우리는 단정한 복장을 입음으로 해서 우리의 육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구세주를 따르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 때 큰 힘이 생깁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며 자기 생활이 이 지식의 영향을 받게 하는 사람은 결코 저속하거나 값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sup>5</sup> 예수님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느 누구도 도와 주지 않았을 때 친절하고 인정 많은 행동을 실천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가지고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때 구세주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6</sup> 구세주께서는 서로서로 심지어는 우리와 다른 표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사람들을 피하거나 불친절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덟 살 된 첼시의 한 친구는 어떤 남자 아이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첼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첼시는 자기 친구에게 그 남자 아이가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좋은 아이라고 말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sup>7</sup>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할 때 구세주를 따르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절을 보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때로는 가장 어려운 곳과 대상이 바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친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아들 미치가 열 살이었을 때, 그 아이는 가족을 돕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즐겁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아이는 목에 줄을 걸고는 방울을 달아서 마치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가족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식구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지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미치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또한 가족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소년, 소녀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장을 단정하게 입음으로써, 그리고 친구와 가족에게 친절함으로써 그들이 따르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계명과 다른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알고 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복음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매일 여러분은 완전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이 알고 있음을 보이겠다고 오늘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세주를 따르면서 매일매일 계속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이 알고 있음을 보이겠다고 결정을 내릴 때,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니파이삼서 27:21.
2. *어린이 노래책*, 40쪽.
3. John S. Netherton, “Sticking to Standards,” *Friend*, 2000년 5월호, 47쪽.
4. Caitlin McGrath, “A Modest Choice,” *Friend*, 2000년 5월호, 뒤표지 안쪽.
5.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도의 벗*, 1985년 2~3월호, 21쪽.
6. 누가복음 10:37
7. Chelsea M. Bryant, “Creating Kindness,” *Friend*, 2000년 3월호, 35쪽.

#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랑하는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즉 그분께서 사랑하고 도와 주고 축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소년 소녀 여러분, 초등학교 창립 125주년 생일을 축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너무도 기쁩니다.

소년 소녀들이 참석하는 이런 모임은 유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의 멋진 컨퍼런스 센터에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어린이, 초등학교 교사와 부모가 21,000명이나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곳곳의 다른 건물에 수천 명이 이 멋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제 말씀이 여러 나라말로 통역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살고 있고, 다른 국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공통된 한 가지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다른 장소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은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후로 겪고 있는 놀랄 만한 성장의 한 표시입니다.

교회에 항상 초등학교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처음 48년 동안은 소년 소녀들만을 위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 후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즈라는 이름을 가진 한 훌륭한 자매님이 어린 소년들이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들만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분의 제안이 그 당시 대관장이었던 존 테일러 대관장께 전달되었습니다. 테일러 대관장님은 어떤 한 조직이 어린 소년들에게도 좋다면, 물론 어린 소녀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한다면 더 아름답게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125년 전에 “순종, 하나님을 믿는 신앙, 시간 지키기, 그리고 훌륭한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 224명의 소년 소녀들로 최초의 초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Daniel H. Ludlow, ed., *Encyclopedia of Mormonism*, 전5권, [1992년], 3:1146)

그렇게 작게 시작하여 초등학교는 성장을 했으며, 지금은 전세계 곳곳에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초등학교에는 거의 백 만 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청남 청녀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조직이 그들에게 있듯이 소년 소녀들에게도 그들의 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앞서 말씀을 한 세 분의 자매님들이 전세계의 초등학교 일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는 2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훌륭한 교사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입니다. 그 분들은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며, 매주 여러분을 만나서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기를 몹시 바라고 계십니다.

아텔 리스 형제는 한 영감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아텔은 대여섯 살 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가족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십일조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식구들이 그에게 십일조는 우리가 번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께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십일조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축한 작은 금액에서 십분의 일을 빼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 유일한 방이었던 목욕탕으로 가서 욕조 곁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전 세 네 개를 손에 꼭 움켜쥐고서 저는 주님께서 그 돈을 받아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 동전들을 제게서 가져가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참 동안이나 주님께 간절히 빌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주님은 내 십일조를 받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너무도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 저는 그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

“며칠 후에 초등학교에서 한 자매 교사가 말할 길 공과에 없는 어떤 것을 말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주님의 종인 감독에게 십일조를 내는 방법을 당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저는 깜짝 놀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은 십일조를 내는 방법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분은 저를 사랑하시며, 제가 그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에 저는 그 날 제 초등학교 교사가 가르쳐 준 또 다른 교훈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의 속삭임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의 추억이 너무도 소중한 여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60년이 지난 오늘조차도 눈에 눈물을 담지 않고서는 그 때의 경험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일은 그 초등학교 교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한 어린 소년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그 자매님이 아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An Answer to Prayer,” *Tambuli*, 1988년 5월, 28쪽).

저 또한 어린 소년일 적에 초등학교에 참석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화요일에 모였는데 학교가 끝난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오후에는 항상 지치고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절하고 좋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과자를 가져다주셨으나, 더욱 중요한 점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참으로 훌륭한 공과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배웠고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아

버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숲으로 가서 기도예 응답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방문했던 소년 요셉에 대해 배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교회 역사에 관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 너무도 열심히 일하고 또 참으로 커다란 용기와 신앙을 지녔던 어르신들과 소년 소녀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집안 일을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질서있게 행동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일요일에 모임을 갖습니다. 많은 면에서 그 시간이 보다 나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가 지친 상태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우리 교사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훌륭한 공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활동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훌륭한 초등학교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한 노래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빛이  
우리가 기도할 때 비추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만져 주시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거룩한 복음 전파가 우리 일이니  
당신의 복음을 멀리 전하리라  
신앙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  
진리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네  
(“The Light Divine”, *Hymns*, No. 305장).

이 아름다운 노래의 가사를 마틸다 더블류 카훈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많은 노래들로 가득 찬 이 아름다운 어린이 노래책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 가운데 일부는 요즈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온 교회에서 애창되는 한 훌륭한 노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불러 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진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이 얼마나 훌륭한 노래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하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분을 사랑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지상의 아버지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지상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분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상의 아버지께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요 보호자이며, 보통의 경우 음식과 의복, 그리고 가정을 제공해주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렇게 합니다. 매일 저녁,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밤의 안식에 대해, 따뜻함과 안락함과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에 대해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살피 주시고 하루 종일 여러분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줄 것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것을, 그리고 아프고 궁핍한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 선교사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자러 가기 전에 여러분이 다시 무릎을 꿇고 그 날의 축복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교사들에 대해 그분께 감사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편히 잘 수 있기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특히 궁핍하고 음식이나 잠을 잘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알 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와 이야기하기 위해 매일 몇 분간의 시간을 내는 것이 그렇게 크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분이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하고 나쁜 말을 사용한다면 그분은 마음이 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든 정직하지 않다면, 조그만 일에서라도 속이고 흠친다면, 그분은 마음이 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조그만 좋은 일도 기억한다면 그분은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살피고 인도하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보다 훌륭한 소년 소녀가 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 자매들과 덜 다투고, 집안 일을 돕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여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튼튼한 청년과 청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역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남자와 여자는, 주

님조차도 여러분과 같은 소년 또는 소녀였으며 한때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따랐던 방법에 따라 성장했습니다. 그 방법이 훌륭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훌륭한 남자와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어떤 부분을 상속받은 그분의 자녀, 즉 그분께서 사랑하시고 도와 주고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흐뭇한 미소를 보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소년 소녀들이 학교에서 사용하기 쉬운 나쁜 말을 여러분이 결코 쓰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분께 기도하는 마음을 지니고, 항상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앙을 갖고 항상 그분을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이 순탄하고 또 합당하게 되어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하며 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 어린이들에 관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

2003년 4월 5~6일에 개최된 제173차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발췌한,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만큼 우리는 축복을 받고 변형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소망이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대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는 힘든 노력이지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행이 이곳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저 평탄한 고속 도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에는 기로와 갈림길이 있을 것이며, 물론 예상하지 못한 충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 각자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한계가 어딘지 여러분 각자가 결정해야 하는 옳고 그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경우 그것을 따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도덕적인 선택의지가 있으며, 성신의 은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참되고 거짓된 것인지 분명히 판단하도록 해줍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아주 쉽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그분께 기도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건전지를 충전하거나 월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는 말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이 방해될 때에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 “그것이

또한 저의 기도입니다.”라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소리 내어 말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개척자들처럼 우리도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겨 내도록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통해 그리고 신앙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계획의 전부입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신은 영체를 가진 존재이며 개체로서 신회의 구성원이며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신성 및 회복된 복음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증인 또는 간증자이기도 합니다.

확인 인수를 받으면,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나, 이 권리는 오직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과 합당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칠십인 회장단:** 성찬식은 참으로 모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갖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매주 갖는 이 성찬식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자비로운 희생의 행동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숙고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그분을 기억하고 기쁘게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결심합니다. ■



# 2003년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네** 번째 일요일에 갖는 땀기세텍 신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해야 한다. 매년 대관장단은 이 모임에서 사용할 참고 자료를 지정하고 열 가지 주제를 정한다. 다음은 2003년을 위한 주제와 지정된 참고 자료이다. 스테이크장단 또는 지방부장단은 추가로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한다.

네 번째 일요일 모임의 토론은 지정된 자료를 가운데서 정원회나 그룹 회원들의 필요 사항과 사정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한 가지나 두 가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교사들이 참고 자료들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이 모임이 강의나 발표 시간이 아니라 토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정원회 및 그룹 회원들에게 토론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동기를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정원회 또는 그룹 토론을 준비하고 이끄는 것에 관한 제언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과 교수법 지도서*에 나와 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희망**  
 마태복음 27:11~61; 누가복음 22:39~46; 요한복음 20:1~22; 알마서 34:8~18; 42장; 교리와 성약 19:1~20.

제임스 이 파우스트, “속죄: 우리의 가장 큰 희망”,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9~22쪽.

달린 에이치 옥스, “우리 생활에서의 복음”,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6~39쪽.

조셉 비 스위린, “나를 따르라”,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5~18. “속죄”, 복음 원리, 제12장.

**2. 십일조와 헌금의 목적**  
 말라기 3:8~12; 교리와 성약 64:23; 119:1~4; 120:1.  
 고든 비 힝클리,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합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80~82쪽.

제프리 알 홀런드, “물 댄 동산처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37~39쪽.

“십일조와 헌물”, 복음 원리, 제32장.

**3. 기도**  
 마태복음 6:9~13; 7:7; 알마서 7:23; 교리와 성약 93:49.

토마스 에스 몬슨, “그들은 기도하고 갑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54~57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기도라는 구명 밧줄”,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2~69쪽.

헨리 비 아이어링, “기도”,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6~19쪽.

“개인 및 가족 기도”, *말일성도 여성상 제2과*, 제34과.

**4. 기운을 내십시오**  
 요한복음 14:27; 16:33; 니파이서 4:16~35; 10:23; 교리와 성약 78:17~22.

고든 비 힝클리,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01~102쪽.

토마스 에스 몬슨, “지금 바로 그때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8~71쪽.

엠 러셀 벨라드, “왕국의 평화로운 것”,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98~101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복음 원리, 제18장.

**5.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강화시킴**  
 마태복음 22:35~40; 누가복음 22:31~32; 모사이야서 23:15; 교리와 성약 88:123~125; 108:7.

고든 비 힝클리, “손을 내밀어 들어올립시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0~67쪽.

보이드 케이 패커, “어린이”,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10쪽.  
 엠 러셀 벨라드, “포용의 교리”,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40~43쪽.

“사랑, 자비, 봉사”, *말일성도 여성상 제1과*, 제8과.

**6. 신앙으로 생활함**  
 히브리서 11; 알마서 32:16~23; 이더서 12:4~22, 27.

고든 비 힝클리, “우리는 신앙으로 생활합니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80~82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우리 예언자들의 신앙”,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4~27쪽.

러셀 엠 벨슨, “굳ود다 그 기초”,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83~86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말일성도 여성상 제1과*, 제1과.

**7.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함**  
 마태복음 25:14~30; 모사이야서 3:19; 5:12~13; 교리와 성약 76:50~70.

제임스 이 파우스트, “큰 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53~56쪽.

닐 에이 맥스웰, “네가 행한 일을 성결케 하시리로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9~42쪽.

조셉 비 스위린, “한 발 한 발”,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7~30쪽.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2과*, 제35과.  
**8. 쉽게 상대지 않음**  
 누가복음 15:11~32; 고린도전서 12:1~27; 니파이서 26:24~28; 니파이삼서 11:28~30.

토마스 에스 몬슨, “숨겨진 썩기”,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9~22쪽.

제프리 알 홀런드, “또 다른 탕자”,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9~72쪽.

“용서하고 용서받음”, *신권의 의무와 축복 제2과*, 제33과.

**9. 새로운 개종자들을 강화시킴**  
 마태복음 25:31~46; 누가복음 15: 모사이야서 2:17.

리처드 지 스코트, “완전한 개종이 가져오는 행복”,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26~28쪽.

헨리 비 아이어링, “참된 친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29~32쪽.

“우정 증진: 신권 책임”, *하나님의 의무와 축복 제2과*, 제10과.

**10. 영의 인도에 따라 살**  
 창세기 37; 39~45.  
 엘 톰 페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됩시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42~45쪽.

로버트 디 헤일즈, “어둠에서 나와 그의 놀라운 빛으로”,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7~80쪽.

“성신의 은사”, *말일성도 여성상 제1과*, 제4과. ■

# 아론 신권 교재 1용 참고 지도서

2003년에 사용함, 제25~49과

**다** 음 자료(제25~49과)는 대체 자료가 아닌 보충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교재에는 성탄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 일요일(12월 21일)에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속죄, 부활, 그리고 구세주의 생애와 사명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차 대회 말씀, 교회 잡지 기사 및 찬송가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친=친구들

## 제25과: 용서

보이드 케이 패커, “주님의 손길”,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25~28쪽.

제이 이 켄슨, “회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14~17쪽.

리차드 시 에즐리, “보라 이 사람이로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9~51쪽.

“구세주의 희생에 감사드리며”,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26~27쪽.

## 제26과: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가장 훌륭한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21~24.

에이치 앨드리지 길레스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축복”,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93~95쪽.

카렌 에프 처치, “안식일의 가족 시간”,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48쪽.

## 제27과: 경건

제임즈 이 파우스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3~56쪽.

엘 톰 페리, “경건”,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친2~3

## 제28과: 여성을 존중하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결혼으로 하나가 됨”,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36~41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여성: 가장

영예로운 자리”,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16~119쪽.

마가렛 디 네이들드, “여성이 되는 기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7~19쪽.

## 제29과: 영원한 가족

리셀 엠 벨슨, “네 집에 질서를 세우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0~83쪽.

세리 엘 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니”,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3~15쪽.

알폰소 카스트로 바즈케즈, “나는 영원한 가족을 원해요”, *리아호나*, 2000년 8월호, 26~28쪽.

## 제30과: 구원의 계획

제프리 알 홀런드, “선교 사업과 속죄”,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26~32쪽.

크리스토펬 골든 이세, “우리 아버지의 계획”,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33~35쪽.

제이 이 켄슨, “영원한 관점을 지키십시오”,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32~34쪽.

엘 알든 포터, “우리들의 운명”,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7~79쪽.

## 제31과: 지속적인 기도와 금식

제임즈 이 파우스트, “기도라는 구멍 맞출”,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2~69쪽.

조셉 비 워스린, “금식의 법”,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8~91쪽.

본 제이 페더스토운, “항상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5~18쪽.

## 제32과: 십일조

제프리 알 홀런드, “물 든 동산처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37~39쪽.

얼 시 텅기, “십일조의 법”,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0~12쪽.

글로리아 올레이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26~28.

## 제33과: 경건 공부

보이드 케이 패커,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1~74쪽.

리셀 엠 벨슨, “경건의 안내에 따라 생활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9~22쪽.

트리샤 스완슨 데이튼, “나의 전쟁에서 이김”,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26~28쪽.

## 제34과: 순종

리차드 지 스코트, “의의 일 하세”,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10~17쪽.

로버트 디 헤일즈, “명예롭게 귀환하라”,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10~15쪽.

스펜서 제이 콘디, “계속하여 선행하려는 마음”,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14~21쪽.

글렌 엘 페이스, “기차 안에 머무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6~27쪽.

## 제35과: 성찬

보이드 케이 패커, “깨끗하게 씻겼노라”,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9~11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나사렛 예수”,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75~78쪽.

피터 디 가드너, “말 이상의 것”,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28~29쪽.

웨인 비 린, “성찬을 전달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8~9쪽.

## 제36과: 간증

제임즈 이 파우스트, “커 가는 간증”,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9~71쪽.

조셉 비 워스린, “순수한 간증”,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7~30.

리차드 지 스코트, “강한 간증의 힘”,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00~103쪽.

## 제37과: 아론 신권

토마스 에스 몬슨, “길을 예비함”, *리아호나*, 2001년 2월호, 2~7쪽.

로버트 디 헤일즈,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43~46쪽.

존 에이치 그로버그,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1~53쪽.

## 제38과: 아론 신권 소유자의 부름을 영화롭게 함

토마스 에스 몬슨, “봉사하라는 부름”,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7~60쪽.

스펜서 제이 콘디, “인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됨”,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48~50쪽.

에이치 데이비드 버든,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46~48쪽.

## 제39과: 모범을 통한 선교 사업

토마스 에스 몬슨,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리아호나*, 2002년 6월호, 2~9쪽.

델린 에이치 옥스,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10쪽.

피터 아롱과, “다섯 바퀴”,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46~47쪽.

## 제40과: 주님의 집

제임즈 이 파우스트,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2~5쪽.

제프리 알 홀런드, “마치 비둘기처럼 우리의 창가로”,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90~93쪽.

태요 엠 투어슨, “주님이 내 눈을 열어 주셨을 때”,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30~31쪽.

## 제41과: 성적인 순결

토마스 에스 몬슨, “외설물-치명적인 매개체”,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2~6쪽.

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인 악어”,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8~11쪽.

닐 에이 맥스웰, “일곱 번째 계명: 방패”,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90~93쪽.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설물의 함정을 피함”,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12~17쪽.

## 제42과: 정직

고든 비 힐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고든 스웬슨, "명예를 지킨 손",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8~9쪽.

**제43과: 경전을 상고하기 위한 수단**

보이드 케이 패커,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1~74쪽.

러셀 엠 넬슨, "경전의 안내에 따라 생활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9~22쪽.

"경전 공부 제안",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29쪽.

**제44과: 더 나은 가정 복음 교사되기**

헨리 비 아이어링,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44~47쪽.

존 엘 하우어터, "후임 동반자",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28~30쪽.

말콤 더블류 왓슨, "끝까지 충실한 가정 복음 교육",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43~44쪽.

**제45과: 성스러운 출산 능력**

보이드 케이 패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5~88쪽.

제프리 알 홀런드,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40~43쪽.

데이비드 이 소렌슨, "방울뱀하고는 못 노는 거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48~50쪽.

**제46과: 결정하기**

제임즈 이 파우스트,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에게 주는 메시지",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2~7쪽.

새론 지 라슨, "해의 왕국의 길잡이",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04~106쪽.

**제47과: 헌납과 희생**

닐 에이 맥스웰, "내가 행한 일을 성결케 하시리로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9~42.

엠 러셀 벨라드, "희생의 법",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10~20쪽.

캐롤 비 토마스, "희생: 영원을 위한 투자",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7~79쪽.

카메론 맥코이, "저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34~37쪽.

**제48과: 침례의 권세**

보이드 케이 패커, "불의 갈라진 혀",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7~10쪽.

로버트 디 헤일즈, "침례 성약: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에 속해 있음",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9쪽.

세르지오 아로요, "데이비드가 안내한 길",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28~29쪽.

**제49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함**

닐 에이 맥스웰, "지혜롭게 순리대로", *리아호나*, 2001년 12월호, 18~23쪽.

델린 에이치 옥스, "초점과 우선 순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99~102쪽.

조셉 비 위스린, "인생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34~43쪽.

# 청년 교재 1용 참고 지도서

2003년에 사용함, 제1~24과

**다**음 자료(제1~24과)는 대체 자료가 아닌 보충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교재에는 성탄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 일요일(12월 21일)에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세주의 속죄, 부활, 생애와 사명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차 대회 말씀, 기사, 찬송가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제25과: 안식일**

토마스 에스 몬슨, 가장 훌륭한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21~24쪽.

에이치 앨드리지 길레스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축복",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93~95쪽.

카렌 에프 처치, "안식일의 가족 시간",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48쪽.

**제26과: 간증**

제임즈 이 파우스트, "커 가는 간증",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9~71쪽.

조셉 비 위스린, "순수한 간증",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7~30쪽.

리차드 지 스크트, "강한 간증의 힘",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00~103쪽.

**제27과: 경전 공부**

보이드 케이 패커, "물문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71~74쪽.

러셀 엠 넬슨, "경전의 안내에 따라 생활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9~22쪽.

트리샤 스완슨 테이튼, "나의 전쟁에서 이김",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26~28쪽.

**제28과: 죄에 저항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51~54.

닐 에이 맥스웰, "세상의 유혹",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3~46쪽.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43쪽.

대린 리스코, "유혹에 맞서",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7쪽.

**제29과: 재림**

고든 비 힝클리, "모든 시대의 정점에서",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7~90쪽.

고든 비 힝클리, "우리가 사는 시대",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3~86쪽.

러셀 엠 넬슨,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며 그 이상의 분이심",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4~19쪽.

**제30과: 봉사**

엘 톰 페리, "봉사하는 것을 배움",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10~19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감사와 봉사",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5~88쪽.

로저 테리, "지극히 작은 자", *리아호나*, 2000년 12월호, 18~24쪽.

후양 시후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리아호나*, 2001년 8월호, 44~45쪽.

**제31과: 그룹 활동: 현명한 데이트의 기초**

고든 비 힝클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라라 벵거터, "꿈에 그리던 이상형",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46~47쪽.

**제32과: 자기 수련을 통한 개인적인 순결**

제임즈 이 파우스트, "내부의 적",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4~57쪽.

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인 악어",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8~11쪽.

제프리 알 홀런드, "개인적인 순결",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40~43쪽.

**제33과: 저속한 미디어의 영향을**



## 회피함

토마스 에스 몬슨, “외설물-치명적인 매개체”,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2~6쪽.  
 데이비드 이 소렌슨, “방울뱀하고는 못 노는 거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48~50쪽.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설물의 함정을 피함”,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12~17쪽.

## 제34과: 합당한 생각

“성품의 형성: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영감의 말씀”,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40~41쪽.

리차드 지 스코트,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얻음”,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12~19쪽.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리아호나*, 2000년 9월호, 26~27쪽.

## 제35과: 압박 속에서 의롭게 생활함

닐 에이 맥스웰, “세상적인 인기예의 영합과 올바른 원리 준수”, *성도의 빛*, 1996년 8월호, 14~19쪽.

엘 라이오넬 켄드리, “역경에 맞서는 힘”,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8~35쪽.

리차드 시 에즐리, “사탄의 스나이프 주머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2~53쪽.

새론 지 라슨, “거룩한 곳에 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03~105쪽.

## 제36과: 덕행이 있는 삶에서의 진리의 중요성

고든 비 힝클리, “진리의 기본 원리들”,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2~8쪽.

토마스 에스 몬슨, “그대 모범이 되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15~118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풍성한 삶을 얻음”,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2~6쪽.

## 제37과: 우리의 육신을 돌봄

보이드 케이 패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5~88.

닐 에이 맥스웰, “지혜롭게 순리대로”, *리아호나*, 2001년 12월호, 18~23쪽.



엠 리셀 벨라드, “너희는 저의 말을 받아들여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79~82쪽.

## 제38과: 영양과 지혜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들을 물리침”, *리아호나*, 2002년 2월호, 2~6쪽.

제니 윌라드슨, “나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31쪽.

브래드 윌콕스, “위험한 질문”, *리아호나*, 2000년 5월호, 32~35쪽.

## 제39과: 약물 남용

고든 비 힝클리, “이 축복받은 시대”, *성도의 빛*, 1995년 9월호, 2~7쪽.

멜린 에이치 옥스, “죄와 고통”, *성도의 빛*, 1994년 4월호, 26~32쪽.

제니퍼 페리, “받아들여짐”,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11~12쪽.

콜린 위틀리, “난 아무에게도 피해 주지 않아”,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40~42쪽.

## 제41과: 성공의 능력

조셉 비 워스린, “인생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34~43쪽.

존 비 덕슨, “삶이 고될지라도”,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28~31쪽.

매리 엘린 스무트, “강건하여 흔들리지 말고”,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06~108쪽.

## 제42과: 시도하는 용기

고든 비 힝클리, “확신에 찬 생활”, *리아호나*, 2001년 9월호, 2~7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2~7쪽.

제프리 알 홀런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리아호나*, 2000년 6월호, 34~42쪽.

마라 파트리시아 로하스 브이, “새로운 꿈”, *리아호나*, 2001년 9월, 45~46쪽.

## 제43과: 의로운 삶

리차드 지 스코트, “의의 일 하세”,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10~17쪽.

로버트 디 헤일즈, “명예롭게 귀환하라”,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10~15쪽.

스펜서 제이 콘디, “계속하여 선행하려는 마음”,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14~21쪽.

글렌 엘 페이스, “기차 안에 머무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6~27쪽.

## 제44과: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함

닐 에이 맥스웰, “지혜롭게 순리대로”, *리아호나*, 2001년 12월호, 18~23쪽.

멜린 에이치 옥스, “조점과 우선 순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99~102쪽.

조셉 비 워스린, “인생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34~43쪽.

## 제45과: 일의 가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잃어버린 지평선”, *리아호나*, 1999년 8월호, 2~6쪽.

엘 톰 페리, “자립하게 됨”,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75~77쪽.

## 제46과: 교육의 목적과 가치

고든 비 힝클리, “영구 교육 기금”,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0~67쪽.

“단순하고 간결한 진리” 여섯 가지 원리를 적용한 청년 청년들”, *리아호나*, 2002년 9월호, 16~21쪽.

엔 엘빙턴 런치, “날개”, *리아호나*, 2000년 2월호, 26~29쪽.

## 제47과: 재능을 개발하도록 격려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우리의 삶에서 균형을 이룰 필요성”, *리아호나*, 2000년 3월호, 2~7쪽.

캐롤 비 토마스, “영성을 위한 재능을 발전시킴”,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06~108쪽.

마리사 디 톰슨과 제나 닐슨,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킴”,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40~41쪽.

## 제48과: 디딤돌로서의 단기간 목표

고든 비 힝클리, “인생의 책임”,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2~7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큰 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53~56쪽.

조셉 비 워스린, “한 발 한 발”,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7~30쪽. ■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주일학교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제1보좌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회장



발 알 크리스텐슨 장로  
제2보좌

### 청남



글렌 엘 페이스 장로  
제1보좌



에프 엠비 하몬드 장로  
회장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제2보좌

### 상호부조회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제1보좌



보니 디 파킨 자매  
회장



앤 시 핑그리 자매  
제2보좌

### 청녀



줄리 비 벅 자매  
제1보좌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회장



일레인 에스 톨튼 자매  
제2보좌

### 초등회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자매  
제1보좌



콜린 케이 멘러브 자매  
회장



게일 엠 클레그 자매  
제2보좌

## 교회 소식

###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새로 부름 받은 총관리 역원들, 교회 지도자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말씀

**제** 173차 연차 대회의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대관장단은 칠십인 회장단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에 대한 변경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 중인 한 역원이 칠십인 제일 정원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으며, 5명의 총관리 역원과 37명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 새로 부름받았다.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는 최근에 브리감 영 대학교의 총장으로 새롭게 임명됨에 따라 칠십인 회장단에서 해임되었다. 사무엘슨 장로는 또한 본부 주일학교 회장직에서도 해임되었다.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인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는 칠십인 회장단과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와 발 알 크리스텐슨 장로는 계속해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의 제1보좌와 제2보좌로 봉사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해 온 브루스 디 포터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새로운 총관리 역원들은 머빈 비 아놀드 장로, 셸리 디 크리스텐슨 장로, 클라트 더블류 마스크 이세 장로, 윌리엄 더블류 팜리 장로, 더블류 더글러스 썬웨이 장로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37명의 칠

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이 새롭게 지지 받았다—브라질 4명, 멕시코 2명, 나이지리아 2명, 미국 12명 및 다음 나라들에서 각각 1명씩,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홍콩,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파나마, 필리핀, 사모아, 스페인, 스위스, 대만, 통가 및 베네수엘라(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의 성명은 본지 23쪽에 있는 “교회 역원 지지” 참조)

북미 남동부 지역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던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는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음에 따라 그 직에서 해임되었다.

연차 대회 동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과 그 외 교회 지도자들은 혼란한 현 세계 정세를 인식하고, 분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안의 말씀과 인도 및 가르침을 주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 전쟁에 대해 교회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교회 회원들에게 “우리는 회교도들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 회원들이 자국의 정부를 지지하고 법률

을 지킴으로써 신앙개조 제12조에 순종하도록 요청했다. 핑클리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주의하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편이나 저 편으로 갈린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 악한 말이나 행위를 하는 파당에 속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과 구세주를 바라볼 것을 권고하셨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평화의 백성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핑클리 대관장은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교회의 계속되는 성장에 관해 보고했다. 핑클리 대관장은 교회가 매년 약 400개의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으며, “전세

계적으로 성전 건축을” 계속하고 있음을 언급했으며, 또한 약 8,000명의 젊은 남녀가 현재 영구 교육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훈련과 교육을 받고 나면 그들의 수입은 약 4배 반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교회는 대회 직전에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에 관한 상세한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홍콩에 선교사들을 파견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했다. 현재 홍콩에서 봉사 중인 선교사들의 안전과 안명이 주의 깊게 관리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회장단과 홍콩에 있는 지역 의료 고문은 매일 모임을 갖고 있으며, 이 바이러스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선교부장들에게 시기 적절한 지시를 내려 선교사들이 알맞은 예방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 ■



## 머빈 비 아놀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사**람에게도 상표를 붙인다면, 54세의 나이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은 머빈 베니언 아놀드 장로는 “유타 주 농촌 출신”이라고 적힌 상표를 자랑스럽게 붙일 것이다.

1948년 7월 19일, 솔트레이크 크시티에서 출생한 아놀드 장로는 솔트레이크 계곡 서부의 농촌 지역에서 성장했다. “우리 집에는 천 마리의 닭과 우리가 젖을 짜야 했던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망무를 심기 위해 땅도 봤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그의 부모인 존 에버렛 소렌슨 아놀드와 자스민 베니언 아놀드 부부는 아들 다섯과 딸 둘을 키우면서 그들에게 근면의 중요성,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족과 복음에 대한 사랑을 가르쳤다. 아놀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교회의 교리를 사랑하라고 배웠으며, 물론경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간증을 얻었느냐는 질문에 아놀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간증을 쌓도록 도와 줍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모든 교사들과 신권 지도자들의 성명과 그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

아놀드 장로는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그 후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71년에 아이다호 주 아이다호 폴스 성전에서 데보나 크레스와 결혼했다. 그는 아내에 대해 “복음에 대한 매우 강한 간증을 가진 훌륭한 여성”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여섯 명의 자녀와 네 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그들은 가족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아놀드 장로는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일하다가 후에 은행에서 일했다. 그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코스타리카, 파나마, 그리고 산블라스 군도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가장 근래에 아놀드 장로는 선교사부의 훈련 및 선교 임지 지원 책임자였다.

새로운 부름을 시작하면서 아놀드 장로는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도 축복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저는 구세주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

## 셜리 디 크리스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셜**리 디 크리스틴슨 장로는 1980년 5월 18일 아침에 일어났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날은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하지만 정오가 되자 워싱턴 주 로얄시티의 하늘은 어두워졌고 한때 푸르렀던 초원과 과수원은 재로 뒤덮였다. 로얄시티에서 서쪽으로 약 240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성 헬렌스 산의 화산재가 분출했던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크리스틴슨 장로는 자신의 사과 나무 과수원에서 재가 쌓여 있는 많은 나무들이 소중한 사과들을 떨어뜨리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아 있던 사과들은 품질이 우수했고, 열매가 줄어든 것이 오히려 수확에 도움이 되었다. 그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농작물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해는 유래 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 해 중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그 축복을 자

신의 가족이 충실하게 바치는 십일조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과 연관짓는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역경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다.

64세에 새로운 칠십인 정원회의회원으로 부름 받은 크리스틴슨 장로는 1939년 1월 8일 아이다호 주 프레스턴에서 레그랜드와 블랜치 나에프 크리스틴슨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아이다호와 워싱턴에서 자랐으며, 제니엘 존슨을 만난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들은 1962년 6월 23일 유타 주 맨타이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의 자녀는 여섯 명이 있다.

크리스틴슨 장로는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우루과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는 그곳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게 되었다. “그 전에는 첫번째 시현에 대해 단지 말할 수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쳤을 때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던 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크리스틴슨 장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아르헨티나 레시스턴시아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또한 성전 의식 봉사자, 지부장, 감독 및 스테이크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

## 클라트 더블류 마스크 이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클**라트 휠러 마스크 장로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스크 장로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텍사스 주 엘패소에서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그의 아버지 클라트 휠러 마스크 일세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

그때 그는 어머니 마바 곤잘레스 마스크로부터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께서 집에 무사히 돌아오시고 교회에 들어오시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제가 어머니 곁에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마스크 장로는 많은 시간을 그의 외조부모와 함께 보냈다. “저는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께서 읽어 주시는 몰몬경 이야기를 들곤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멕시코에서의 선교 사업에 대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라고 마스크 장로는 회상한다.

그의 아버지는 무사히 전쟁터에서 돌아왔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 이후 마스크 장로의 간증은 확고해졌다.

그는 결국 중앙 아메리카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는데, 귀환하기 바로 전에 그는 몇 명의 선교사에 대한 보고서를 쓰라는 임무를 받았다. “어떤 자매 한 명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바로 그녀가 제가 미래에 결혼하고 싶었던 이상형의 여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마스크 장로는 말한다.

군복무를 마친 후 마스크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거기에서 그 자매 선교사였던 파올라 캐롤 간즈 자매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1965년에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하여 여섯 자녀를 키웠다.

마스크 장로는 영어 및 스페인어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교회 교육 기구에서 30년 동안 일해 왔다. 그는 선교부장, 감독, 감독단 보좌,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 고등 평의원 및 지부장으로 봉사했다.

60세인 마스크 장로는 1942년 8월 20일에 출생했다. 그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서의 새로운 부름이 그의 생에서 다른 부름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안다. “지금까지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 부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라고 마스크 자매는 말한다. ■

## 윌리엄 더블류 팜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지**난 몇 달 동안의 윌리엄 더블류 팜리 장로의 생활은 지난 수십 년의 삶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다. 그와 그의 아내 사나 닐슨 팜리 자매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심장 전문의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의과 대학 교수직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다가 대신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팜리 장로는 평생 동안 쌓은 진실한 간증의 결과를 명백히 드러냈다.

“그들 모두가 그의 성실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압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라고 팜리 자매는 팜리 장로의 지인들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말한다.

67세의 팜리 장로는 사람들이 보통 은퇴하지 않는 직업에서 은퇴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자신이 의학계를 떠나는 이유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그는 최근 연례 학회에서 만났던 사람을 기억한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왜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말했다. 다음날, 한 동료는 “내 아내와 나는 자네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네. 우리에게 선교 사업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주게.”라고 말했다. 팜리 장로는 그렇게 했고, 그 남자는 “우리도 자네와 함께 갈 수 있겠나?”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팜리 장로는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반응은 평생 의사,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서 봉사해 온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라 하겠다.

“베냐민 왕이 말했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라고 팜리 장로는 말한다.

팜리 장로 부부는 1961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여 네 명의 자녀와 여덟 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 팜리 장로는 1936년 1월 22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토마스 제니스 팜리와 라번 와츠 팜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노스웨스턴 스테이크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감독, 스테이크장, 지역 대표 및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했다. ■

## 더블류 더글러스 썬웨이 장로

칠십인 정원회



**윌**포드 더글러스 썬웨이 장로에게 자신의 가족을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1초도 안 돼서 “충실함”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충실함이 가족 일을 돌보는 것이긴, 아내가 죽기 전에 그녀를 돌보아 주었던 딸을 통해서이긴, 또는 여덟 명의 자녀들이 서로를 돌봄으로 해서 그가 볼리비아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건 간에, 썬웨이 장로의 가족은 서로간에 그리고 복음에 충실하다. 썬웨이 장로의 가족은 그가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자, 전과 같은 지원을 보여 주고 있다.

썬웨이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족이 도와 주지 않았다면 저와 제 아내는 이 부름을 절대로 수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2세의 썬웨이 장로는 윌포드 제니스 썬웨이와 메이블 파이팅 썬웨이 사이에서 태어났다. 썬웨이 장로는 1940년 5월 8일 출생했으며, 애리조나 세인트존스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디시 앤 자비스를 만났다. 이들의 부모들은 가까운

친구들이었으며, 이들은 고등학생 시절 가깝게 지냈다. 썬웨이 장로가 우루과이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가 썬웨이 장로와 교제하도록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1963년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슬하에 여덟 명의 자녀와 스무 명의 손자 손녀를 두었다.

이들은 최근에 가족이 경영하는 호텔과 세차장이 있는 쇼 로우 근처의 애리조나 이거로 이사했다. 지난 여름 이 지역에 지독한 화재가 휩쓸었을 때, 3 일간 TV 아나운서는 이 화재가 다음날 아침에 쇼 로우를 덮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화재는 도시에 접근하지 못했으며, 아나운서는 결국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느 때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힘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썬웨이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재가 그곳을 덮쳤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 화재는 악몽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썬웨이 장로의 가족은 살아 남았으며 그의 사업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는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감사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